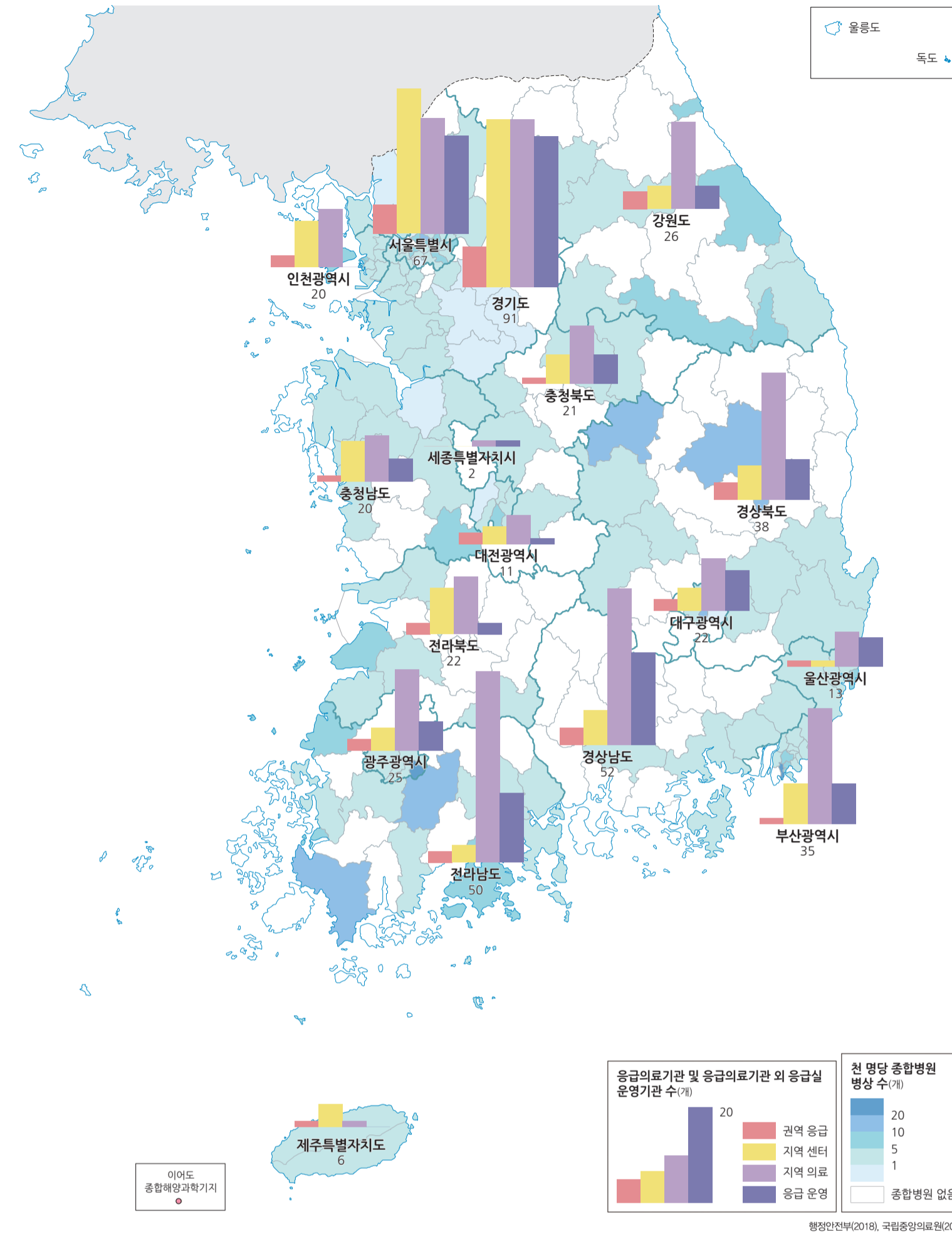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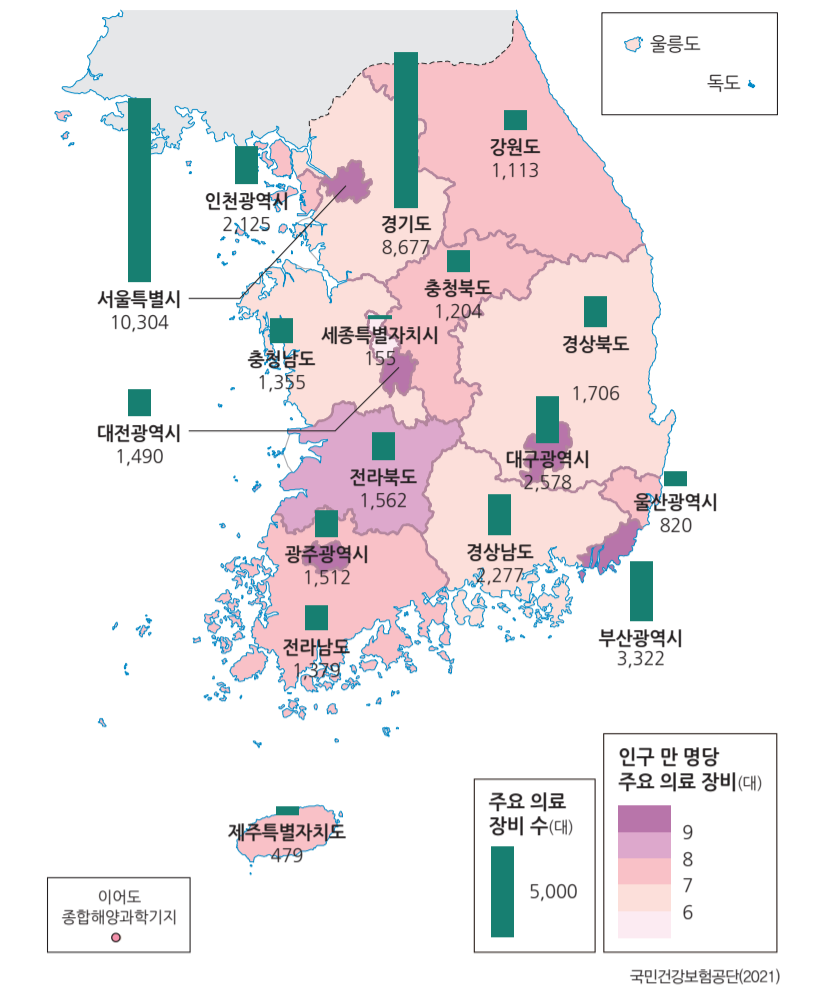
# 보건과 복지

## 보건 의료 서비스

종합병원 병상 수 및 응급실 분포



주요 의료 장비(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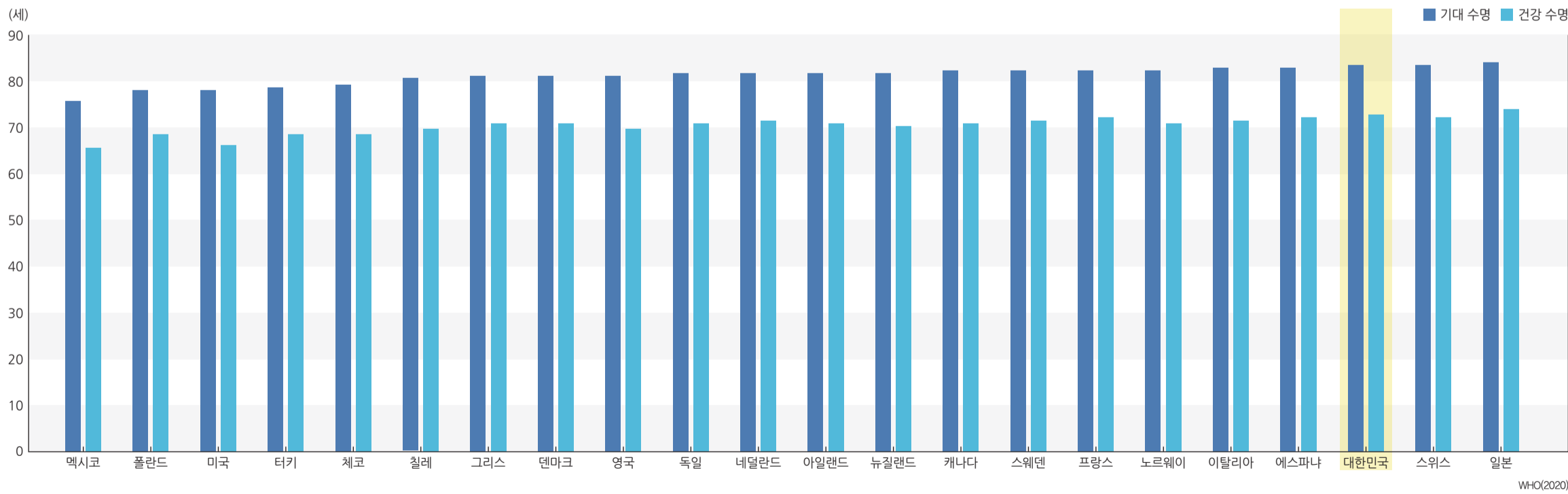
정부의 복지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령별, 성별, 계층별로 다양한 형태의 복지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재정 악화, 경제 성장 둔화,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감소 등은 복지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한민국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해마다 상승해 2019년 8.2%를 기록했다. OECD 평균(8.8%)과 비슷하지만, 미국(16.8%), 독일(11.7%), 일본(11.0%) 등 주요국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의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노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비 지출은 국가와 사회 보장 부분의 정부·의무 가입 제도에 의한 지출과 민간 보험과 개인 지출 등의 민간 재원에 의한 지출로 구분된다. 정부·의무 가입 제도에 의한 지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과제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중요 현안이다.

대한민국은 의료 인력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사 수와 간호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각급 대학에서 우수한 의료 인력이 양성되고 있으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와 간호사 수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이다.

OECD 주요국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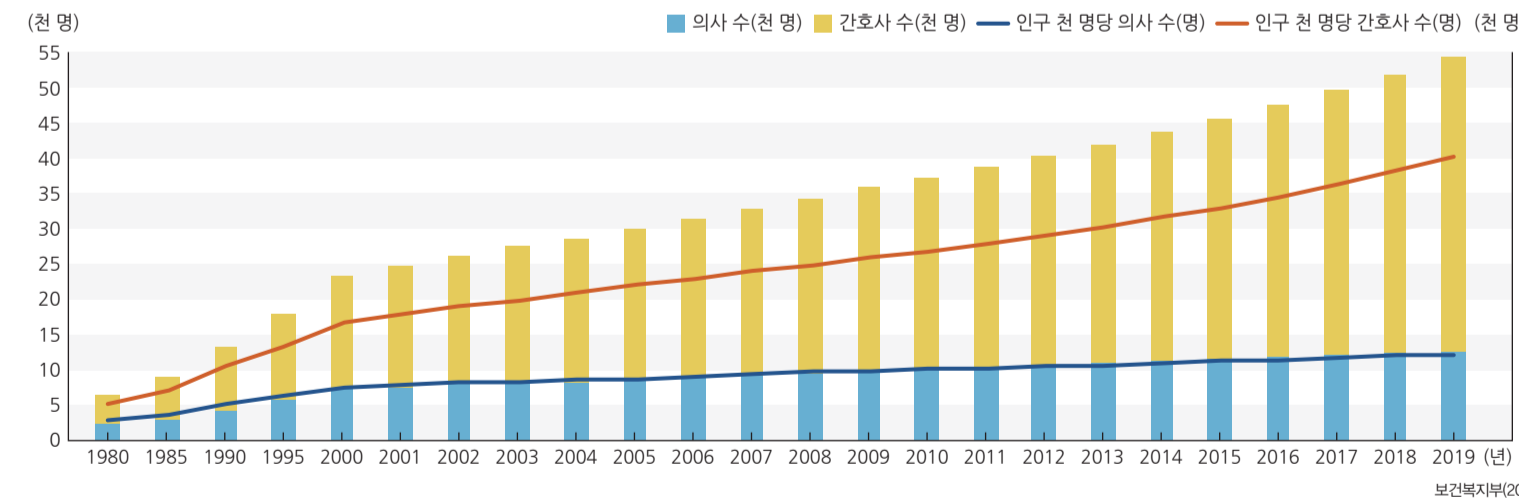


근대 의학의 도입과 경제 성장은 의료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이는 기대 수명의 증가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 잘 훈련된 풍부한 의료 인력과 첨단 시설을 갖춘 의료 기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건강검진 제도를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전국민 의료 보험 제도의 도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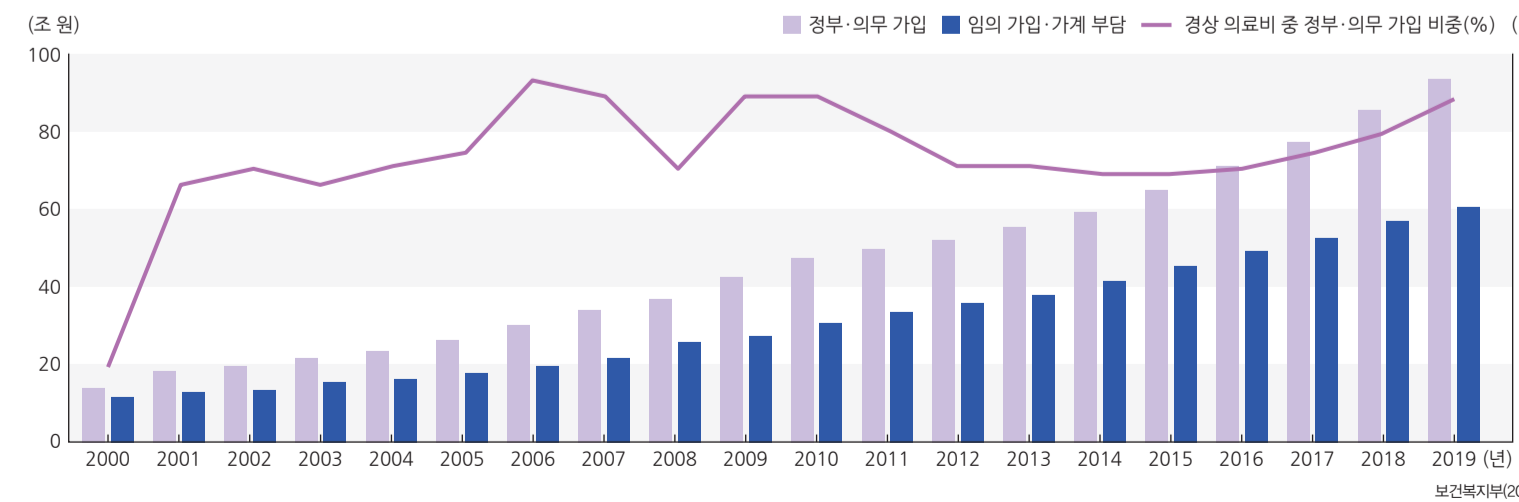
통해 모든 국민이 의료 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다른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인구의 노령화 현상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기대 수명에 비해 건강 수명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도시와 농촌 지역 간 의료 접근성 차이,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일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질병, 전 세계적

인 전염병의 등장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아지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는 복지다. 급속한 경제 성장 이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극심한 경쟁 과정에서 뒤쳐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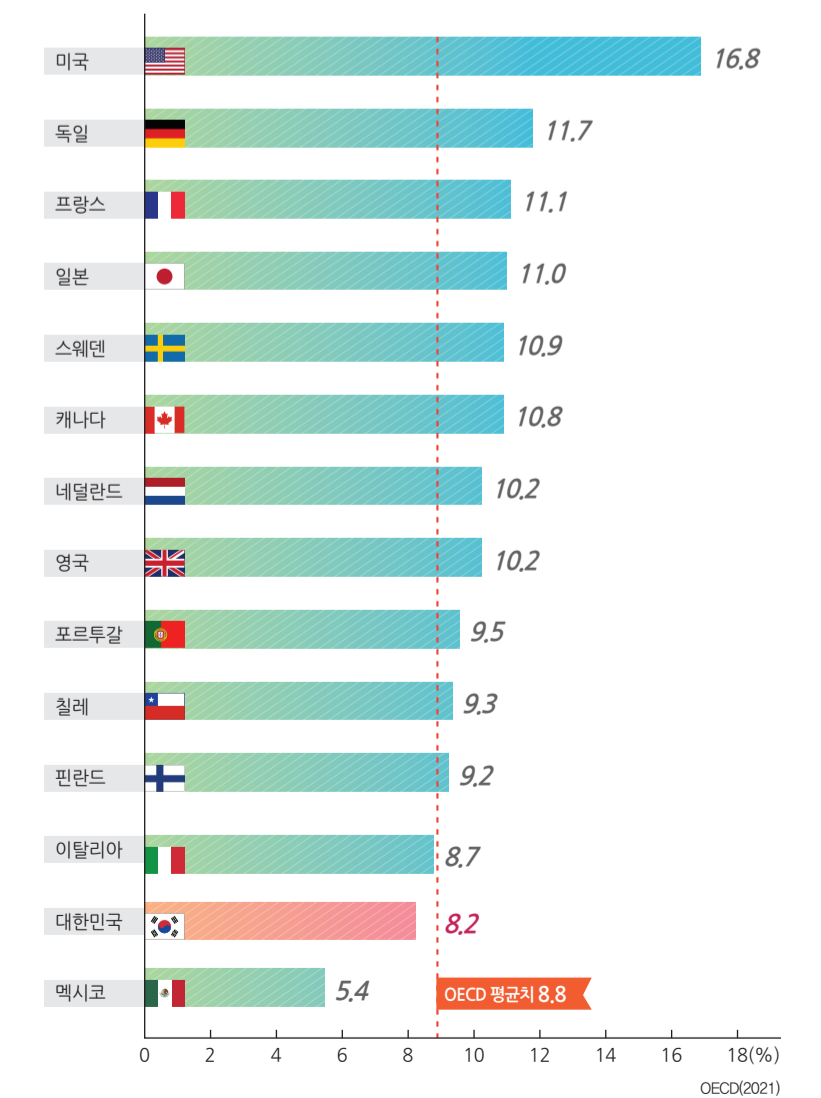
의료 인력의 증가 추이(1980-2019년)



경상의료비 지출의 재원(정부·의무 가입 제도의 비율, 2000-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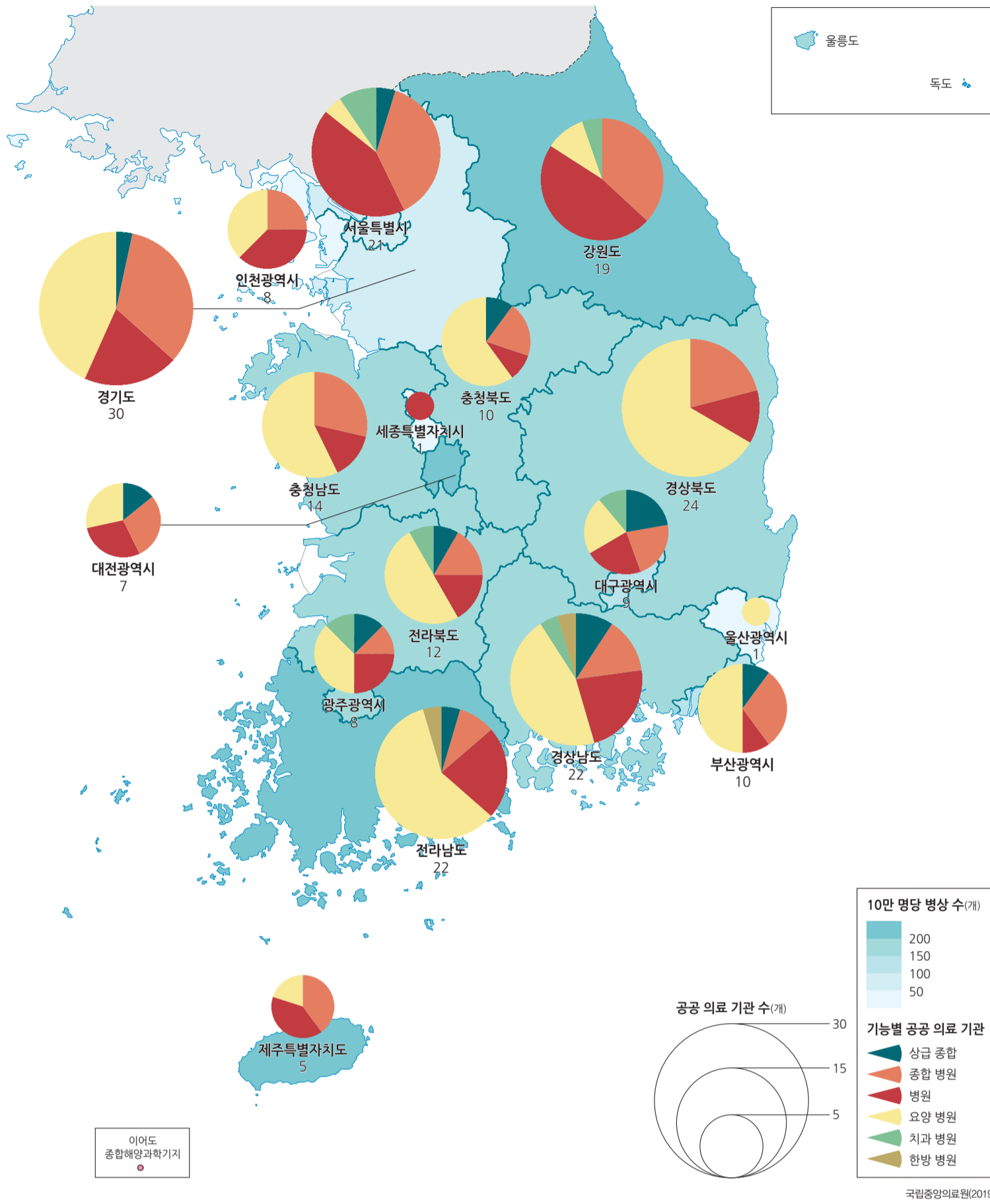


주요 국가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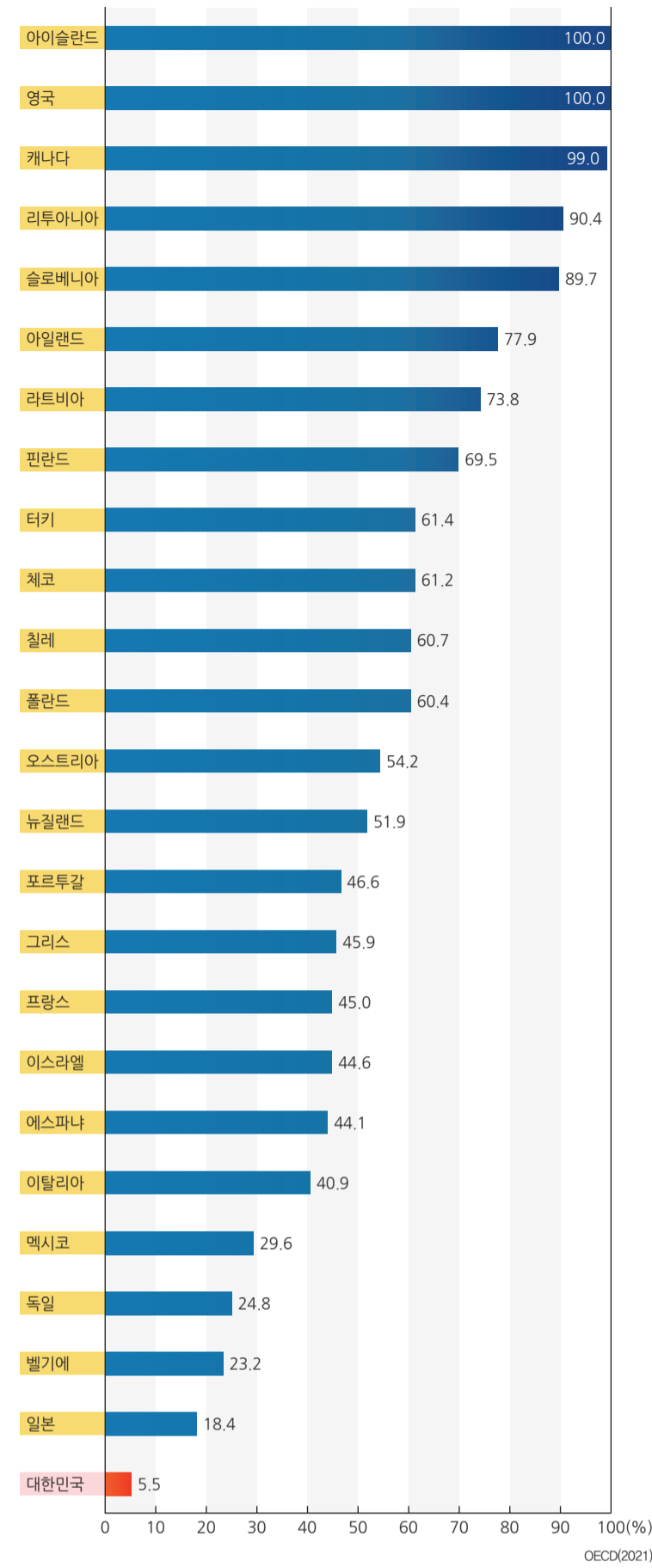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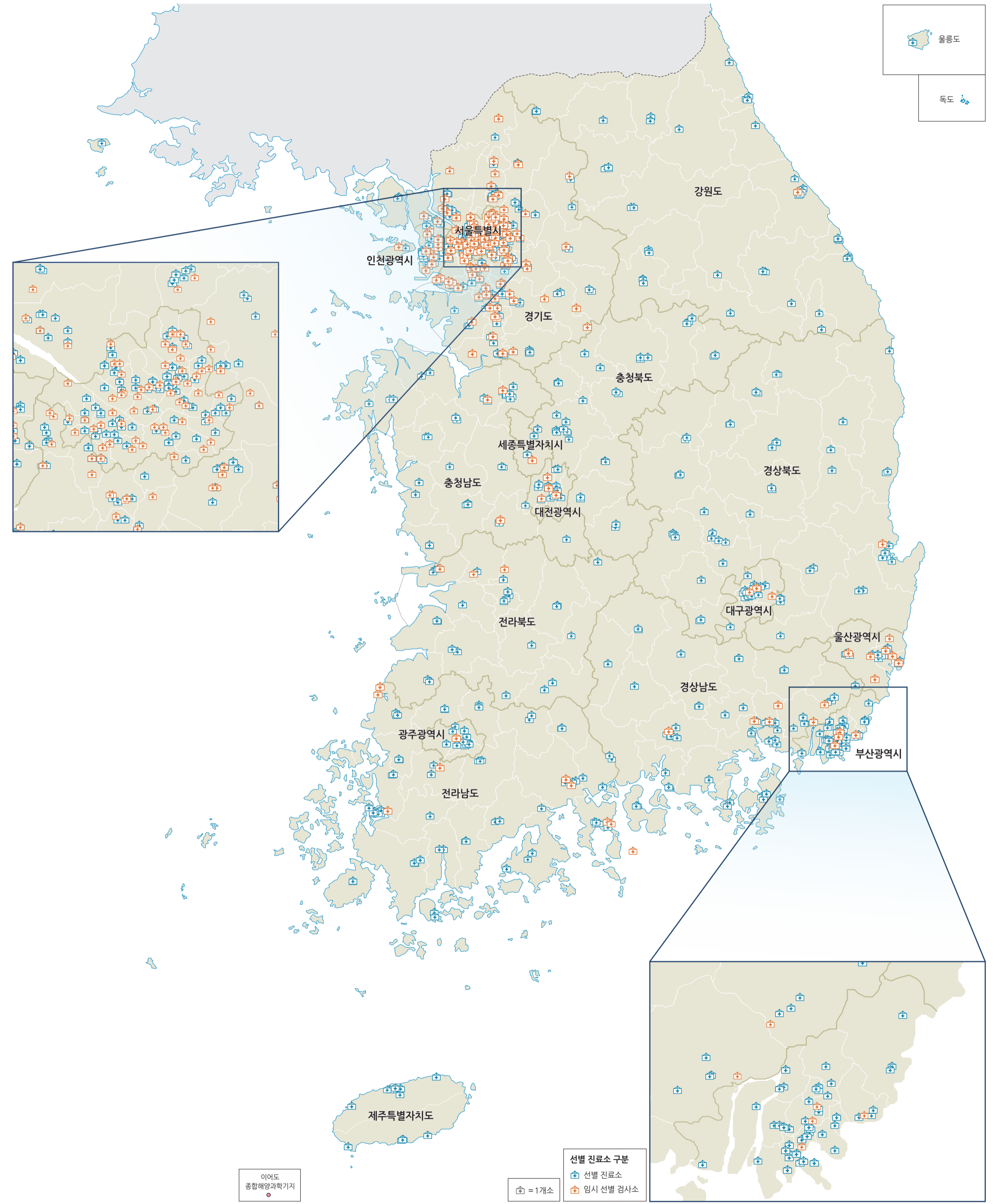
공공 의료 기관 분포(2019년)



OECD 주요국 의료 기관 중 공공 의료 기관 비중(2019년)



코로나 19 속 보건 의료 서비스: 선별 진료소 및 임시 선별 검사소 분포(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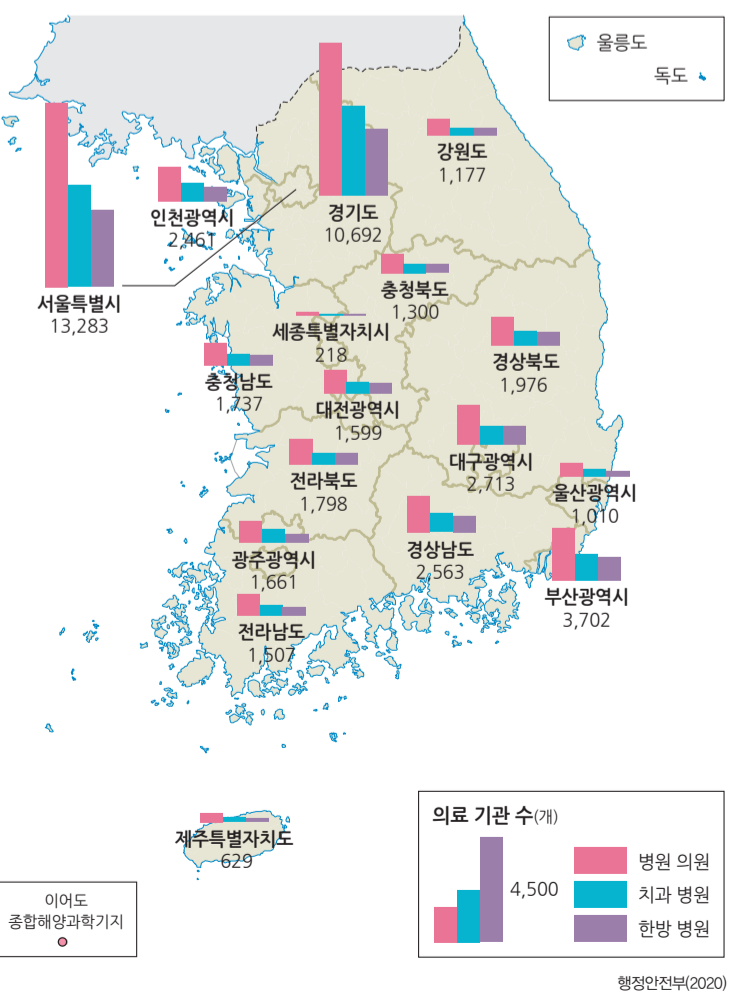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의료 기관은 그 규모에 따라 크게 의원, 병원, 종합 병원으로 구분된다. 가벼운 질병은 전국에 분포한 의원 및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의원 및 병원급 의료 기관에서도 전문의의 진료가 가능하다. 중대한 질병이나 질환의 경우 종합 병원과 같은 상급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많은 치과 병원이 분포하고 있어 치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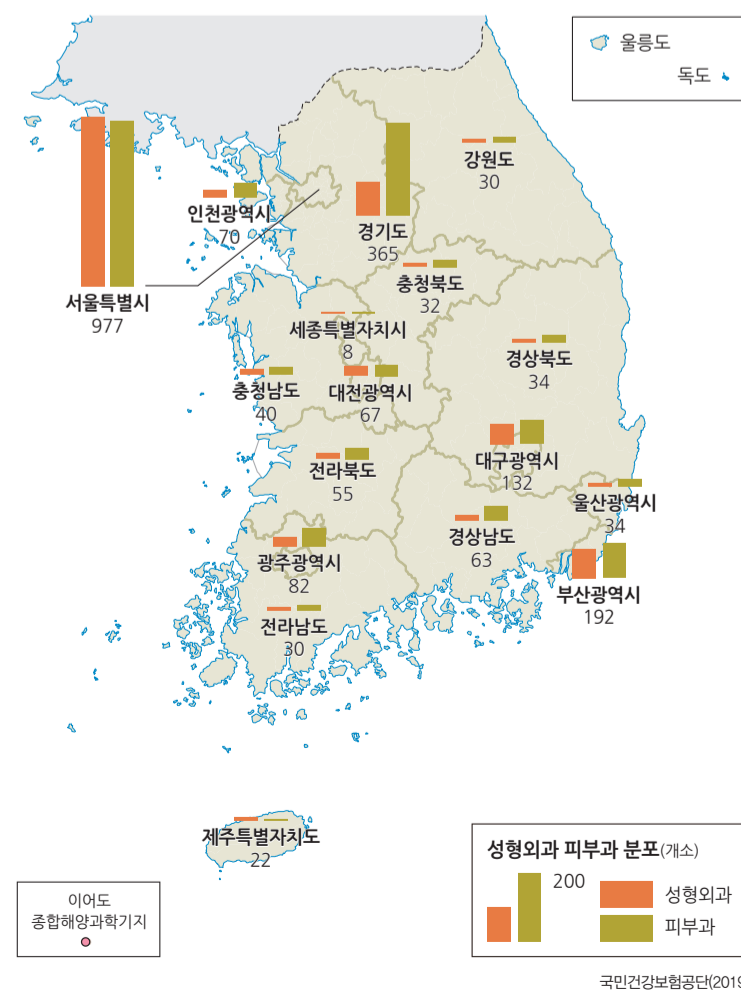
병원에 대한 접근성도 높은 편이다. 한방 병원과 의원의 경우 전통적 한의학을 기반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성형외과와 피부과처럼 일부 진료과는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일반 의원과 병원이 전국에 고루 분포하고 있어 의료 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종합 병원은 대도시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

다. 농어촌, 중소 도시에서 큰 수술이나 장기 이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도시의 종합 병원을 이용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의료 기관의 대부분은 민간 시설로, 공공 병원의 비중은 5.5%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공공 의료 기관 확충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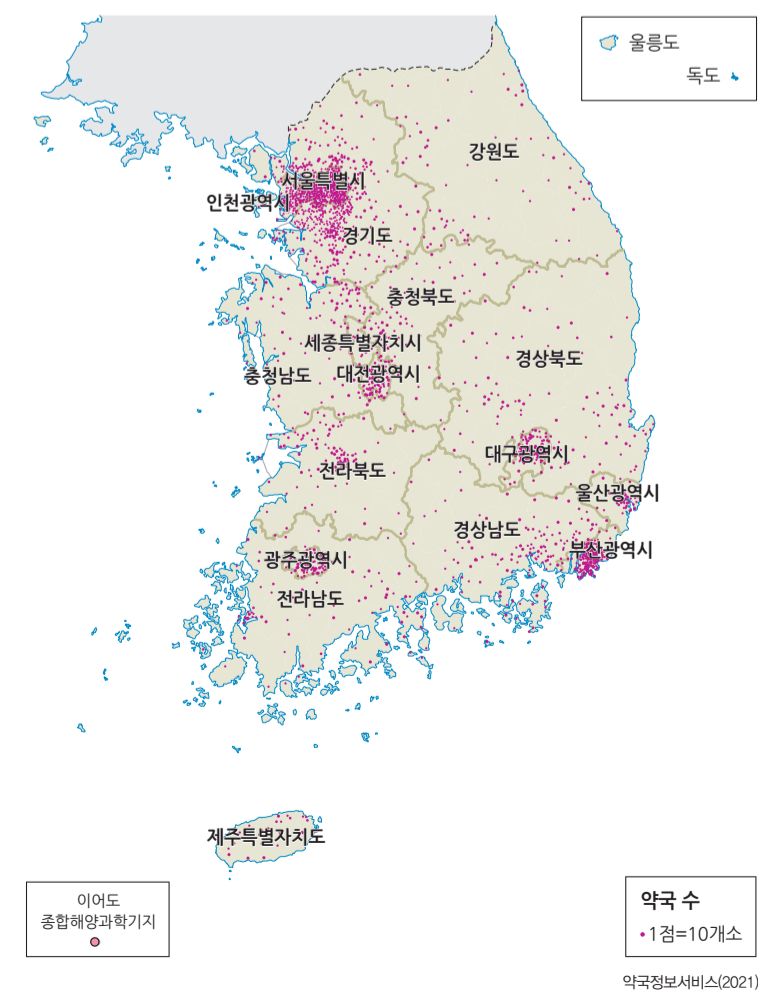
의료 기관의 분포와 종류(2020년)



성형외과와 피부과 분포(2018년)



약국 분포(2021년)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최초 보고된 후,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선언된 전염병 COVID-19는 전 세계에 큰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 주며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최초 확진자가 보고되었고, 2020년 2월 대구·경북 지역에서 종교 시설 집단 감염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 한때 누적 확진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되기도 했다. 이후 대량의 진단 검사와 추적을 통해 확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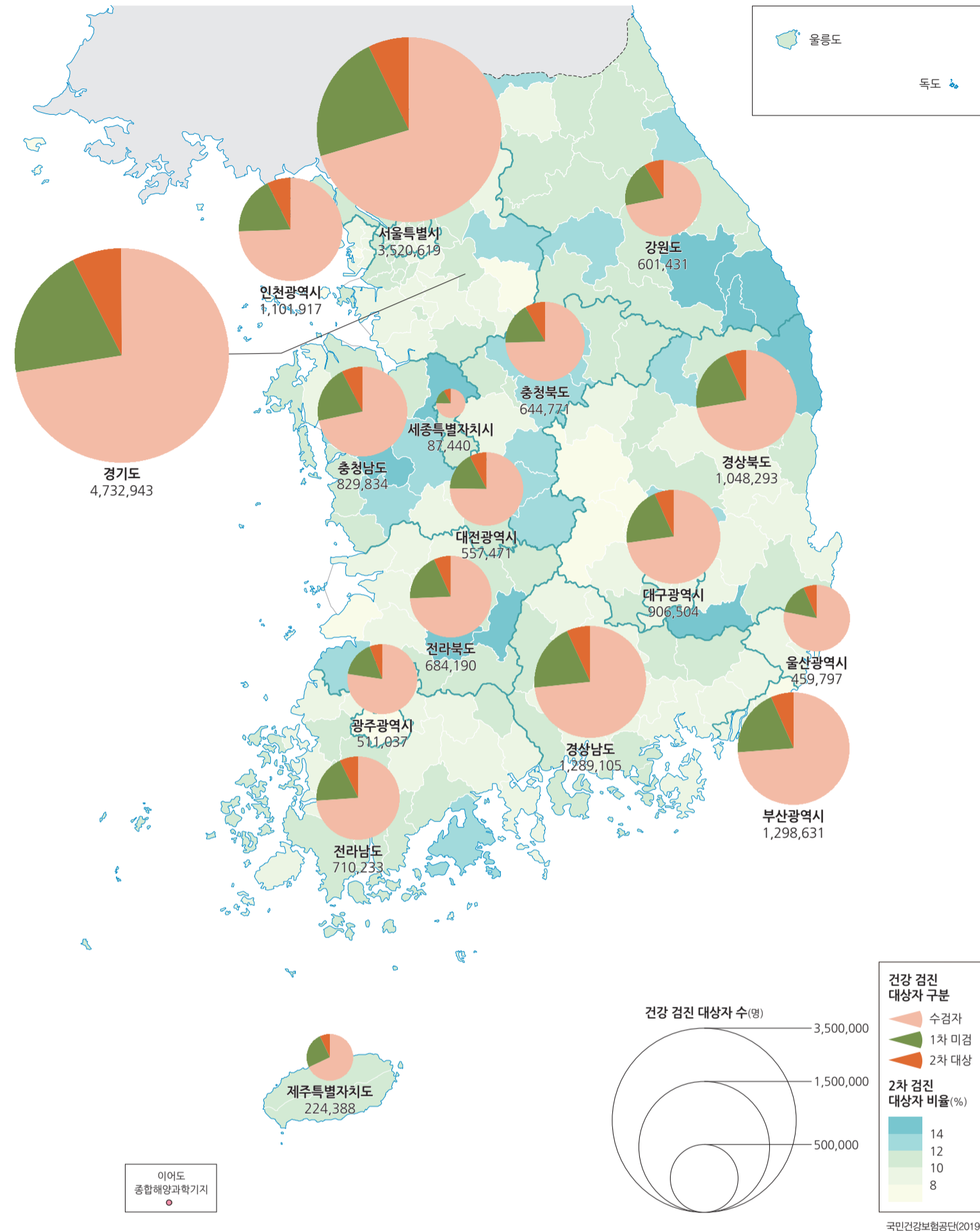
자를 조기에 찾아내 격리하고 치료하는 '3T', 즉 '진단(test), 역학 조사(trace), 환자 관리(treat)' 전략으로 확산을 통제하였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 확진자와 사망자의 규모를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관리해 왔다. 방역 당국은 일일 브리핑을 통해 매일 신규 확진자 수, 검사 건수, 지역별 분포, 사망자 수 등 역학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COVID-19의 주요 검사 장소는 선별 진료소와 임시 선별 검사소다. 선별 진료소는 보건소와 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지정돼 있으며,

임시 선별 검사소는 COVID-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검사 인원 증대를 위해 필요한 곳에 임시로 설치한 선별 진료소를 의미한다. 선별 진료소에서는 COVID-19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검사하고, 임시 선별 검사소는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하다. 이후 선별 진료소에서도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지침이 바뀌면서 선별 진료소와 임시 선별 검사소의 기능적 차이는 거의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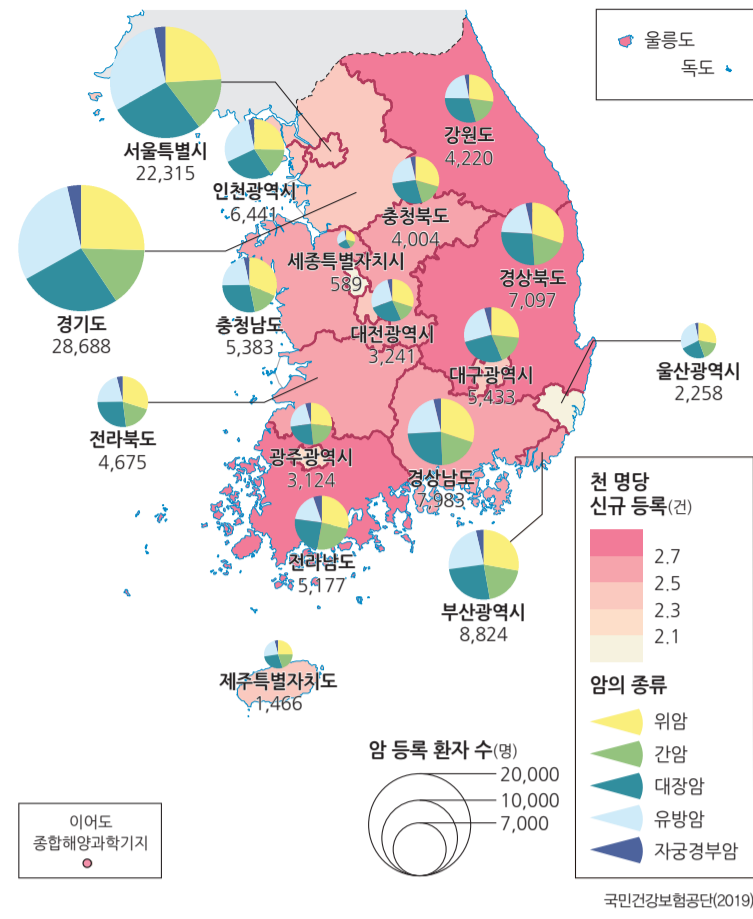


국민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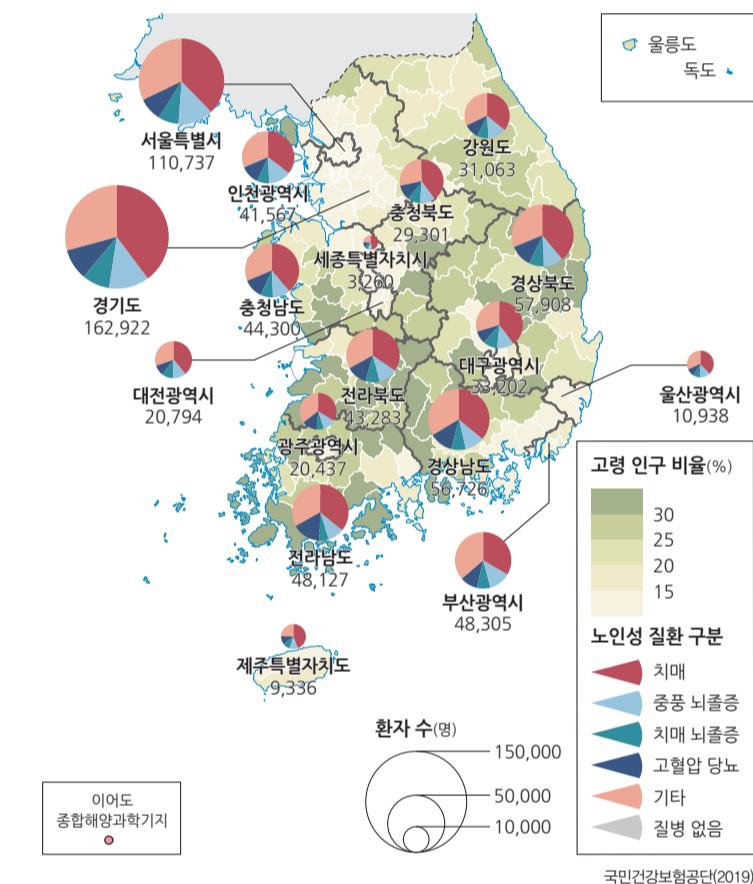
건강 검진 및 2차 검진 대상자 비율(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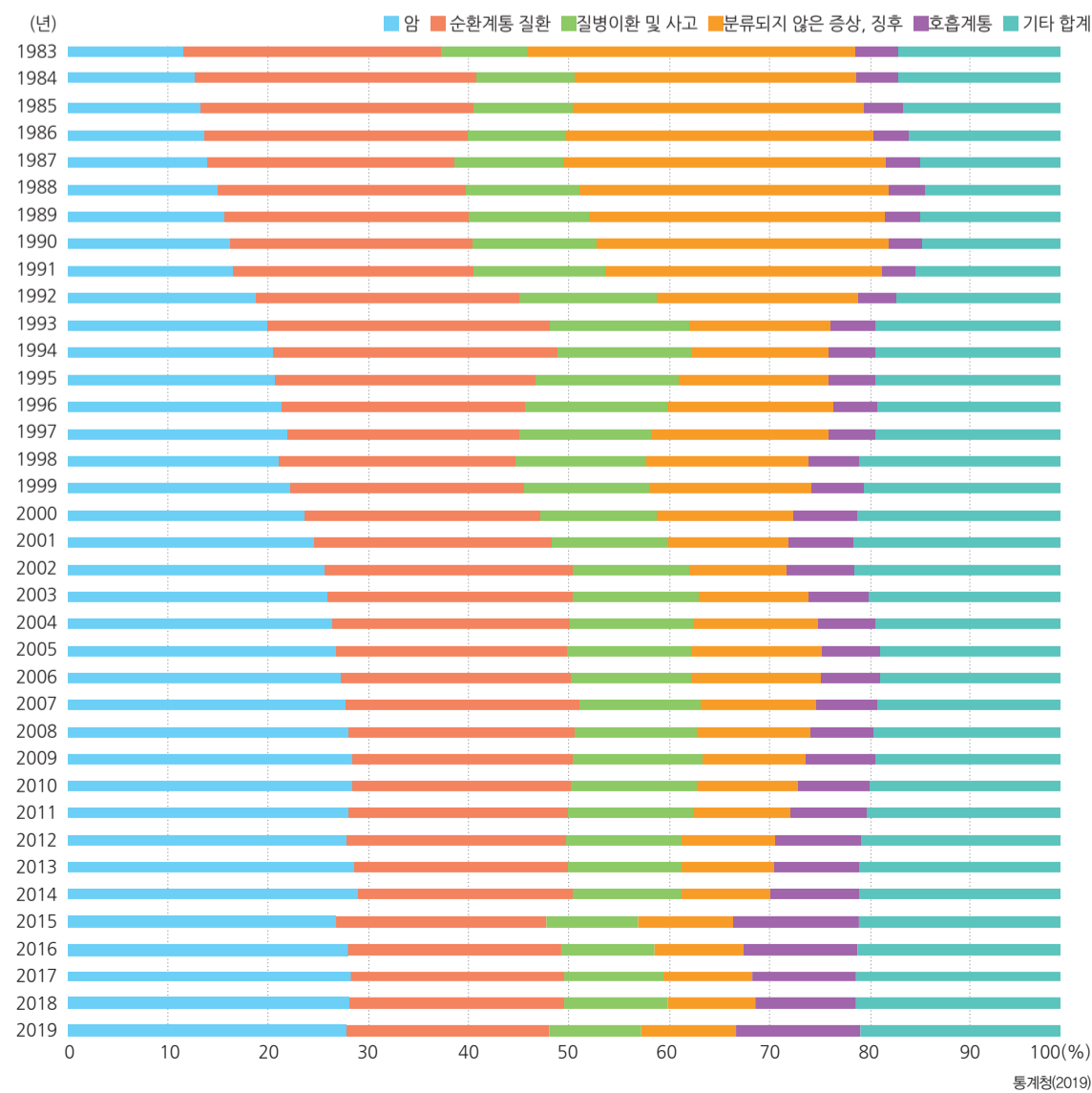
암환자 발생과 암의 종류(2019년)



노인성 질환(2019년)



사망 원인의 변화



생활 습관과 식습관의 변화, 조기 진단 및 의료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망 통계에 반영된 사망 원인이 지속적으로 변해 왔다. 암은 한국인의 가장 큰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다. 암 환자 증가는 생활 습관의 변화, 건강 검진으로 인한 조기 진단과 암 진단 의료 기술의 발달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심혈관 질환 역시 주요 사망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등에 대한 관심이 중장년층 사이에서 매우 높다. 사망 원인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한국인이 비교적 비슷한 환경과 유사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체계적인 건강 관리와 질병의 조기 발견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령별, 성별로 특화된 건강 검진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건강 검진 장려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건강 검진 수검률은 70%를 상회하며, 1차 건강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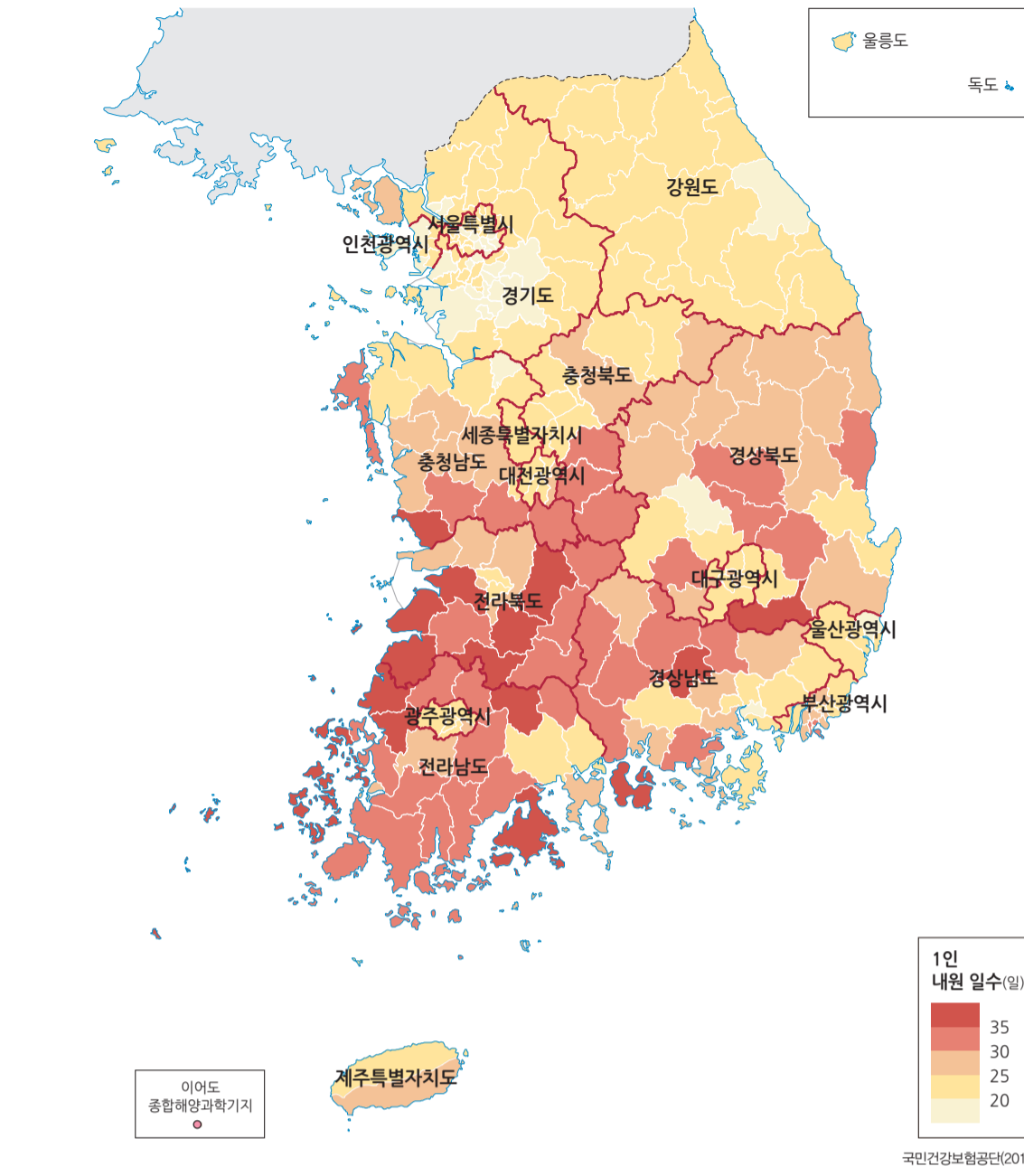
특히 최근에는 증가하는 암에 대처하기 위해 암 검진이 늘어나고 있는데, 암 검진은 생애 주기별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에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 비용으로 추가적인 암 검진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5대 암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생활 습관과 식습관의 변화 등으로 여성의 경우 갑상선암,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의 발병이 많아지고 있으며, 폐암의 발병 비율도 높아 급연 캠페인, 공공 건물 및 다중 이용 시설에서의 금연 등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암과 함께 주요 사망 원인인 심혈관계 질환 중 급성 심정지의 경우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급성 심정지 관련 응급 의료 통계를 살펴보면, 지역 간 접근성의 격차가 매우 크다. 도시 지역의 경우 심폐 소생술 등을 통해 사망률을 낮추고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지역의 경우 급성 심정지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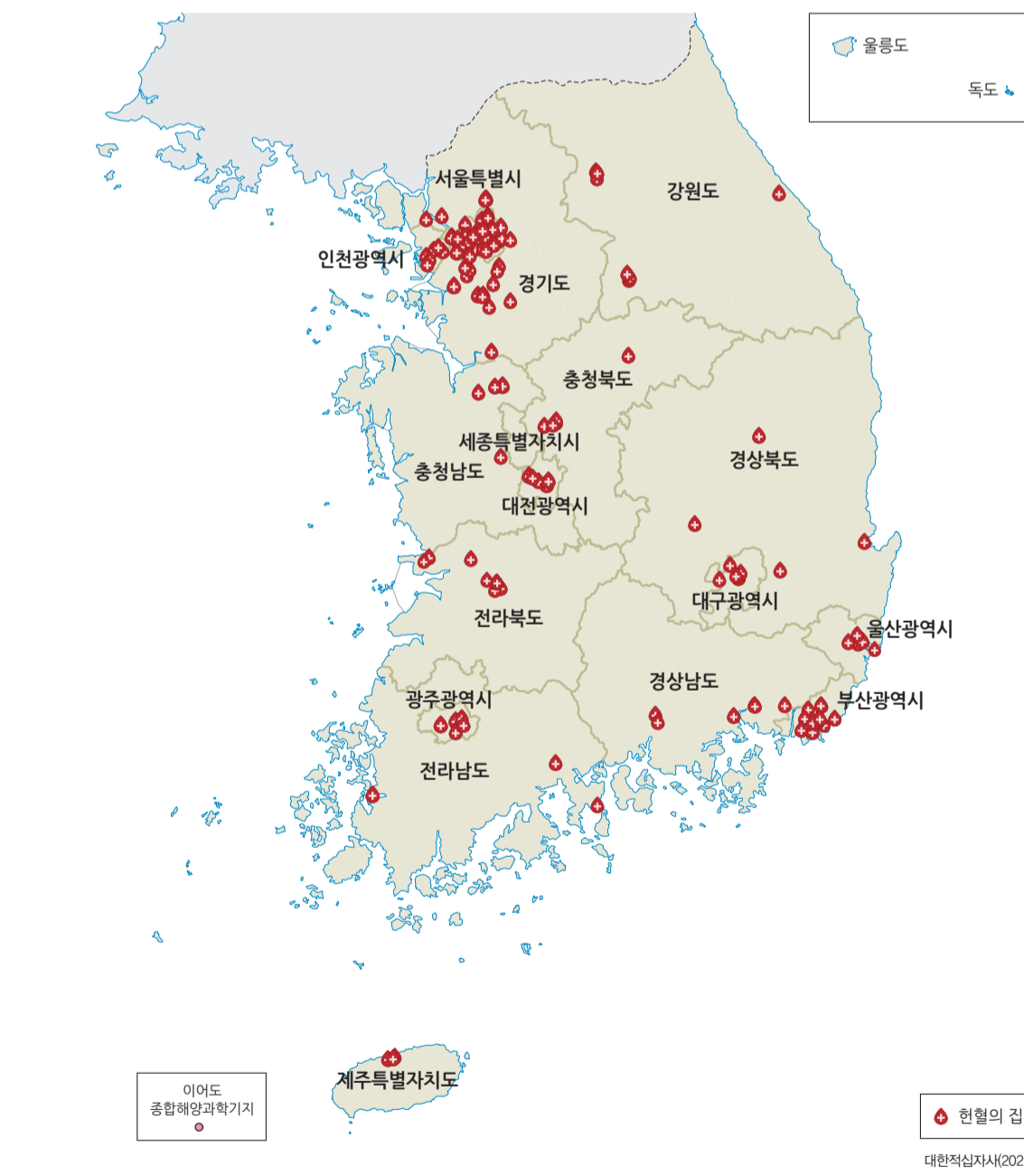
의료 기관의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에서 병원 이용 일수와 평균 내원일이 모두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인구의 노령화 현상에 따라 고령 인구에 대한 의료 서비스와 노인성 질환의 예방, 파악 및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2019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6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현월 실적은 2015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줄어든 추세에 있으며, 특히 2020년에는 COVID-19의 영향으로 총 현월 실적과 현월 가능 인구 대비 현월율이 모두 크게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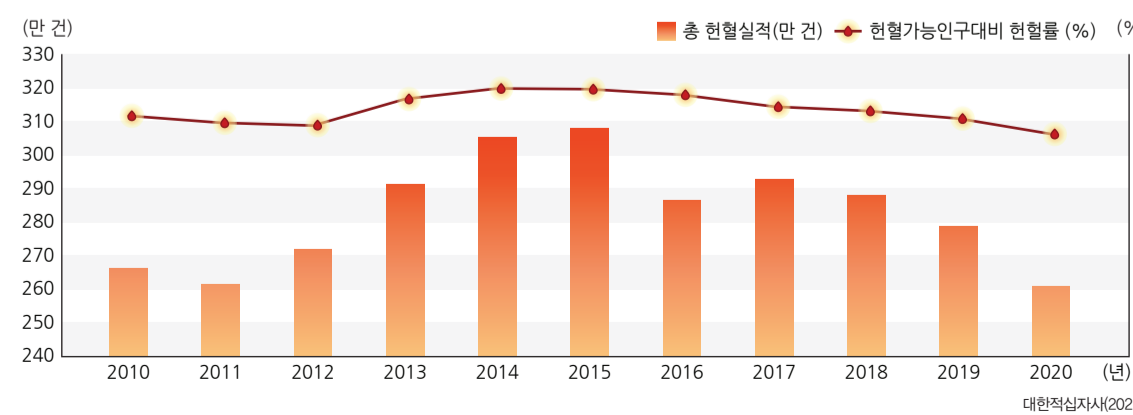
1인당 병원 이용 일수(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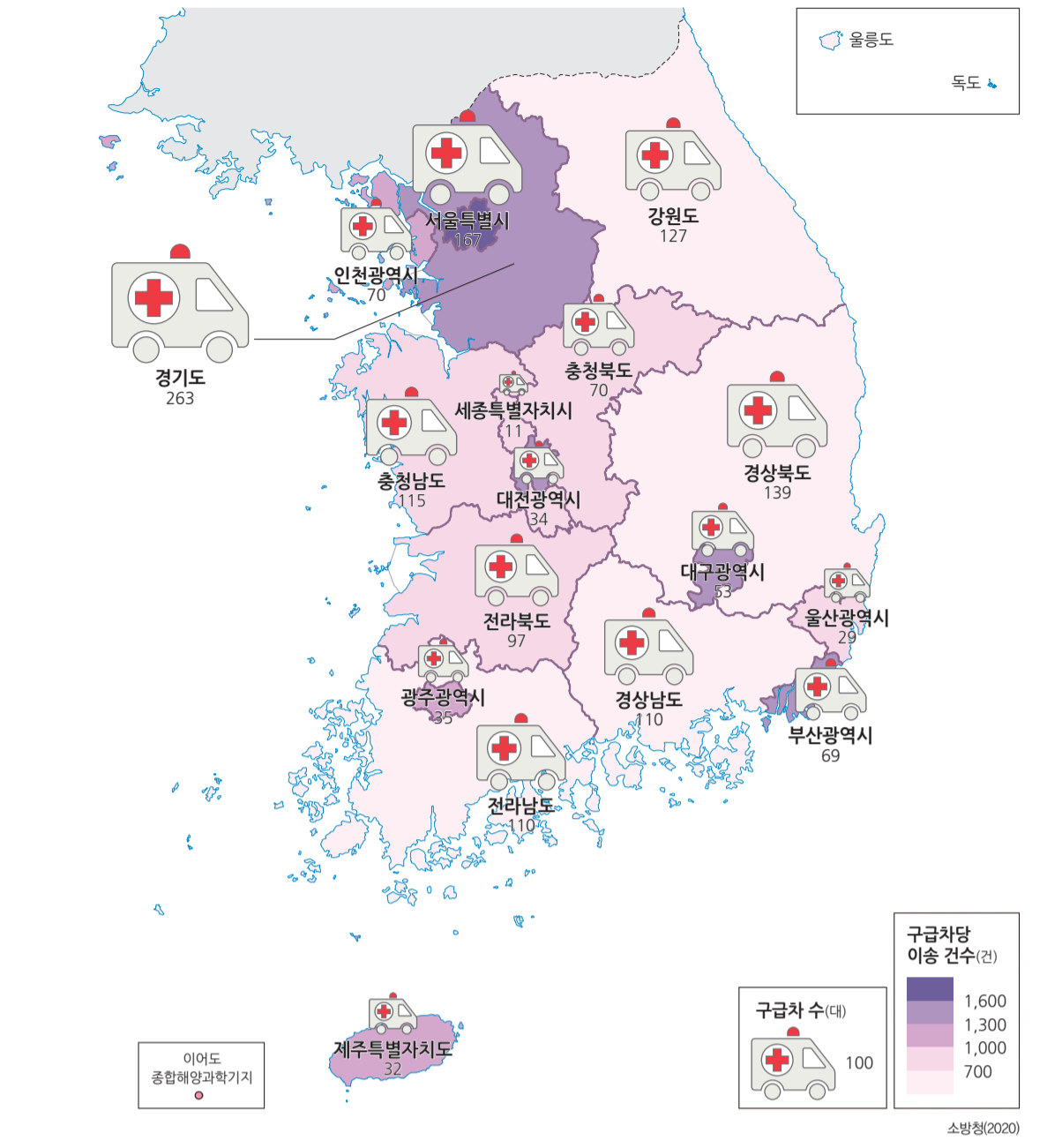
현월의집 분포(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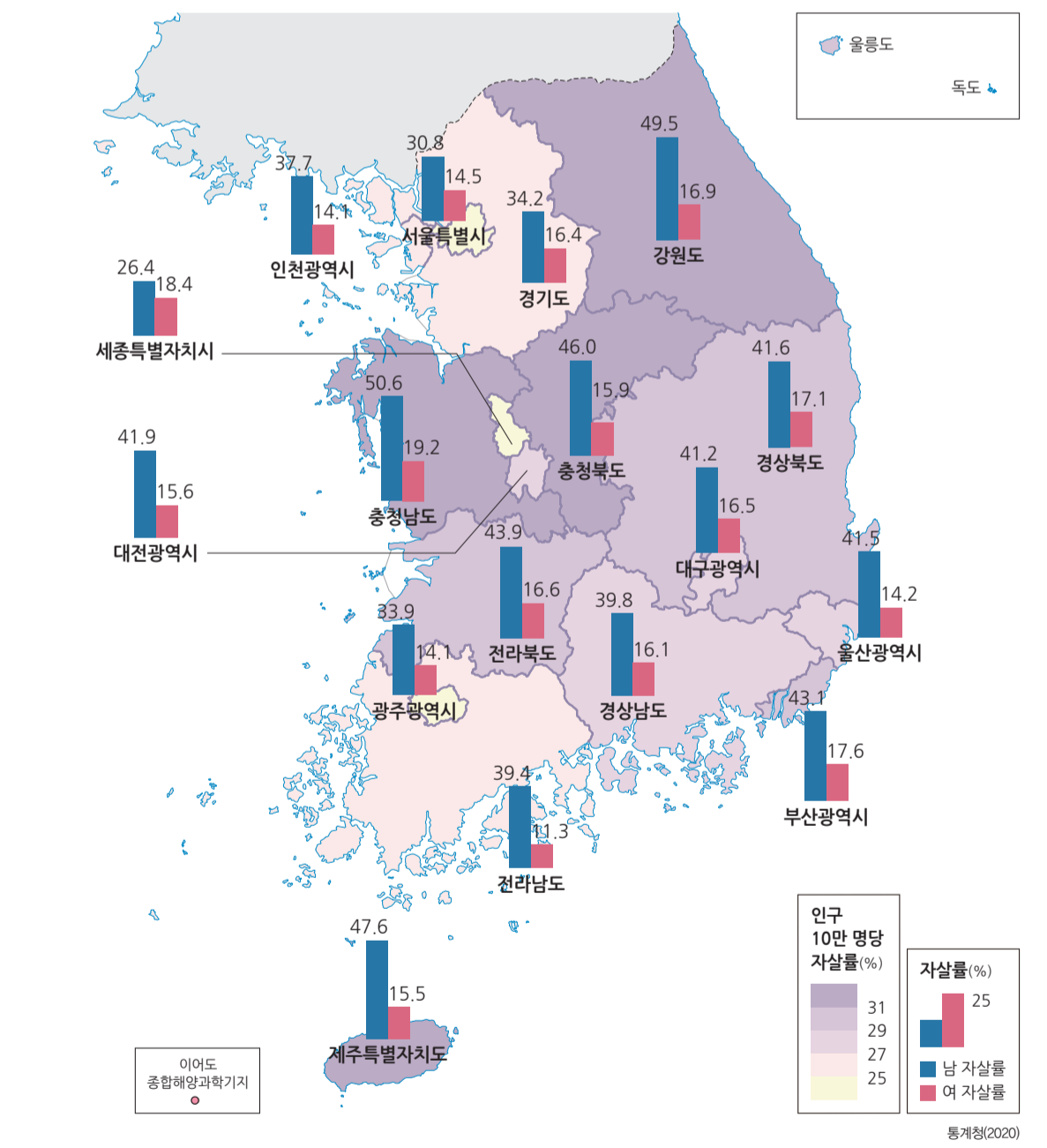
현월실적 및 현월률(2010-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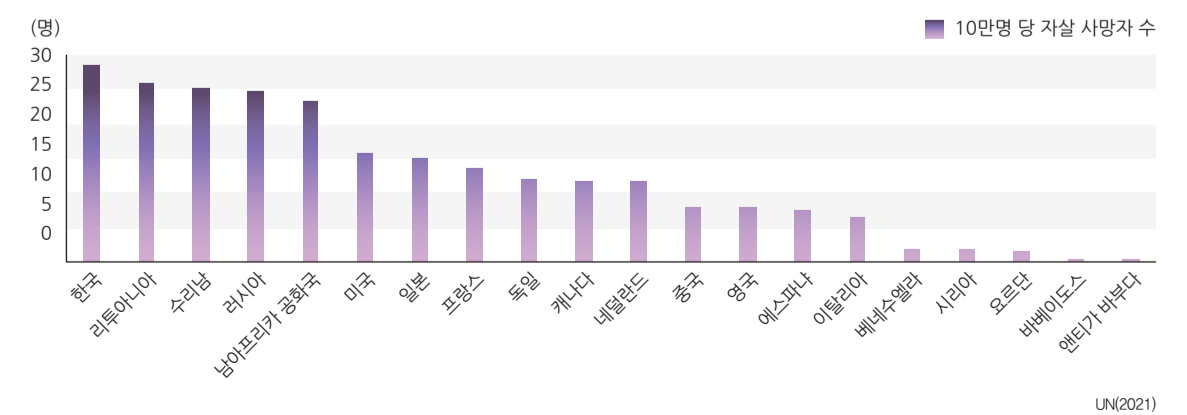
응급 의료(2020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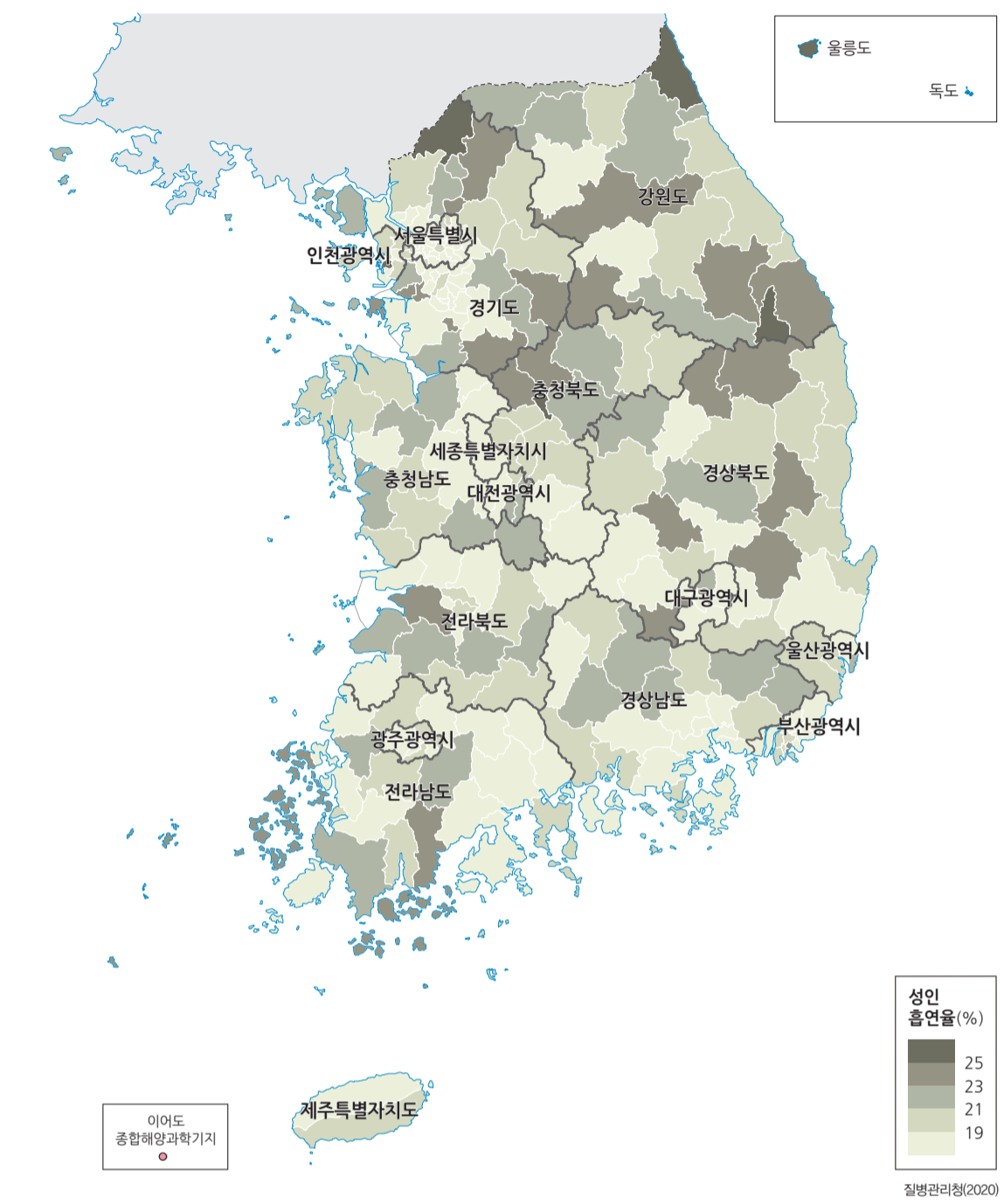
주요 국가 자살률(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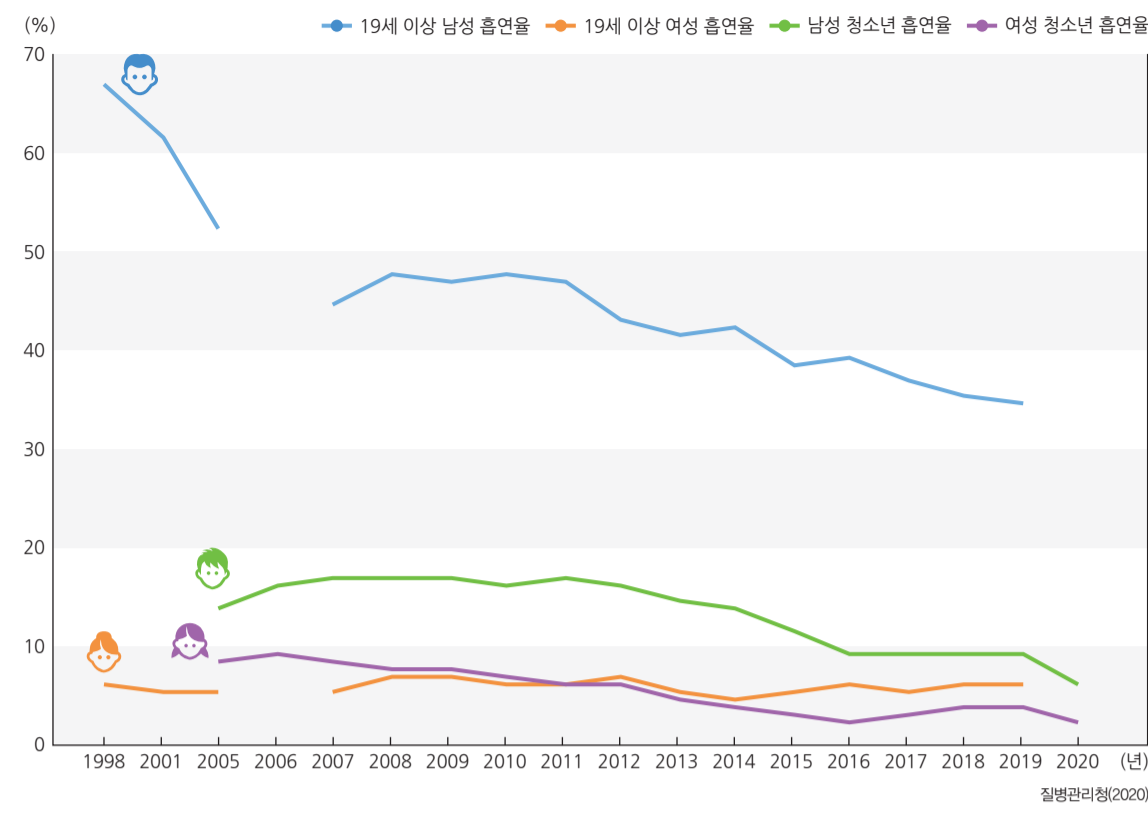


흡연과 음주는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습관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다수의 나라가 흡연율과 음주율을 조사하고, 이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인 흡연율은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금연 캠페인 등으로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반면 청소년 흡연율이 줄어들지 않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음주의 경우 연간 알코올 소비량 기준으로 한국은 OECD 평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알코올 소비량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인구 집단의 알코올 소비와 음주 습관은 흡연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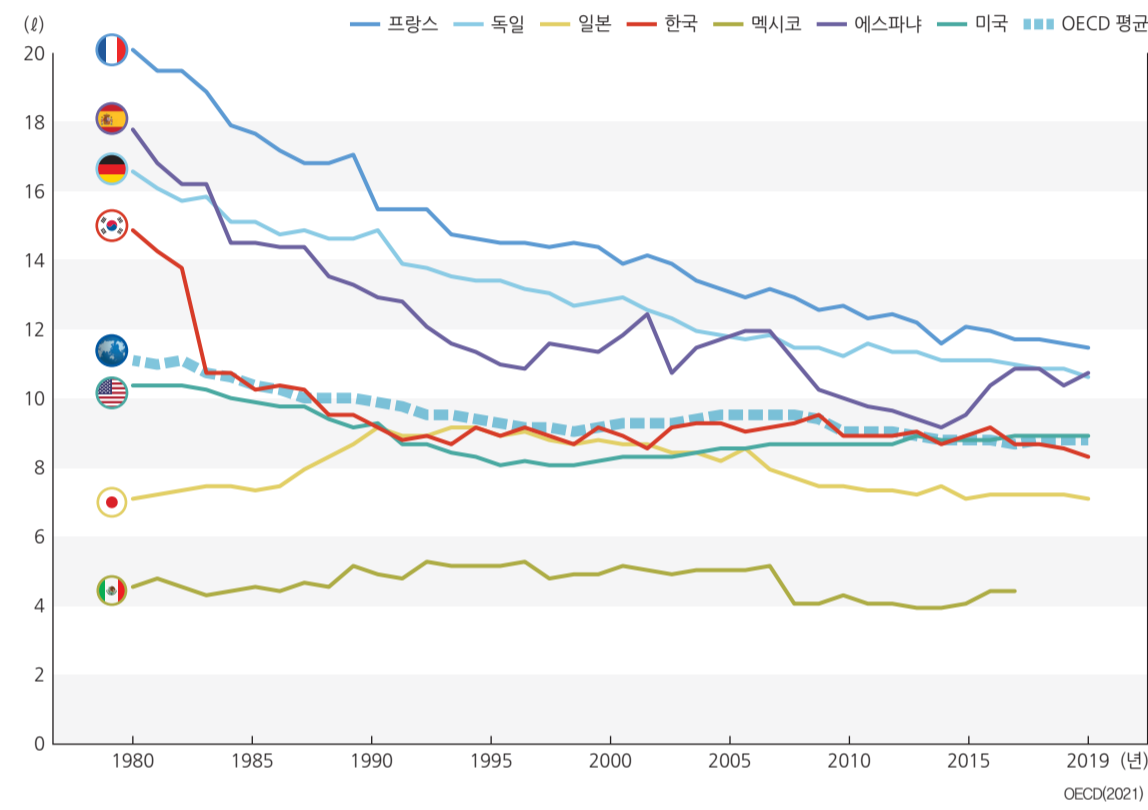
흡연율(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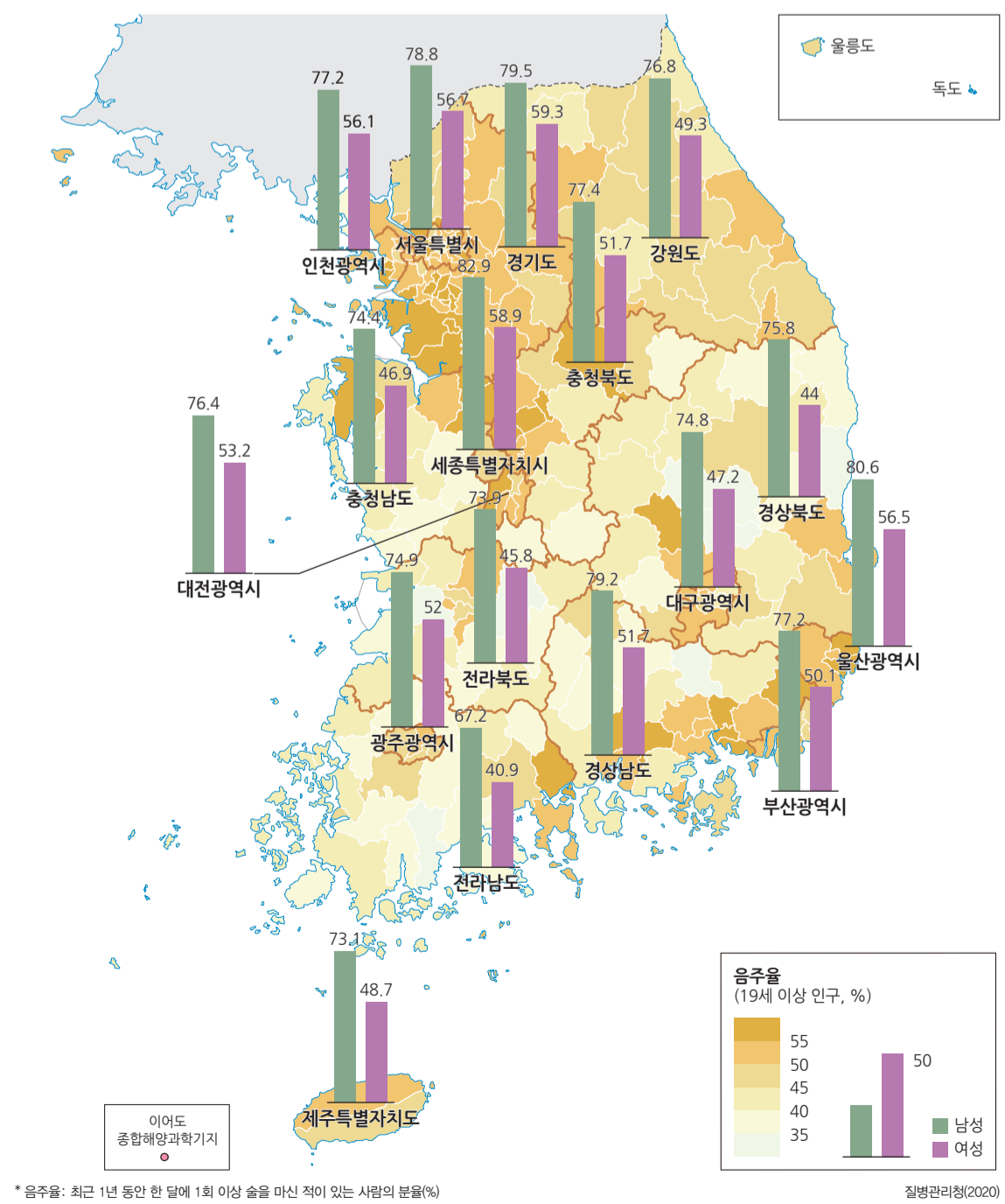
성인과 청소년 흡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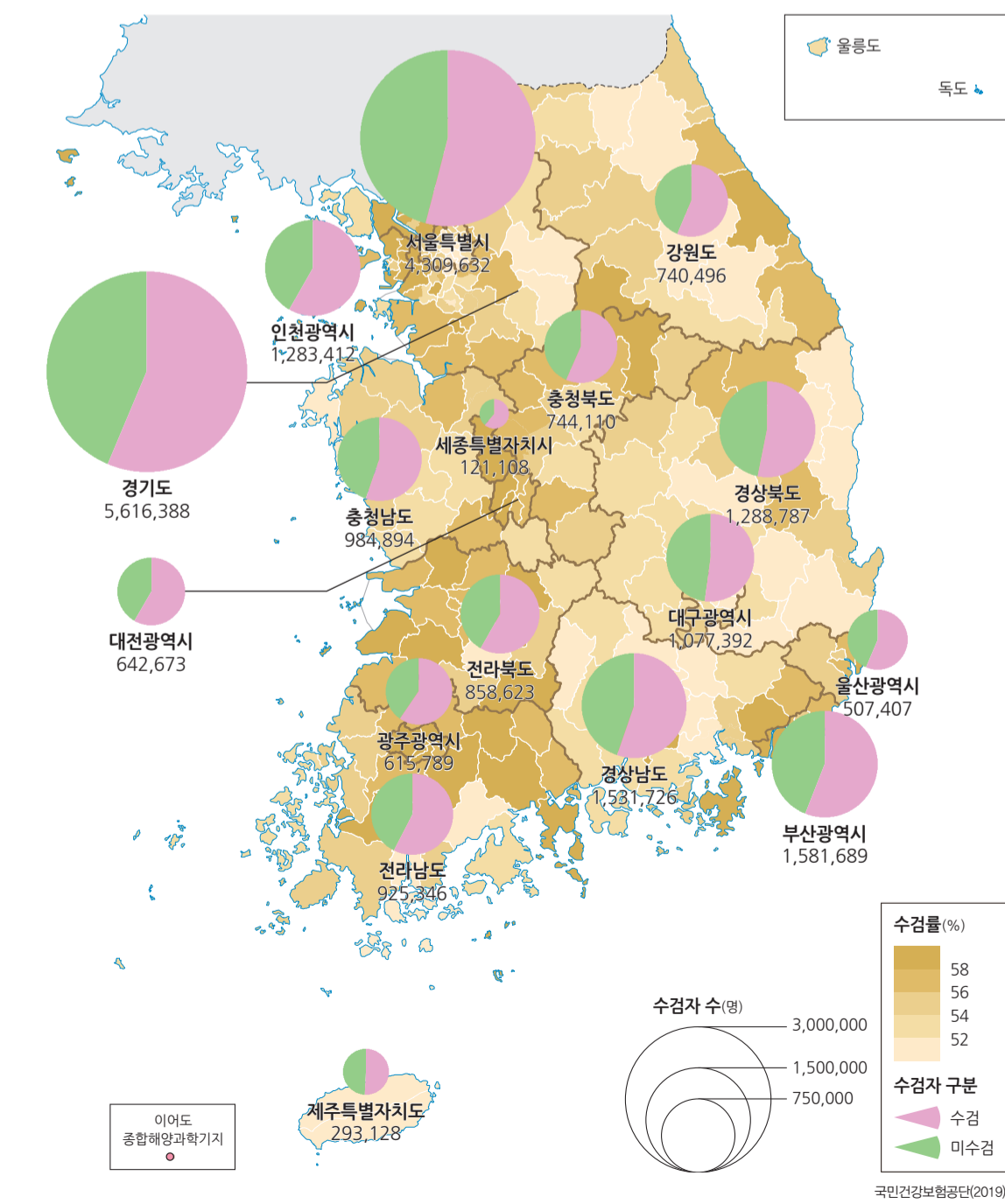
주요 국가의 알코올 소비량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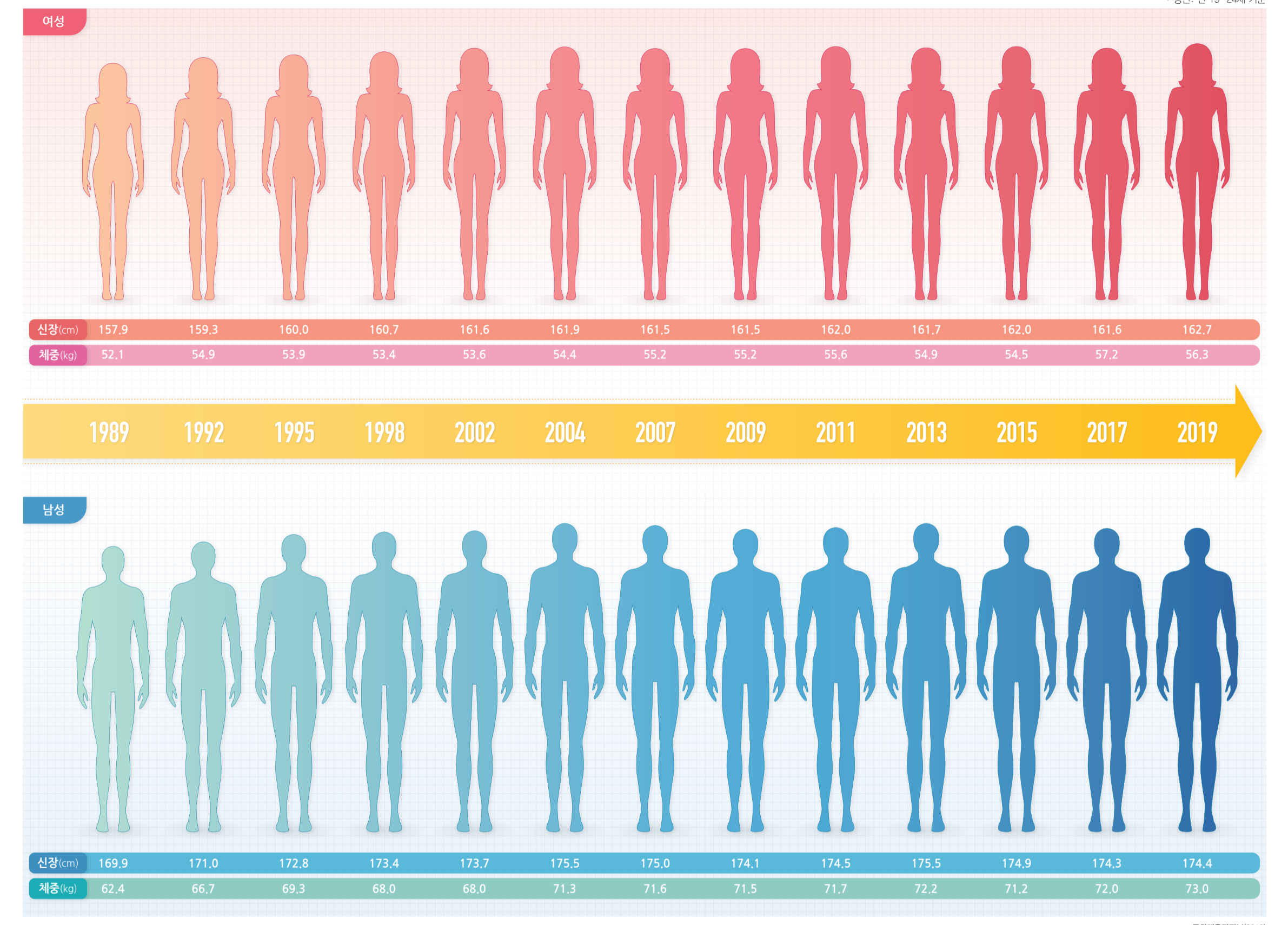
음주율(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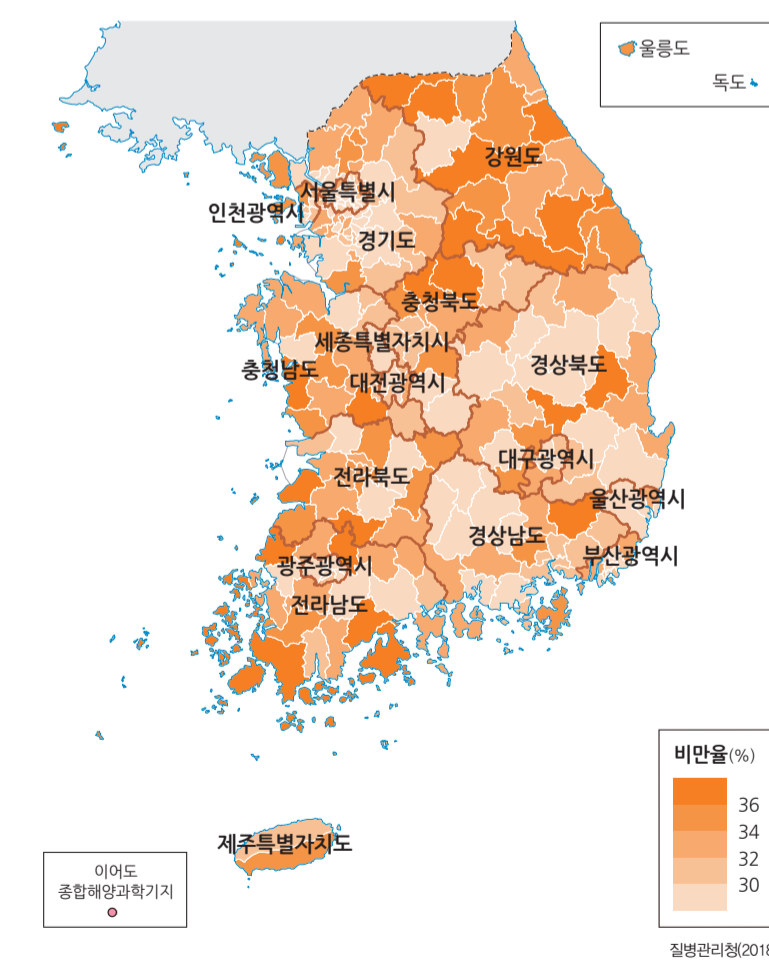
암 검진 수검률(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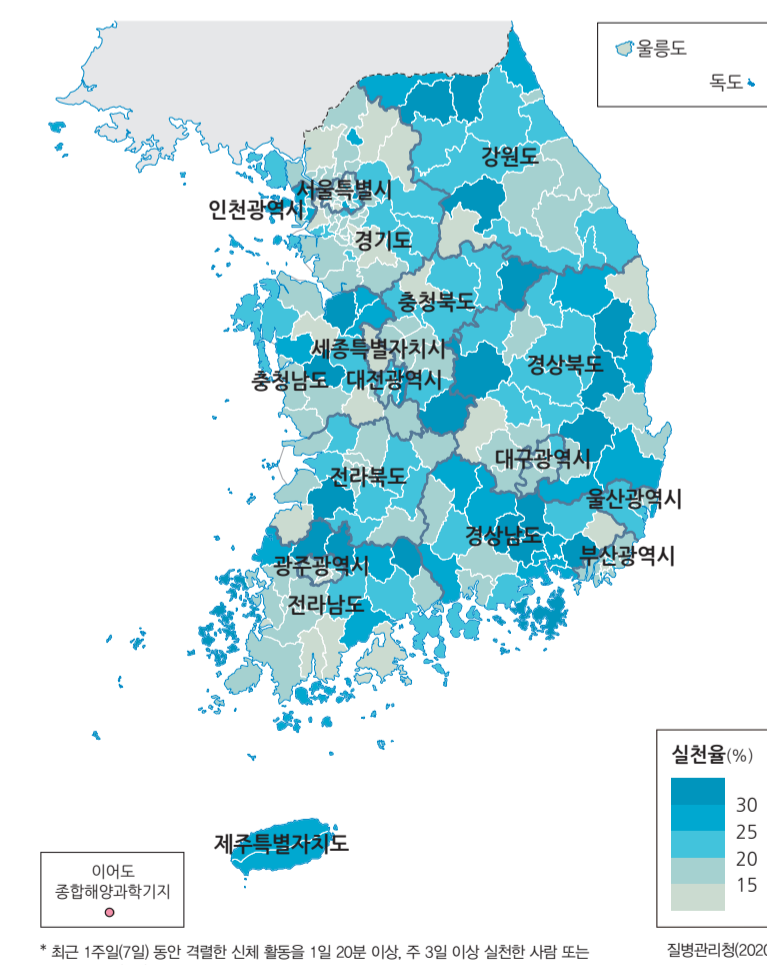
성인 체격 변화(1989-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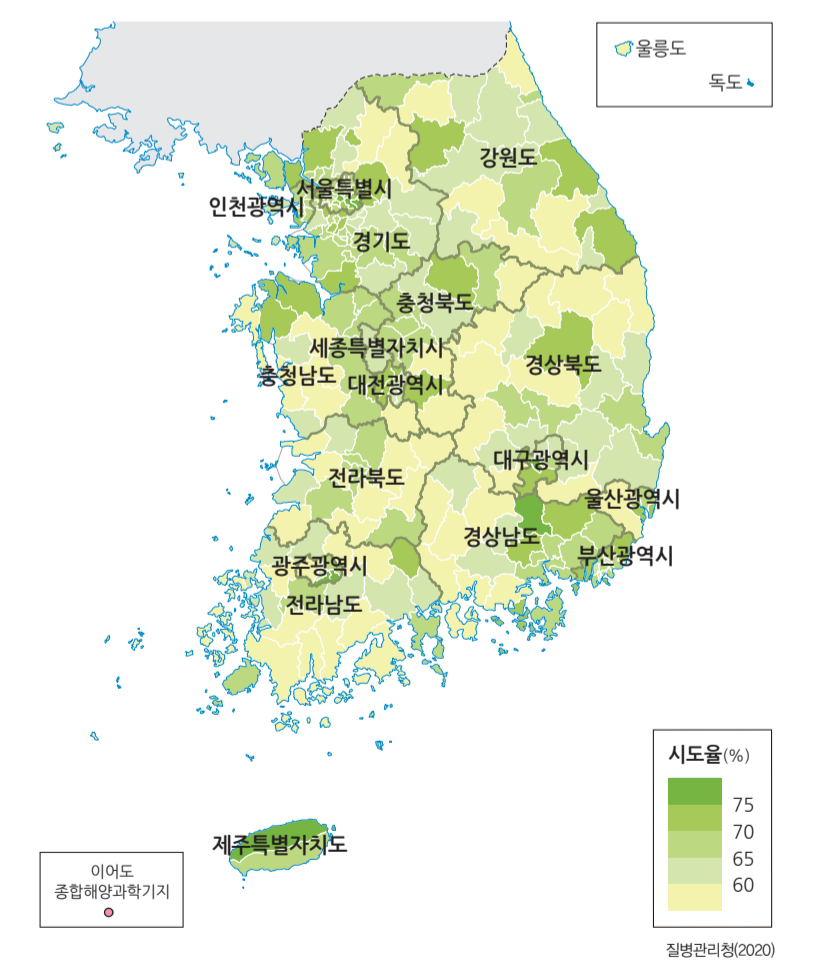
비만율(2018년)



중등 이상 신체 활동 실천율(2020년)



체중 조절 시도율(2020년)



영양 상태 및 삶의 질 개선으로 대한민국 성인의 체격은 꾸준히 성장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남녀 신장은 정체 상태에 접어들었다. 체중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비만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일종의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고, 각국은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 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식습관의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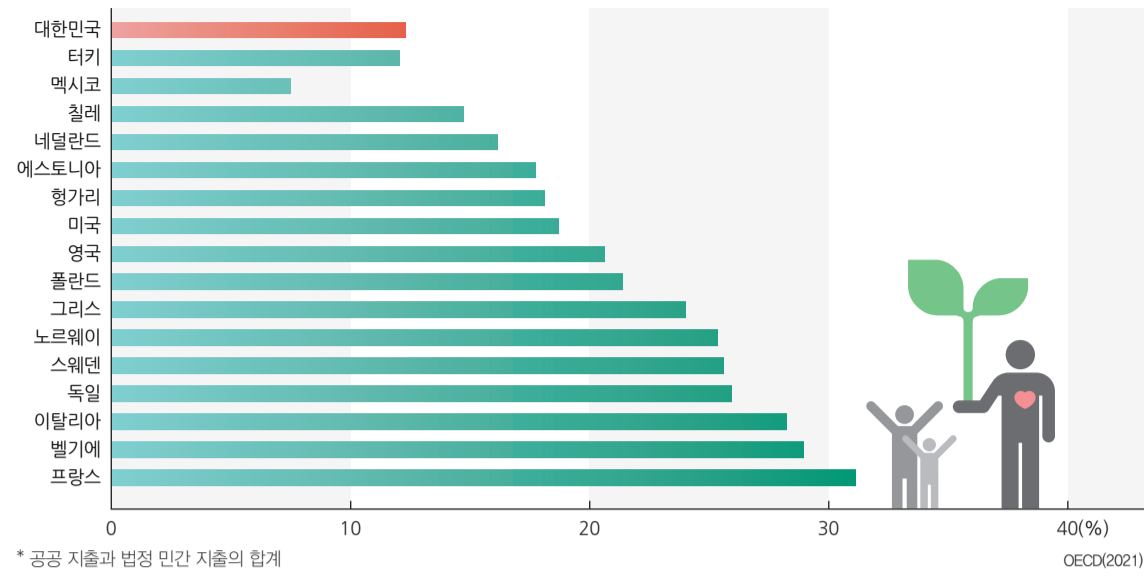
화와 운동량의 부족은 현대 한국인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비만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식습관의 개선과 운동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함께 미디어의 영향으로 날씬하고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운동, 식단 조절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체중 조절 관련 산업도 지속적

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서구식 식습관에 익숙해진 청소년의 비만과 관련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아동기에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보건 정책의 차원에서 식품에 열량 및 성분 표기 등이 강화되는 등 비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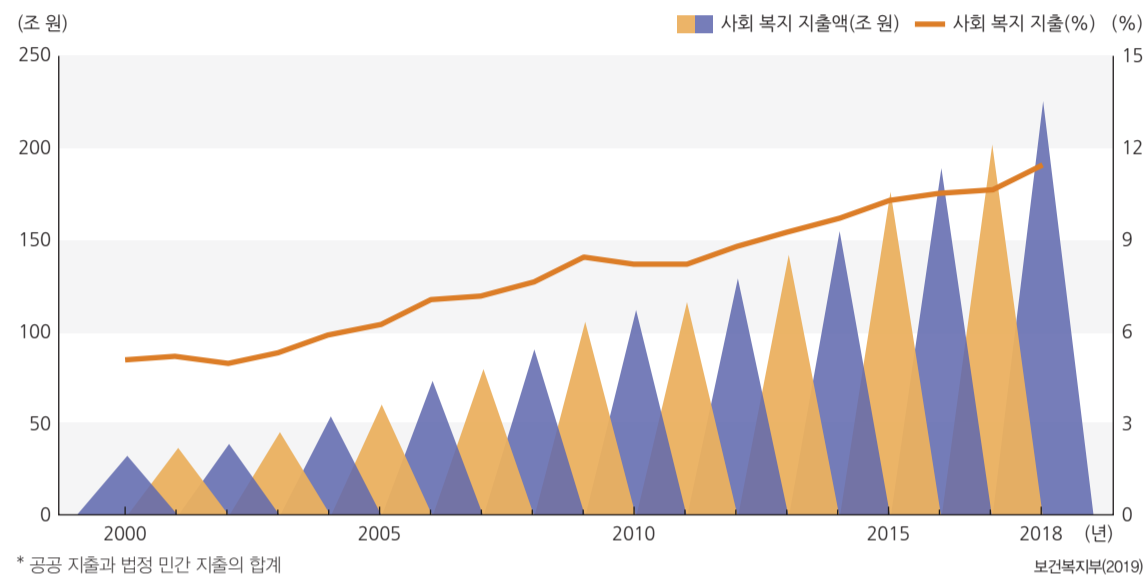


### 사회 복지

주요 국가의 GDP 대비 공공 사회 복지 지출(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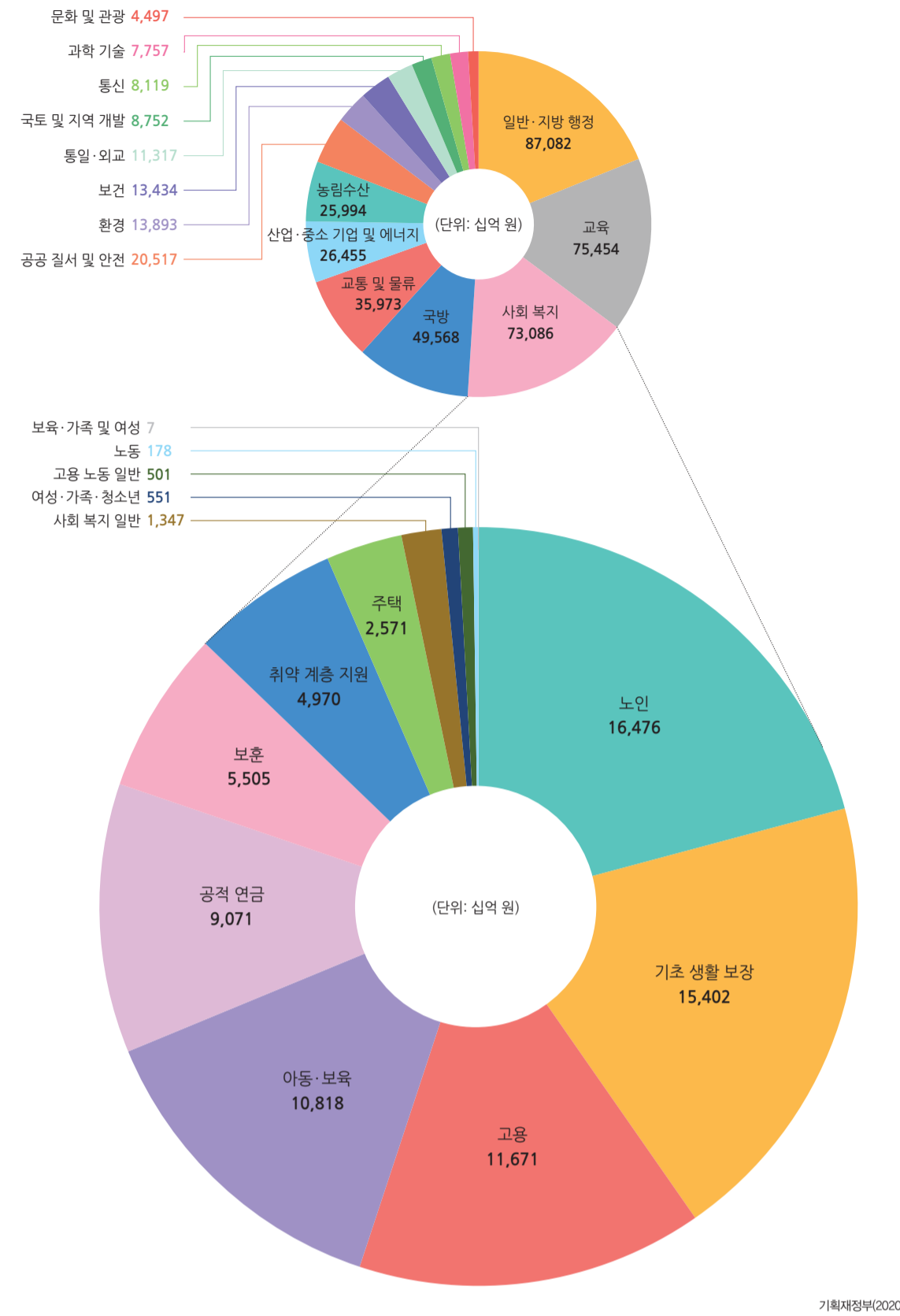


사회 복지 지출과 GDP 대비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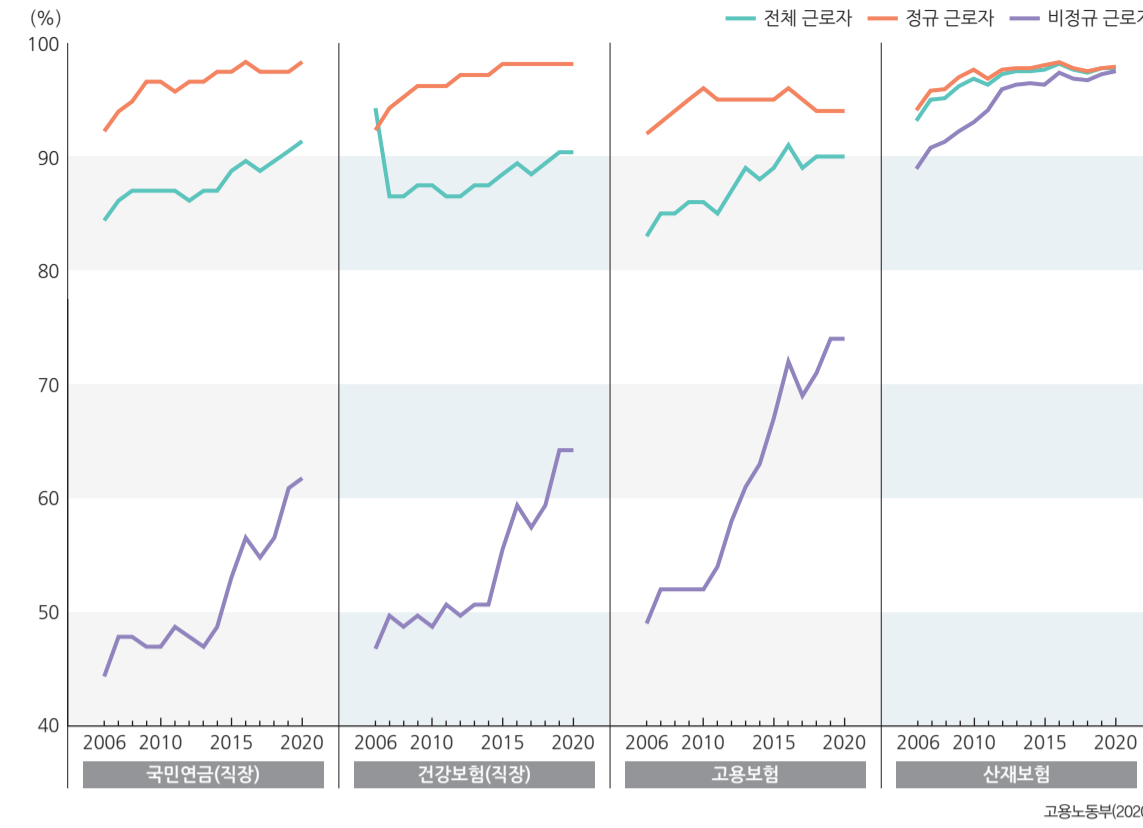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복지는 정치적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 복지의 범위와 적절한 복지 수준, 복지 관련 재정 지출과 재정 건전성, 복지 지출의 우선 순위 등 다양한 복지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국가 경제의 성장에 국가적 자원이 집중되었던 것에 비해 최근의 정치적 이슈는 사회 복지의 확대와 이에 따른 국가 재정의 건전성 유지가 핵심이 되고 있다. 최근 복지 관련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공공 부분의 지출과 함께 민간 부문에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 민간 부분의 사회 복지 지출의 합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 복지 예산 비중 및 구성(2020년)



사회 보험 가입률(2006-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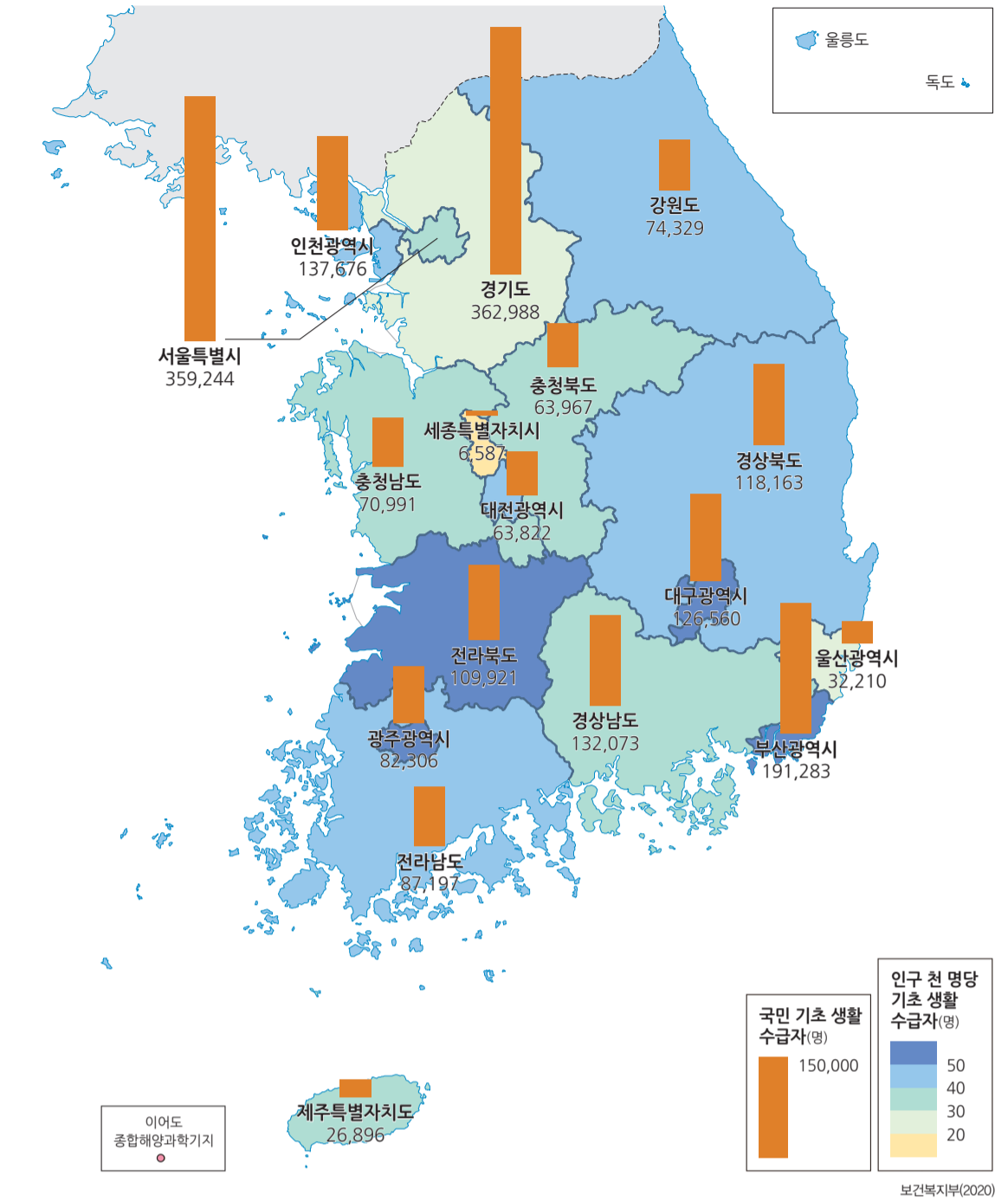
그러나 10% 초반에 그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GDP 대비 사회 복지 지출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GDP 대비 20-30% 수준의 사회 복지 지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 복지에 대한 정책의 차이와 함께 노령 인구 비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향후 사회 복지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으로 우세하다.

사회 복지 지출의 증가와 함께 관련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사회 복지 관련 정부 지출은 빈곤, 장애, 여성, 아동, 노인 등 복지 대상으로, 혹은 주거, 노동 등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사회 안전망이 존재하며, 이중 4대 보험으로 대표되는 사회 보험은 사회 복지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노후 생활 안정, 의료비 지원, 실업과 재취업 지원,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대비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직장을 통한 4대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당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비정규직의 증가에 따라 사회 보험 가입률 향상이 사회 복지 분야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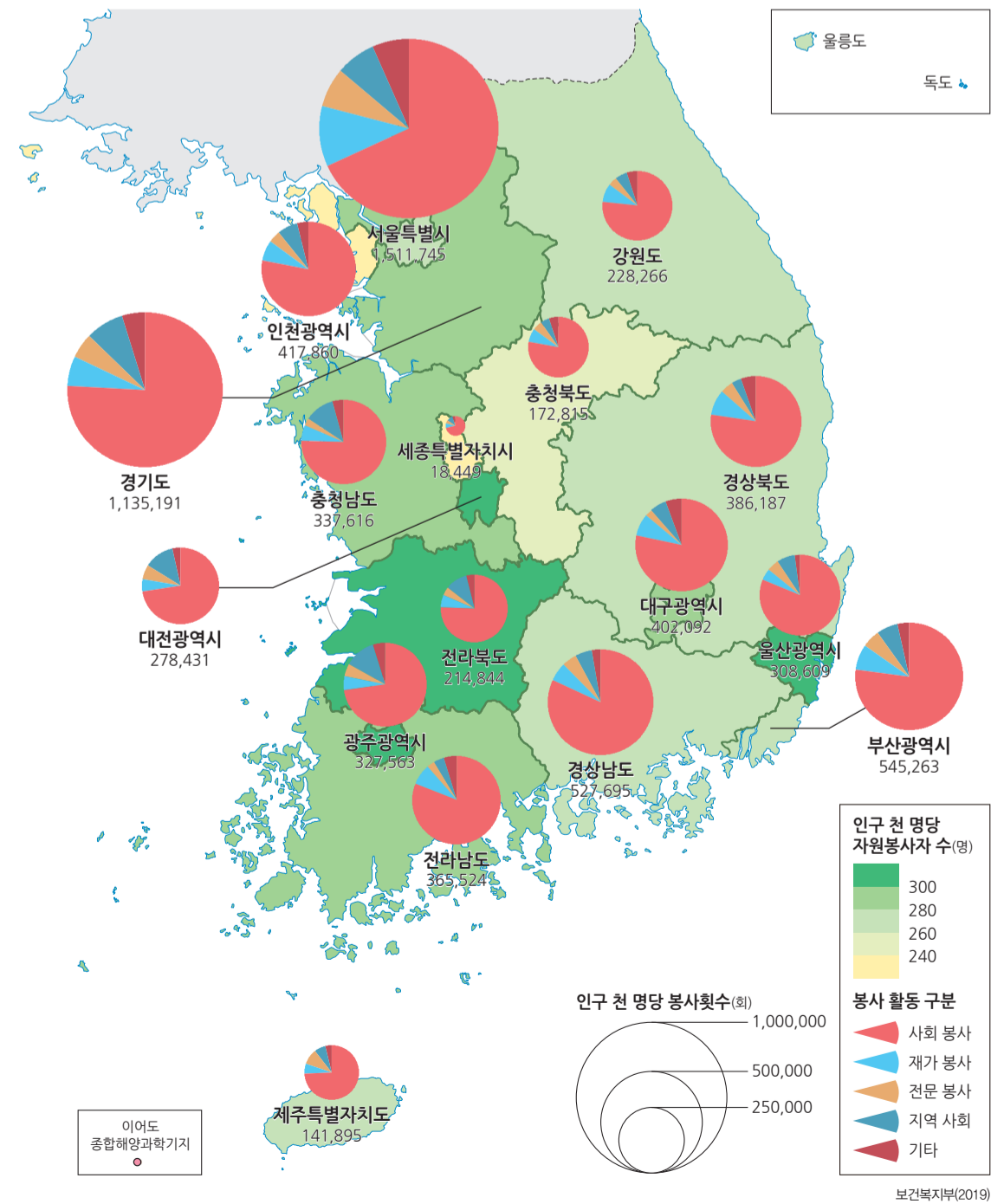
소득 수준이 낮거나 고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소득 인정이 중요

기초 생활 수급자(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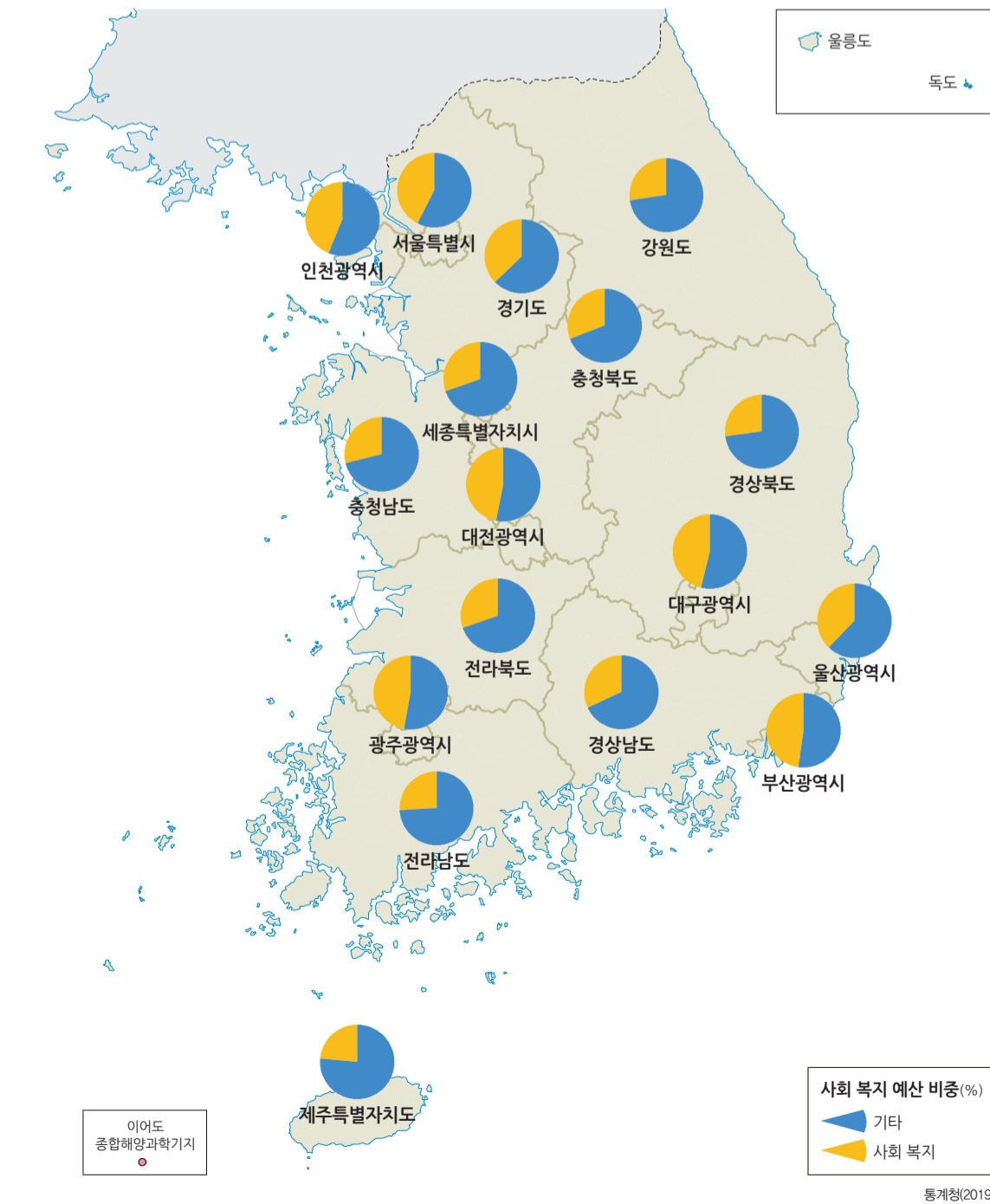


소득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소득과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다. 한편,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의무제도, 장애인고용장려금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률은 34.9%로 전체 고용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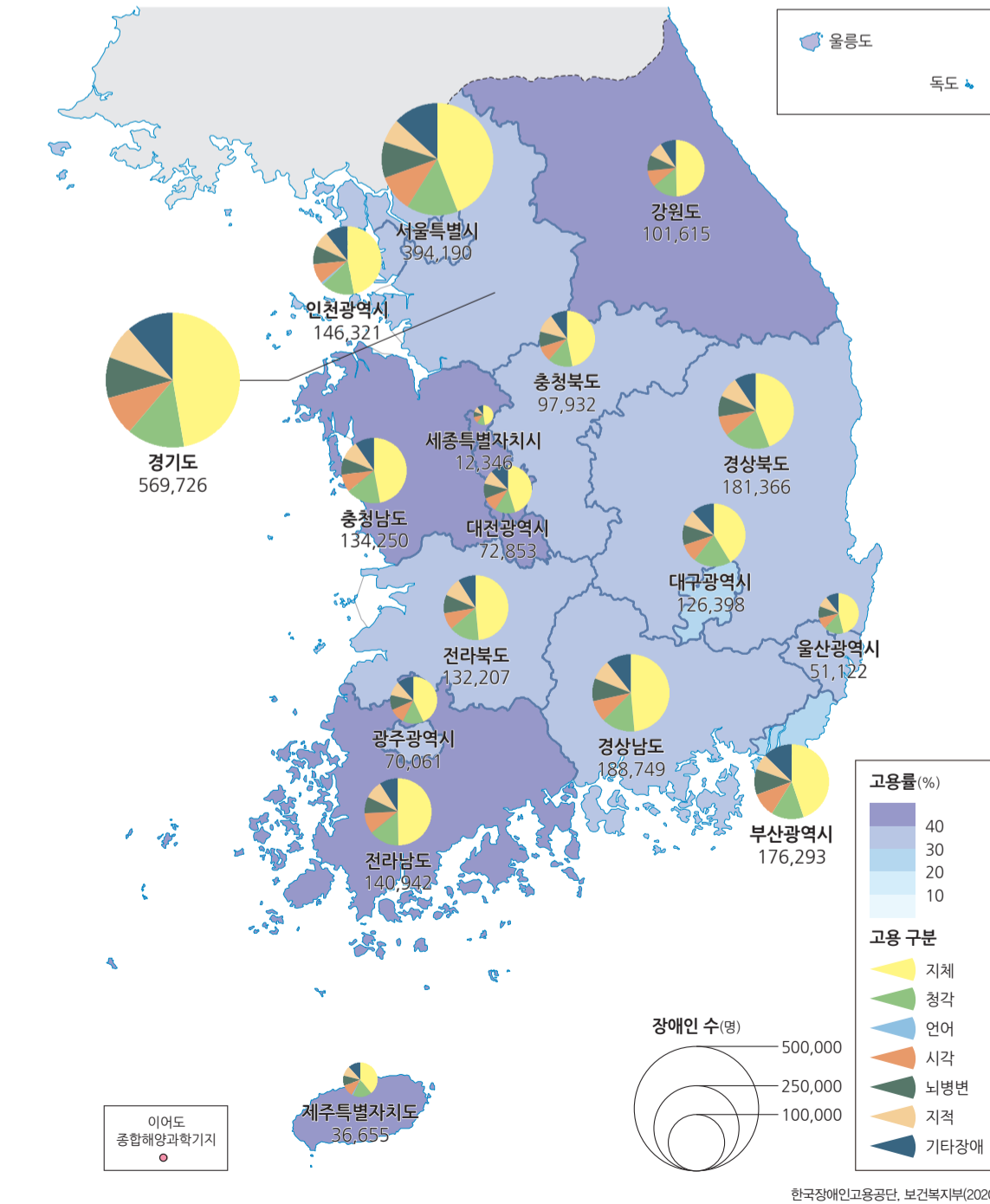
자원봉사 활동(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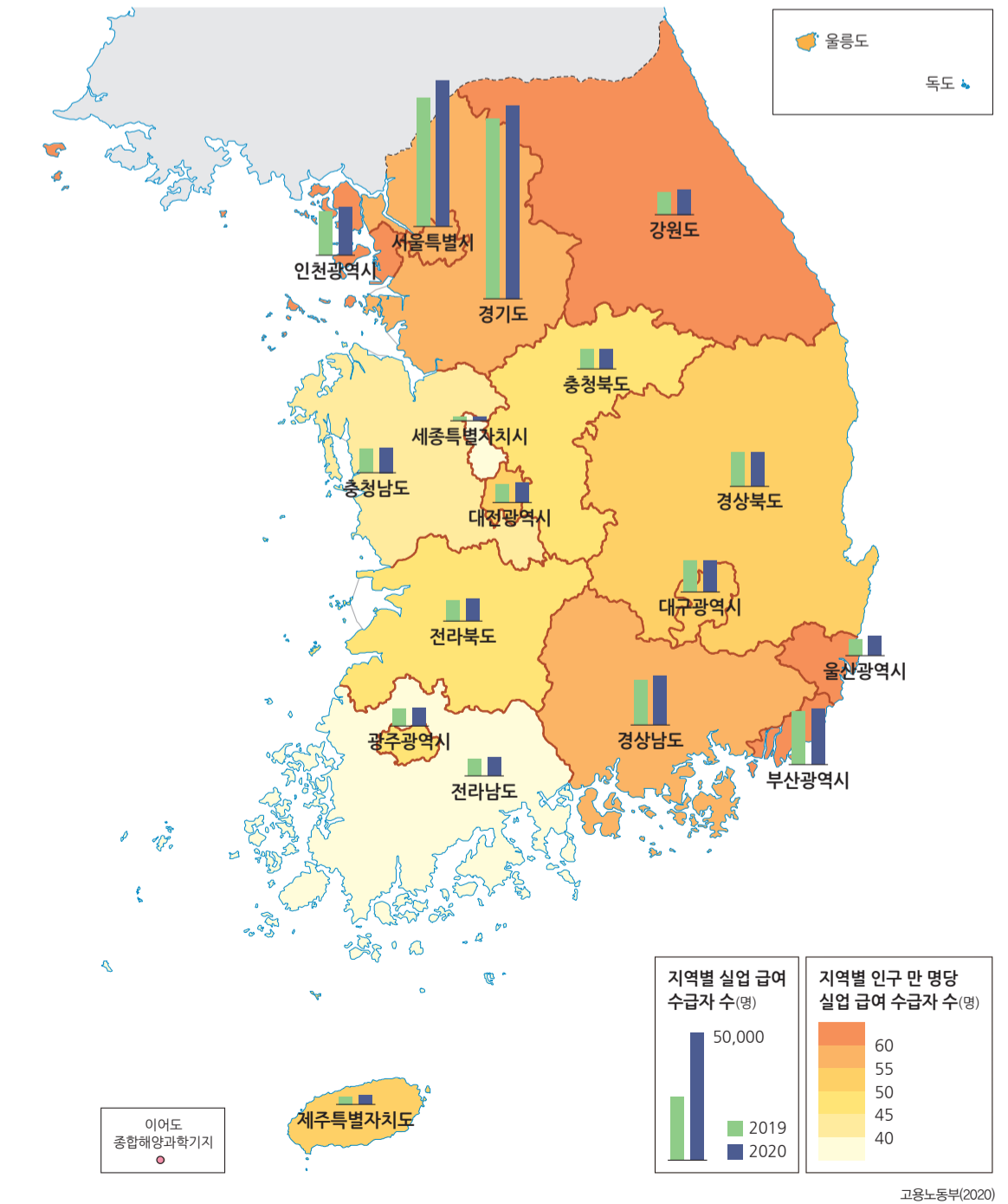
시도별 사회복지 예산 비중(2019년)



장애인 현황 및 고용률(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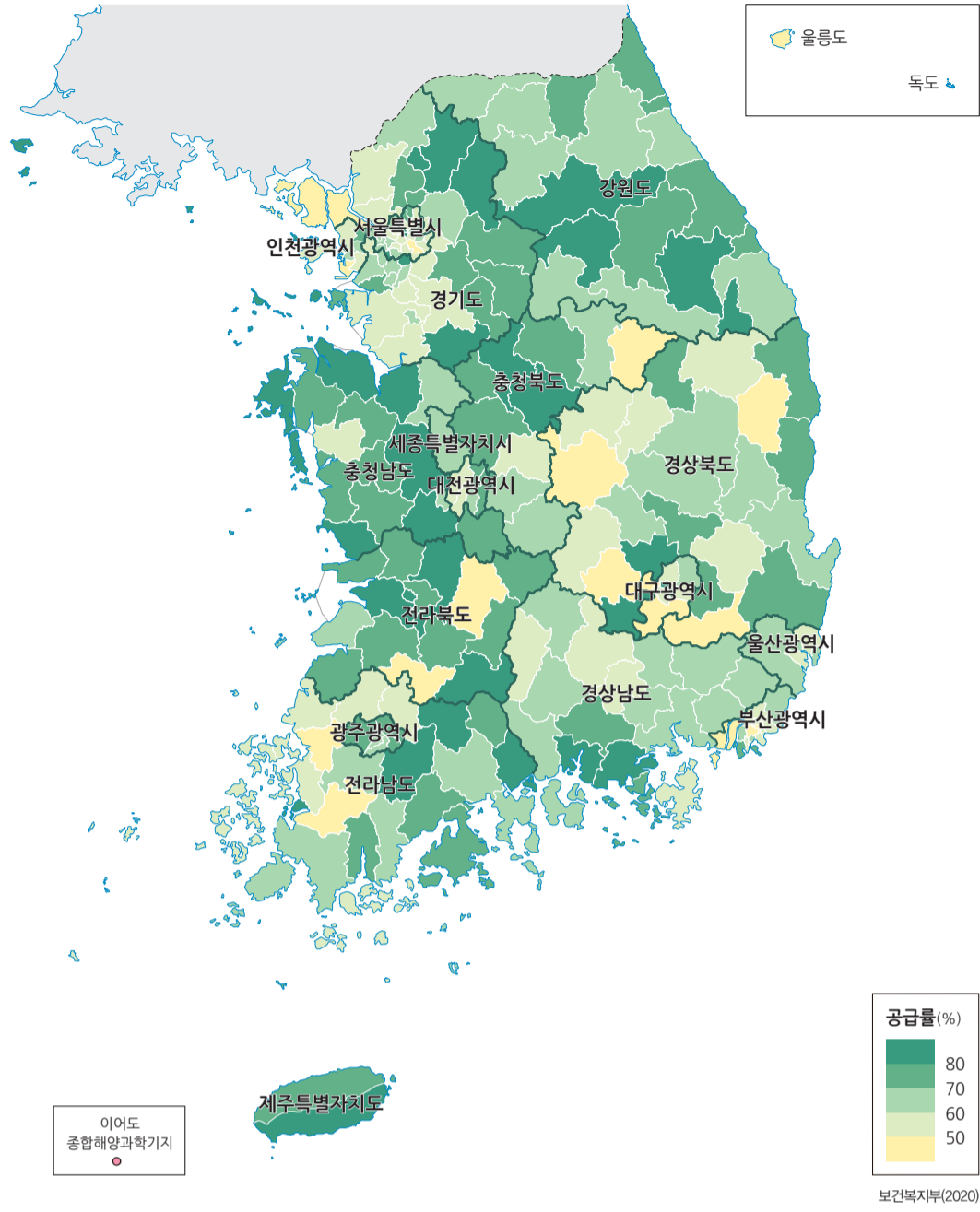


실업 급여 수급자(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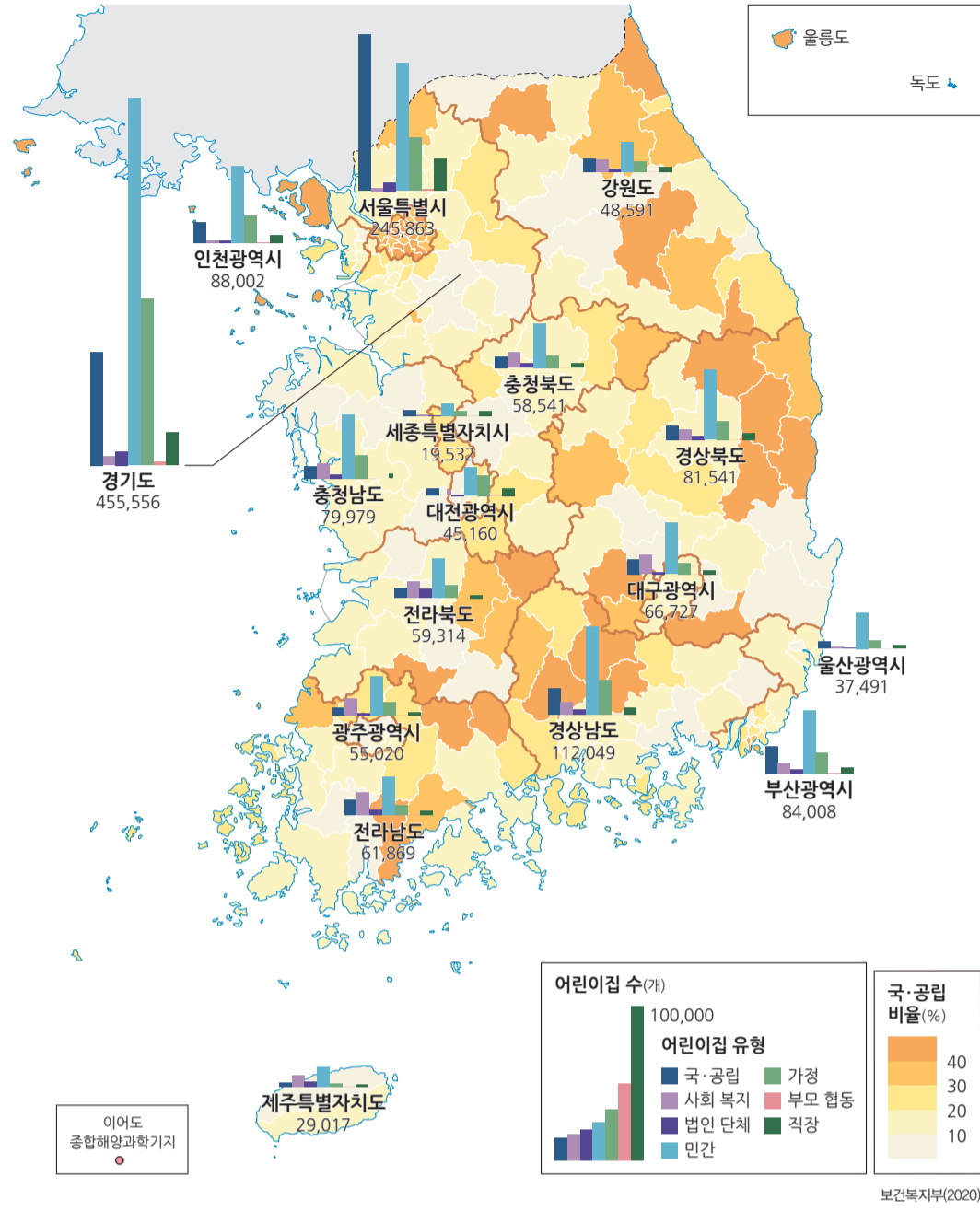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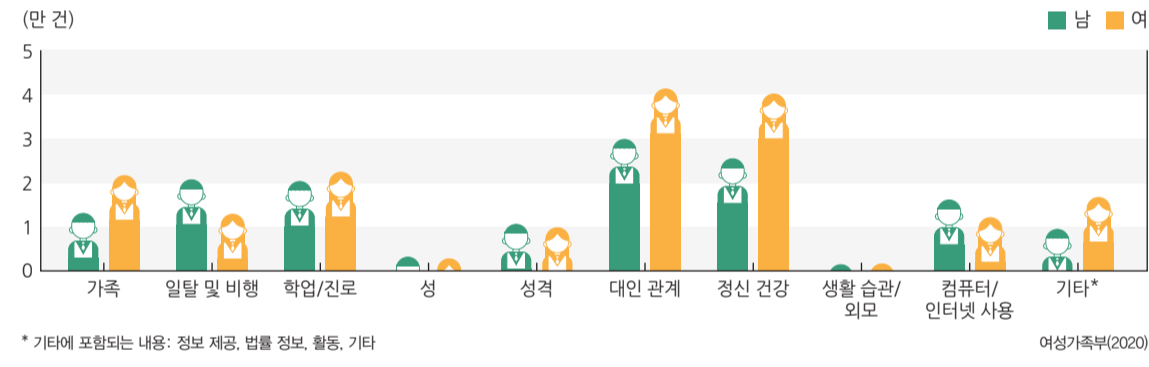
어린이집 수요 대비 공급률(2020년)



어린이집 유형과 분포(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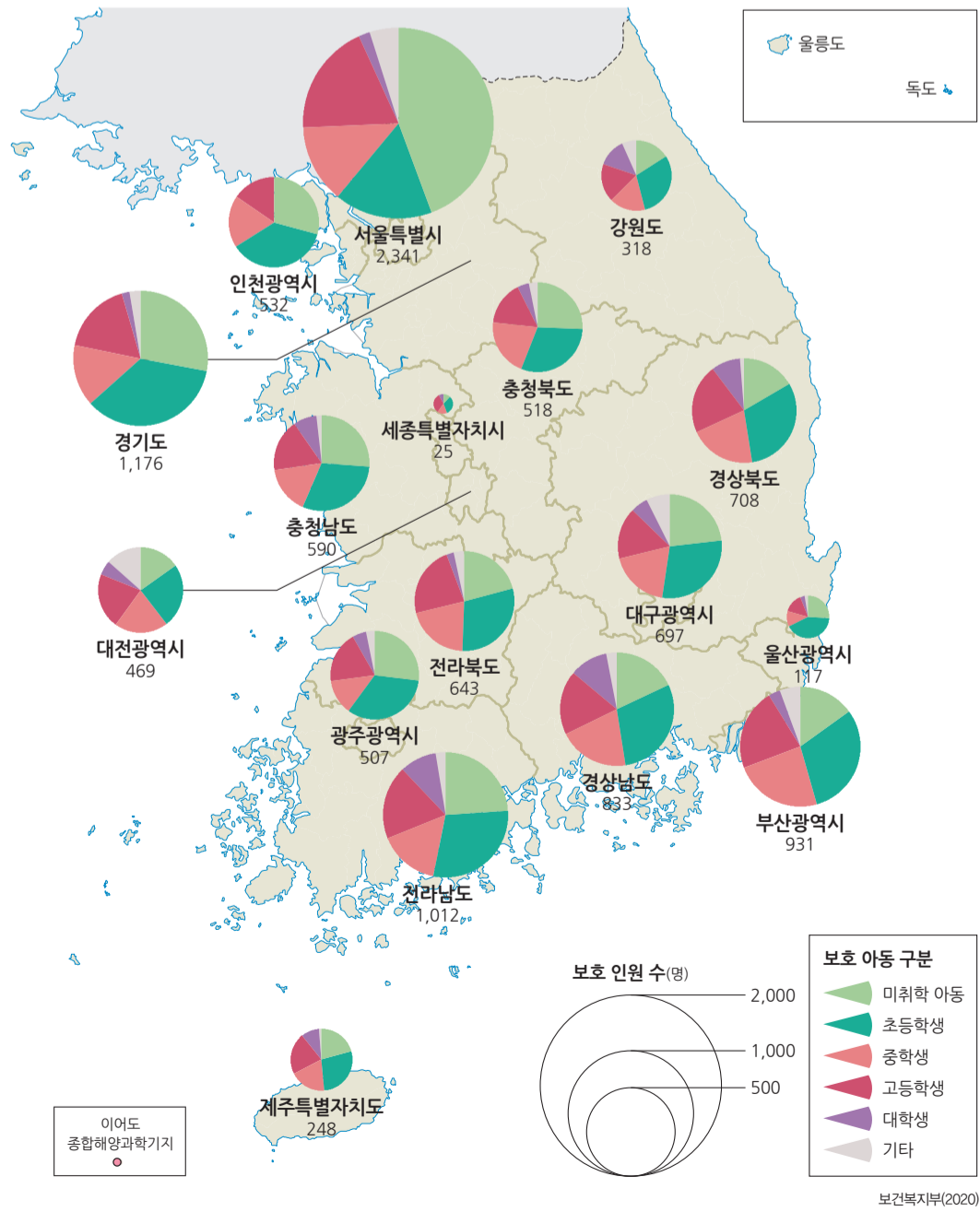
청소년 상담 지원 현황(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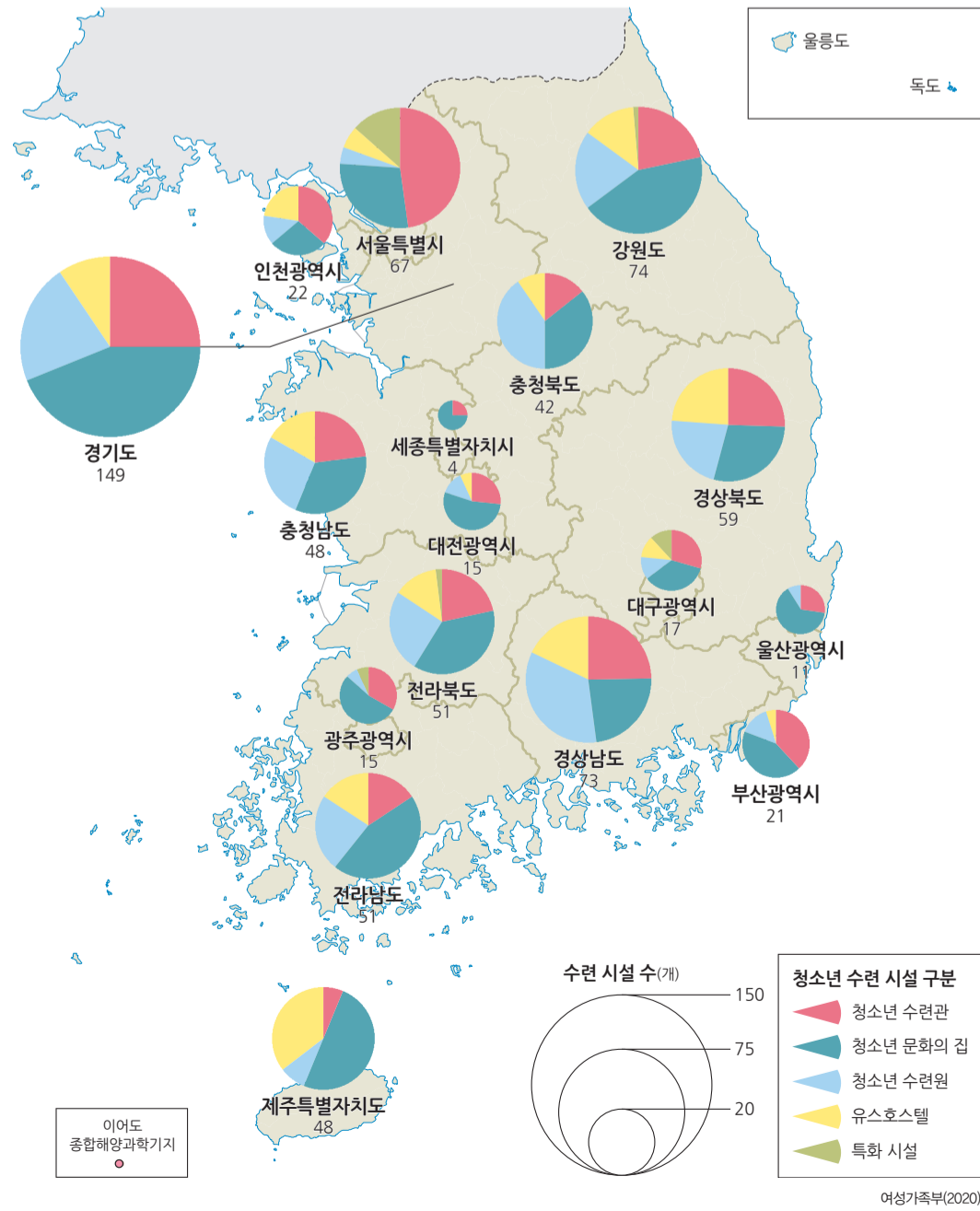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기 위한 보육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내 어린이집, 사회 복지 법인이나 종교, 법인 등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높아 국·공립 어린이집의 증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집은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일부 농촌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도 존재하는 등 농촌 지역은 보육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 복지는 급격한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겪는 청소년 시기의 특성에 맞게 상담과 문제 해결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상담 내용은 주로 학업과 진로, 대인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정신 건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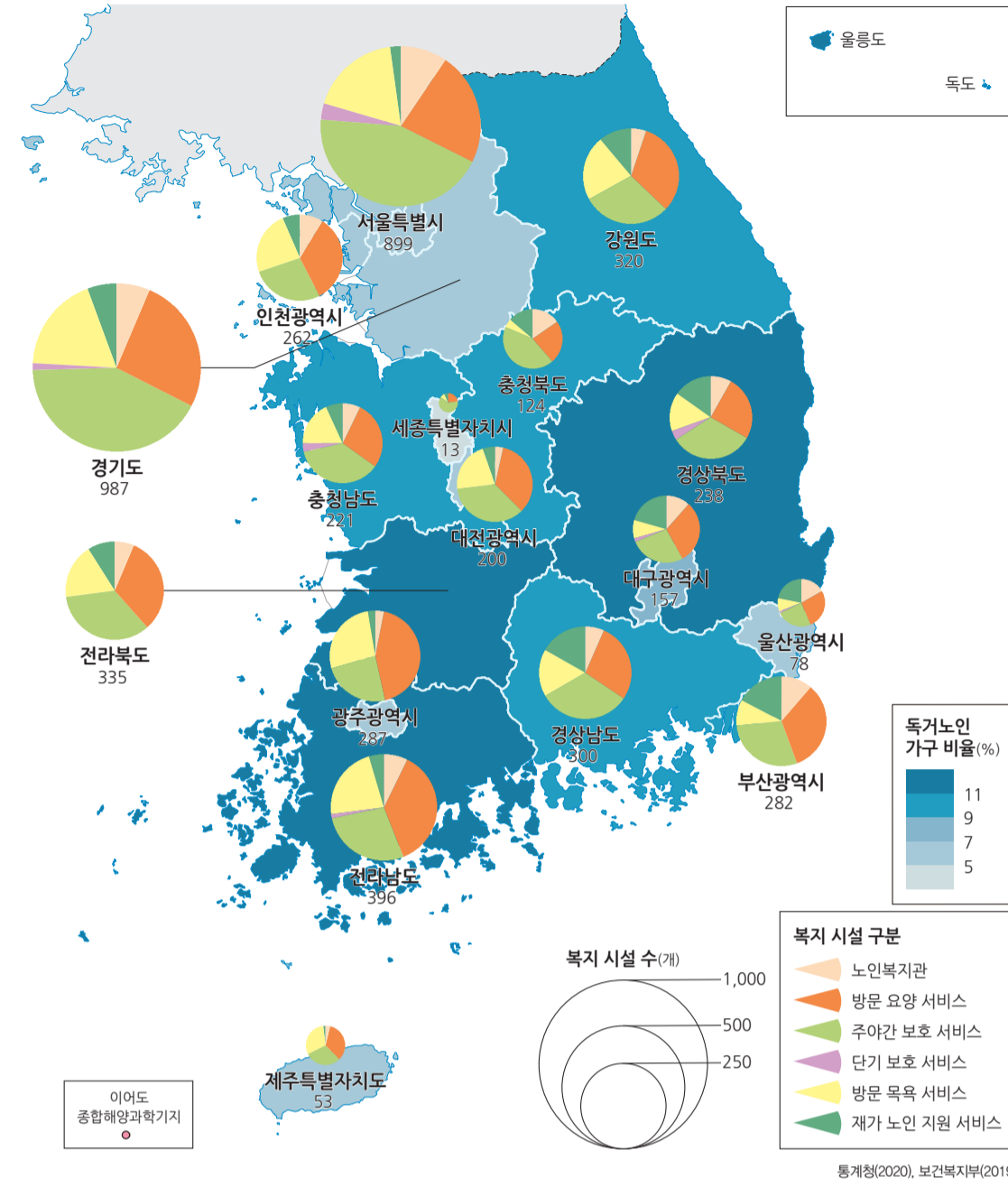
아동복지시설 보호 인원(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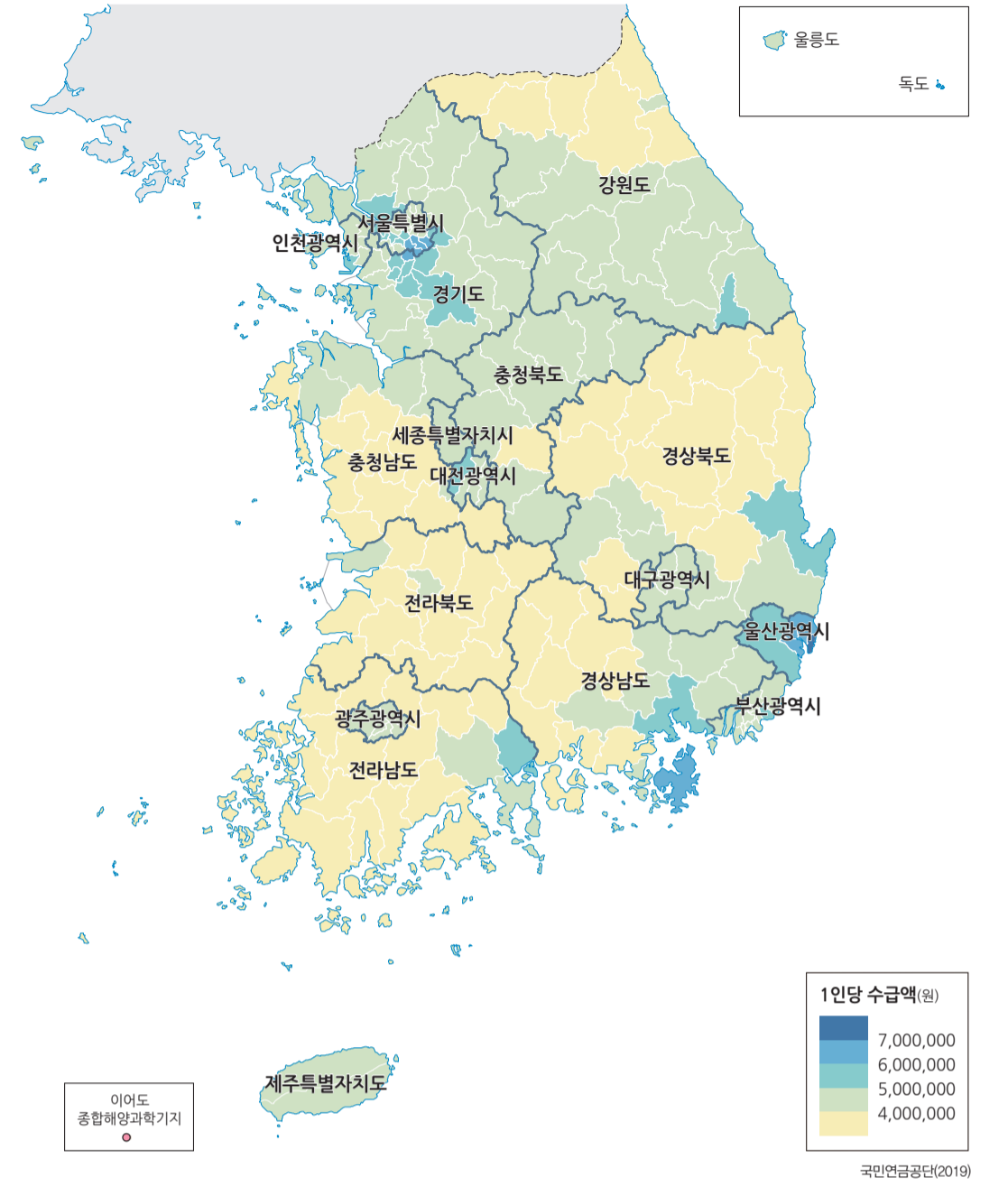
청소년 수련 시설(2020년)



독거노인 비율 및 노인 복지 시설(2020년)



노령 연금 수급액(2019년)



스트레스, 일탈 및 비행에 대한 도움, 컴퓨터와 인터넷 중독 등이다. 또한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성장을 돕고 문화의 교류와 나눔을 위해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수련원, 아영장, 유스호스텔 등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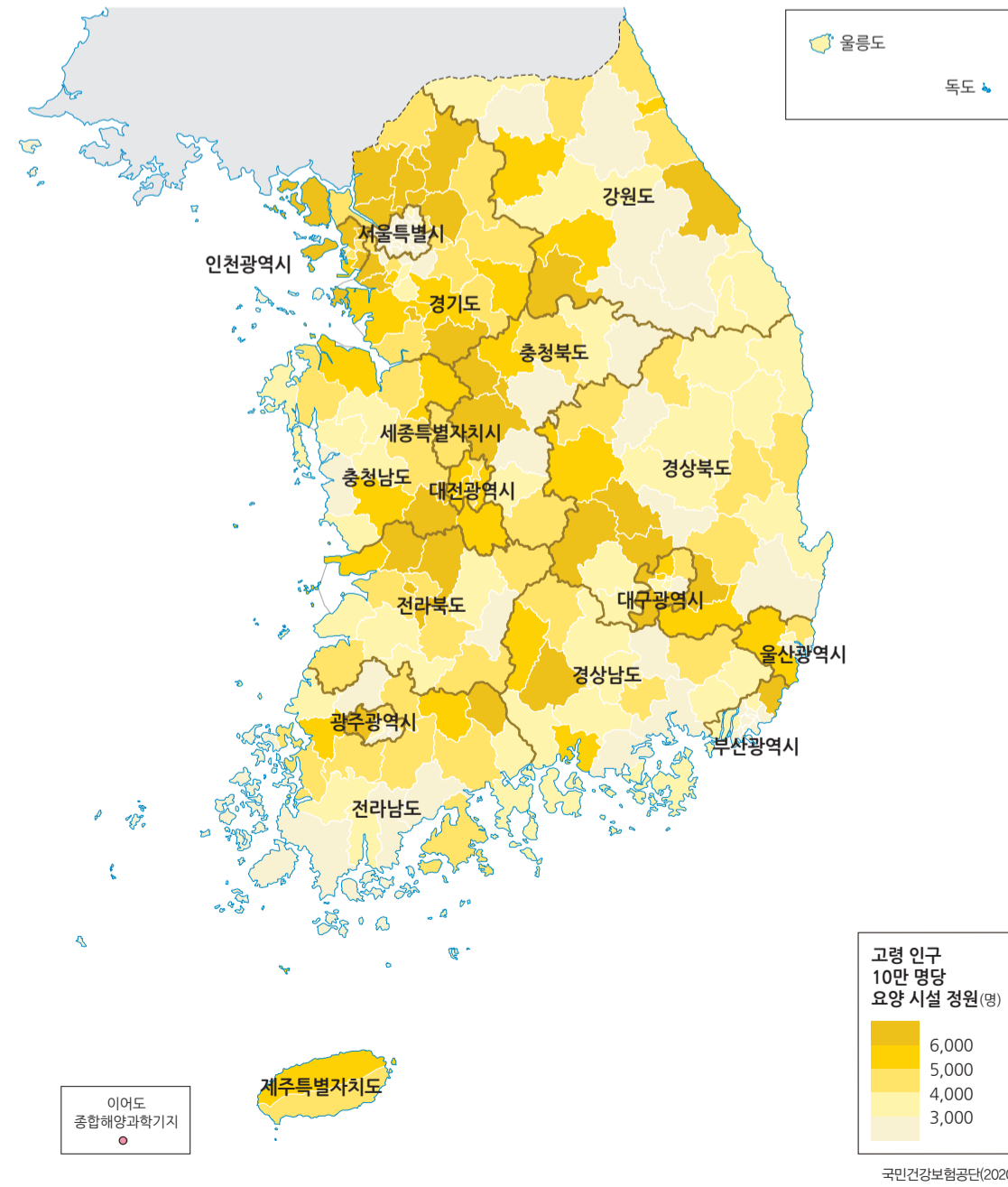
많은 선진국이 이미 겪어 왔던 인구의 노령화 현상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커다란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 인구의 비율은 더욱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반대로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대한민국 사회는 고령 인구 부양과 함께 경제와 사회의 활력 유지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노인은 만 65세 이상의 인구를 지칭하며, 통계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이들은 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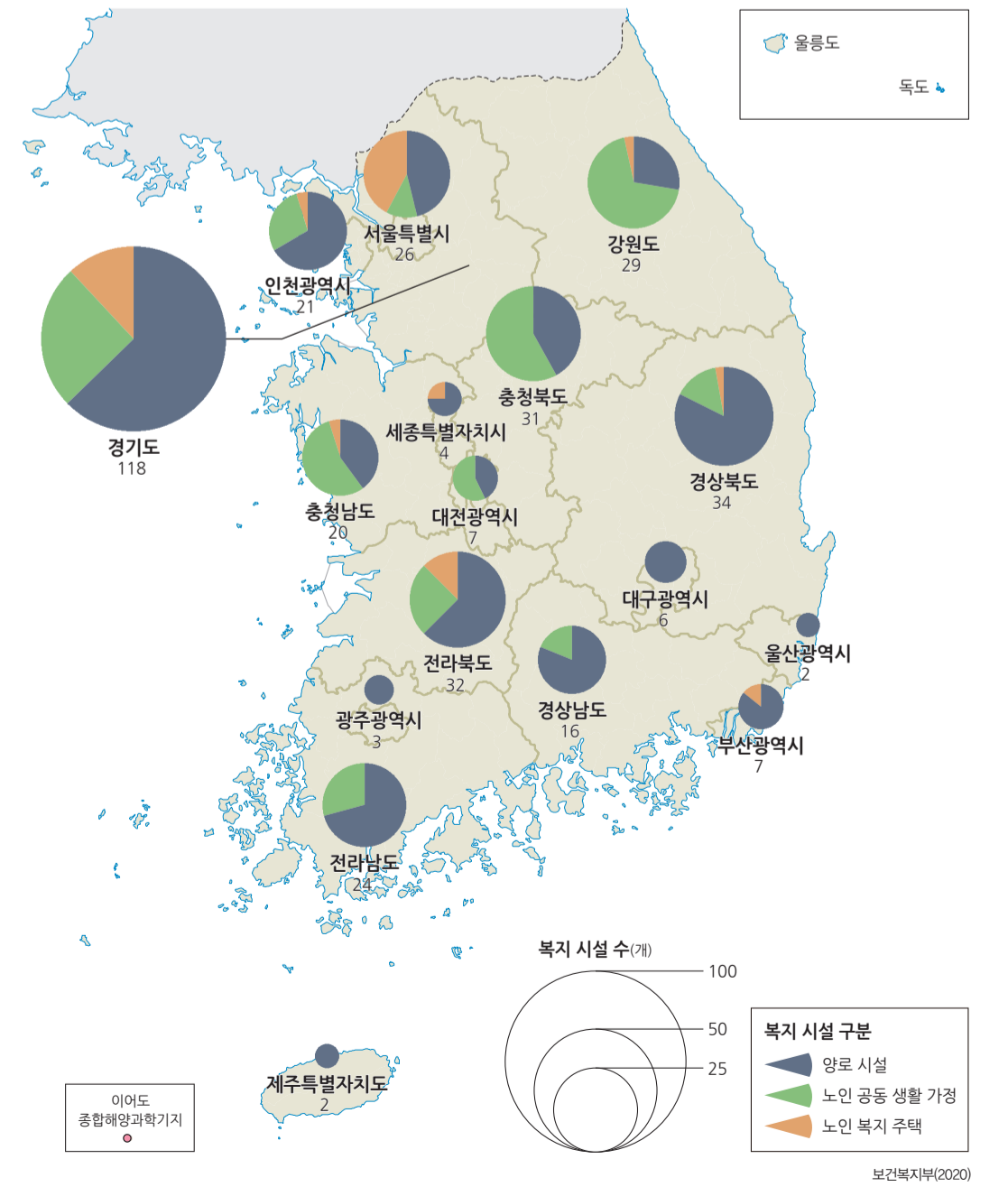
경쟁과 6·25 전쟁 이후의 경제·사회적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중 상당수는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할 여력을 갖추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에서 실행 중인 복지 정책의 효율적인 운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고령 인구의 증가는 요양 시설, 노인 주거 복지 시설 및 노인 복지 시설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요양 시설과 노인 주거 복지 시설은 대도시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교외 지역을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으며, 노인 복지 시설은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목욕, 재가 노인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자원봉사자 및 기부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많은 자원봉사자가 사회 복지의 중요한 측면을 담당하며, 사회 복지 서비스의 공급이 제도적으로 미흡한 곳을 보완하고 있다.

요양시설 분포와 증감(2016~2020년)



노인주거복지시설 유형 및 분포(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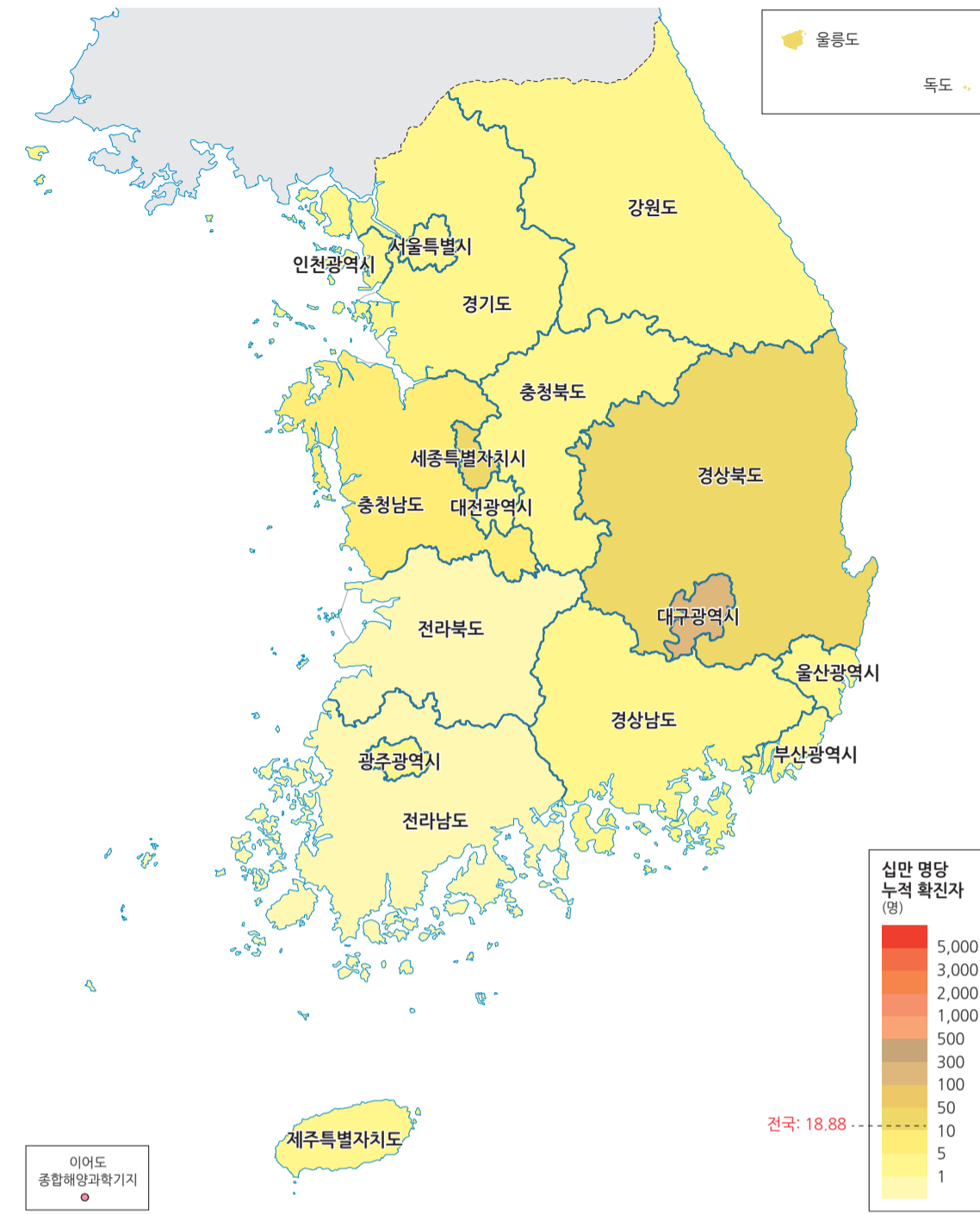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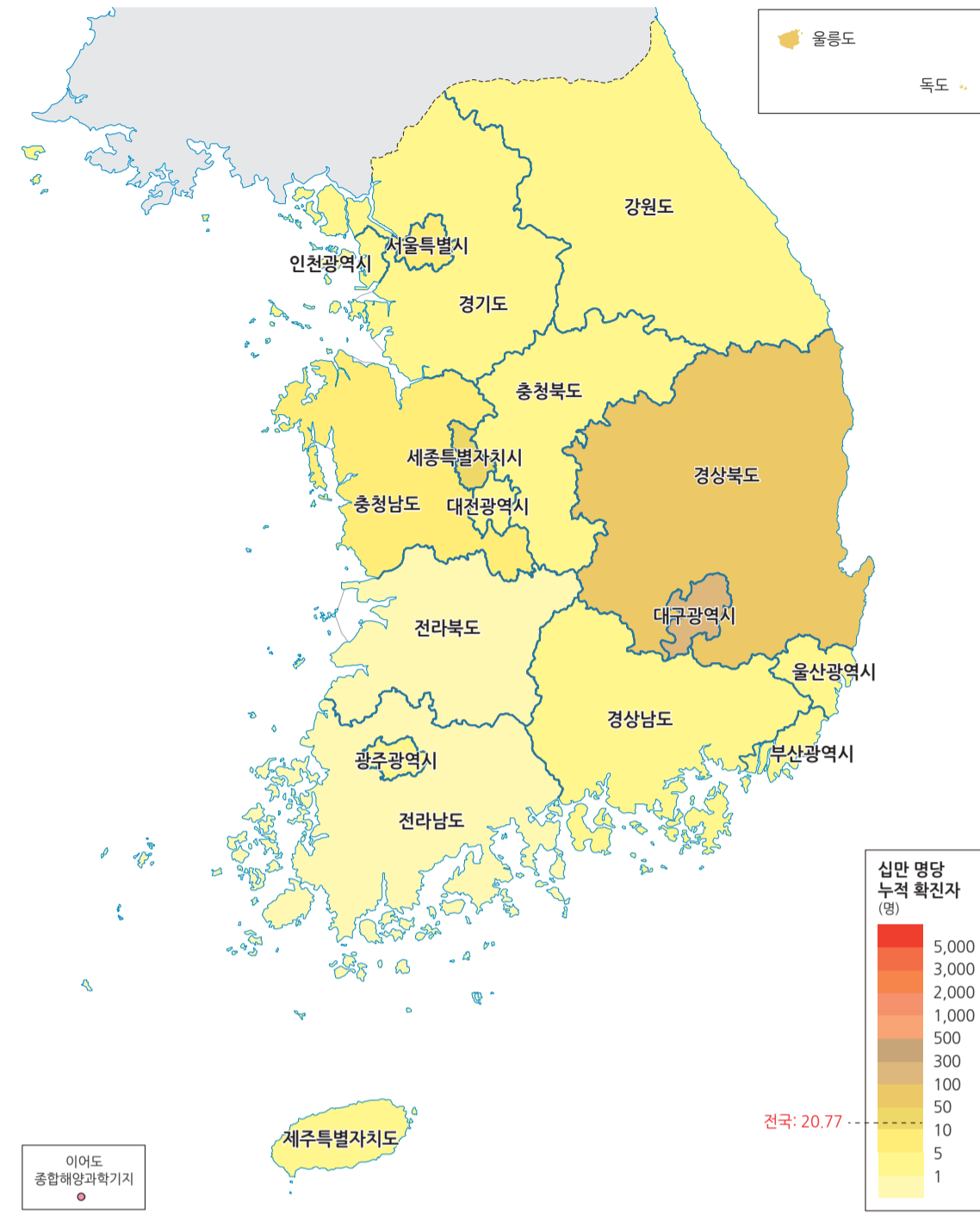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십만 명 당 누적 확진자 현황(2020년 3월~2022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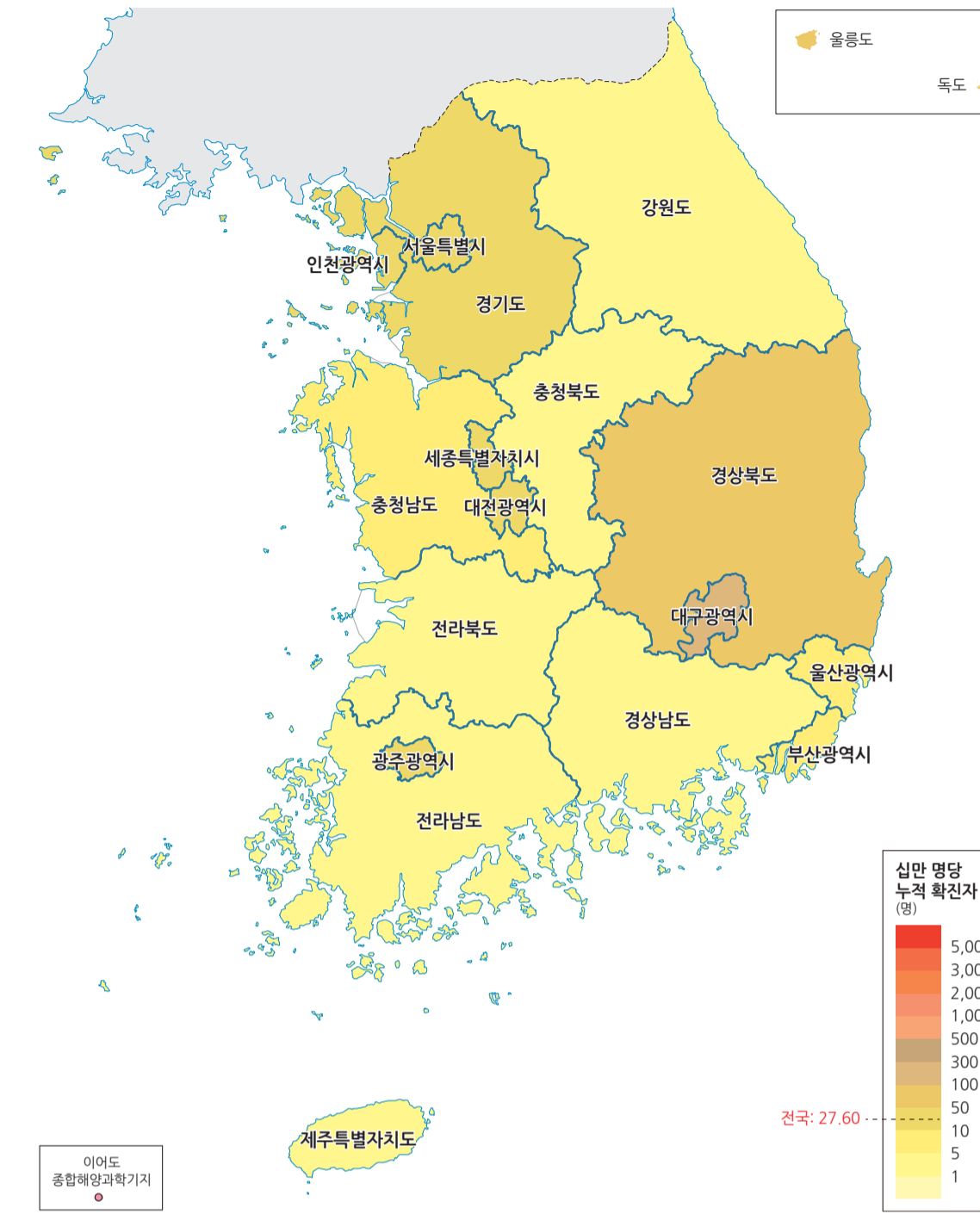
2020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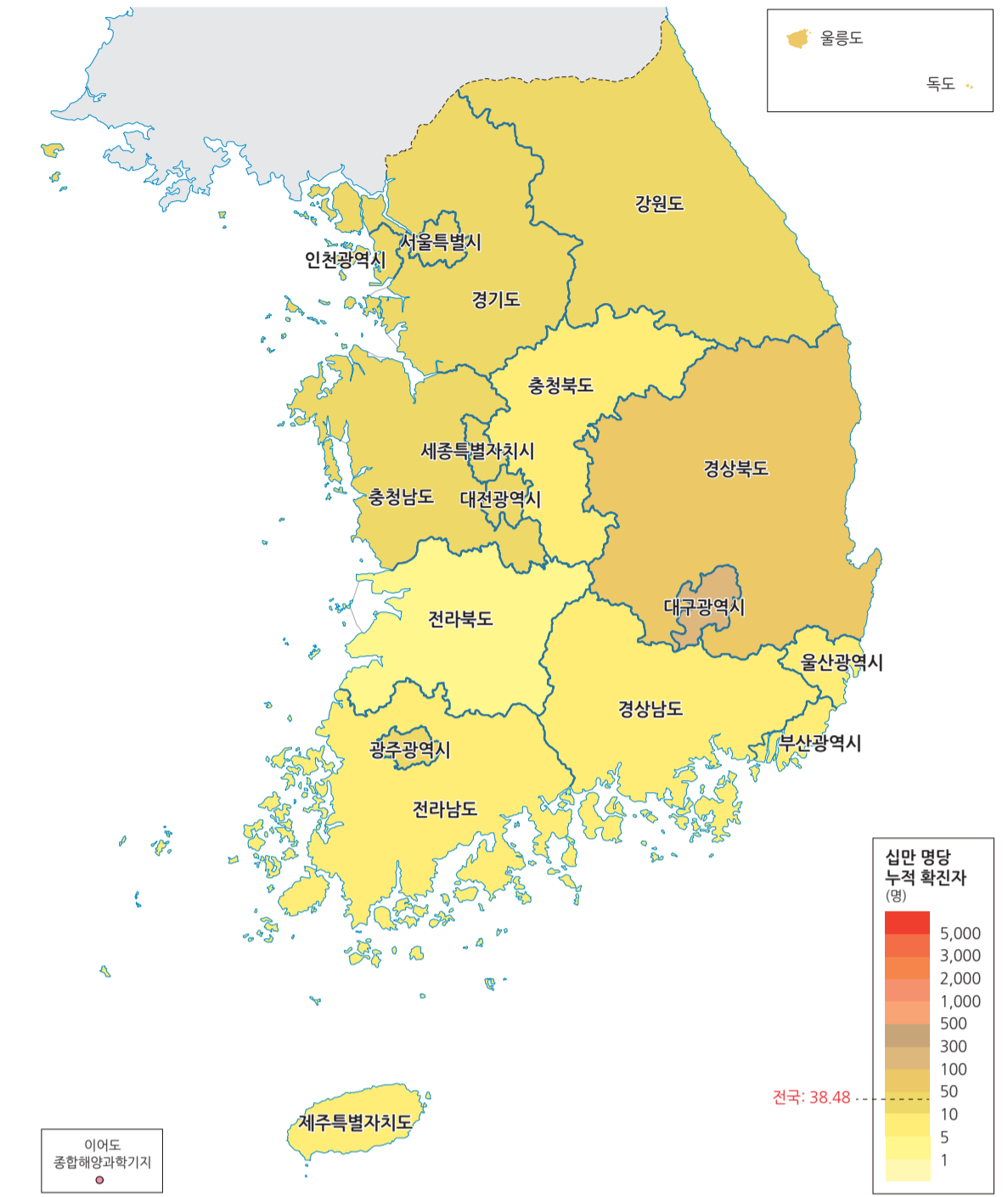
2020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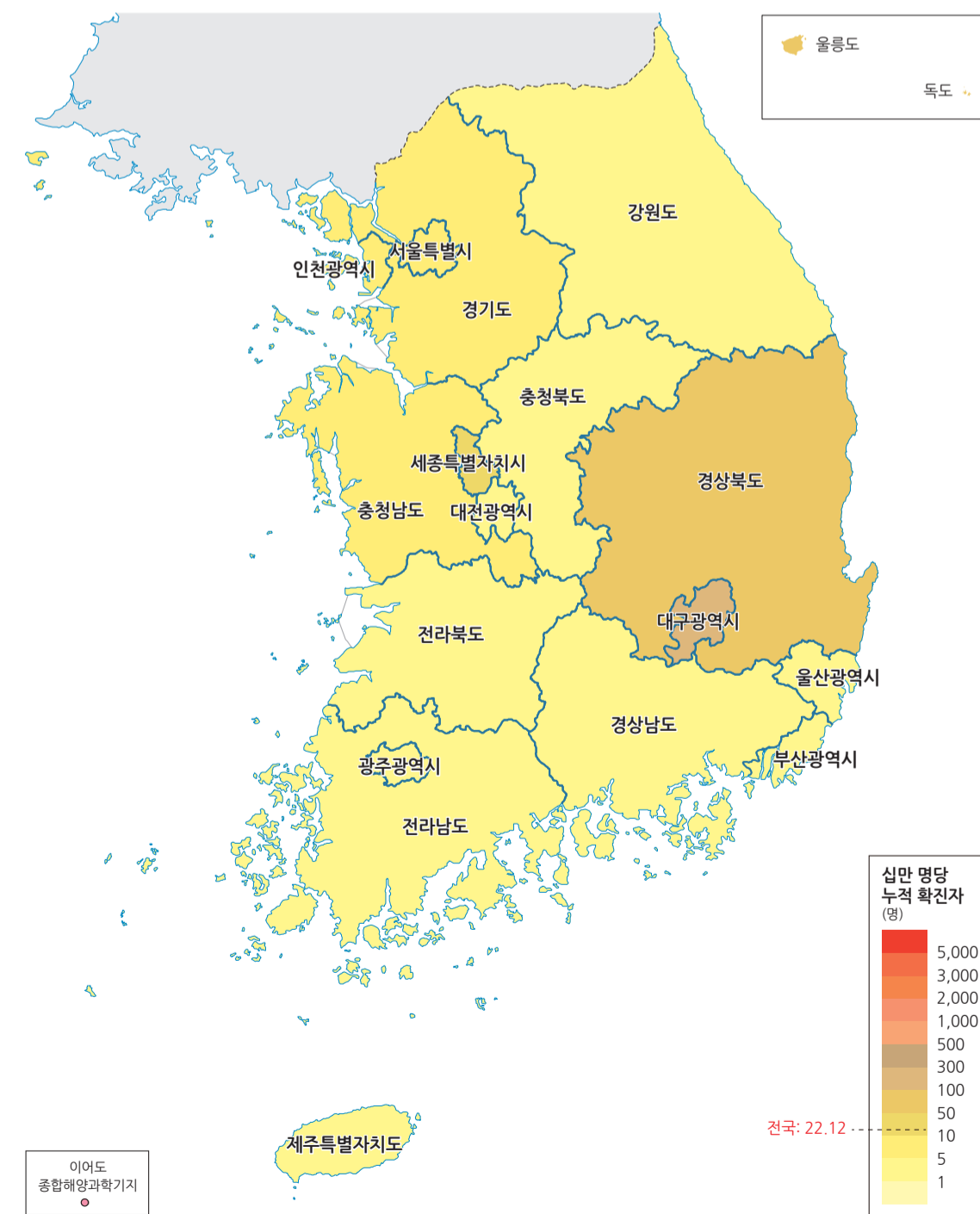
2020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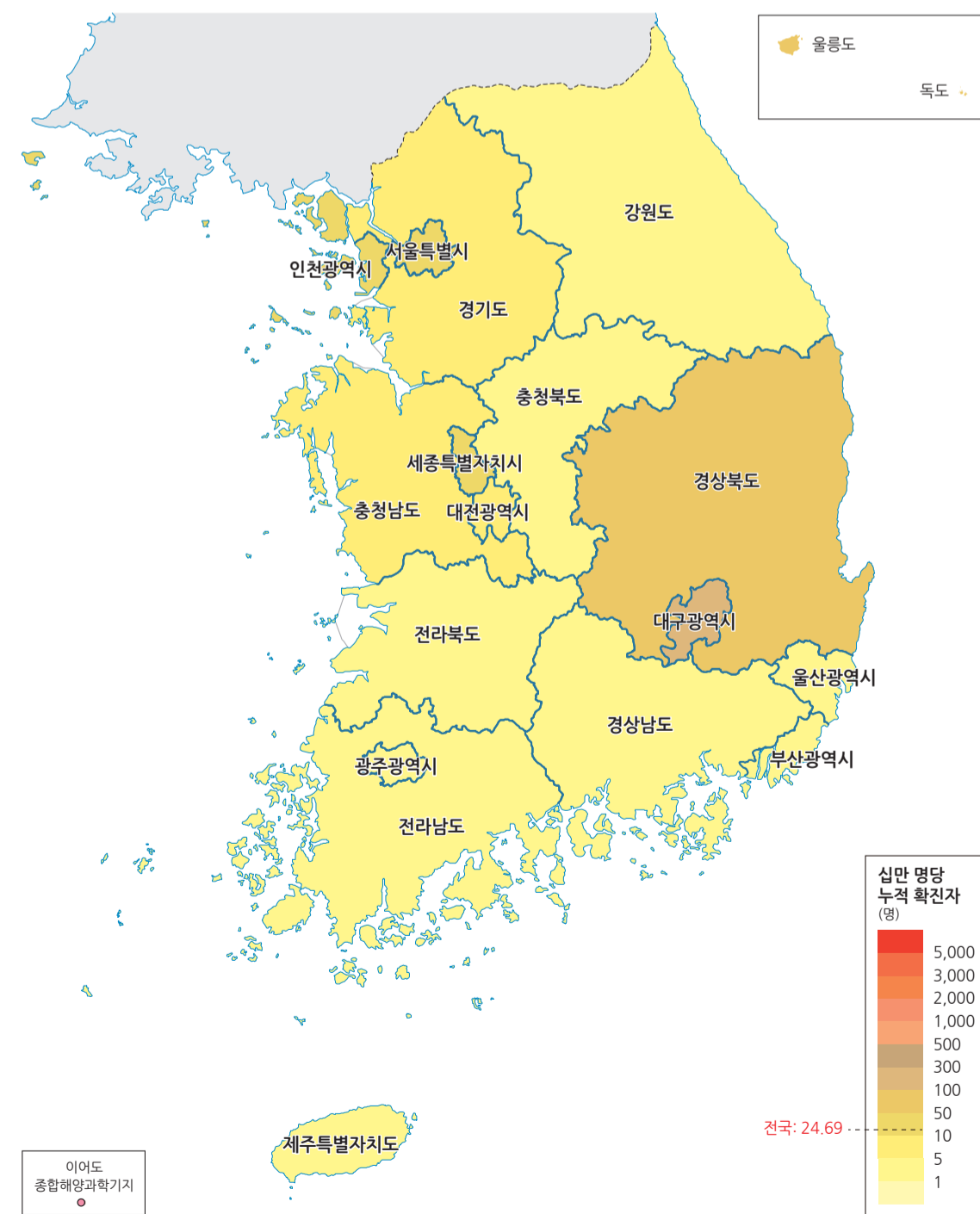
2020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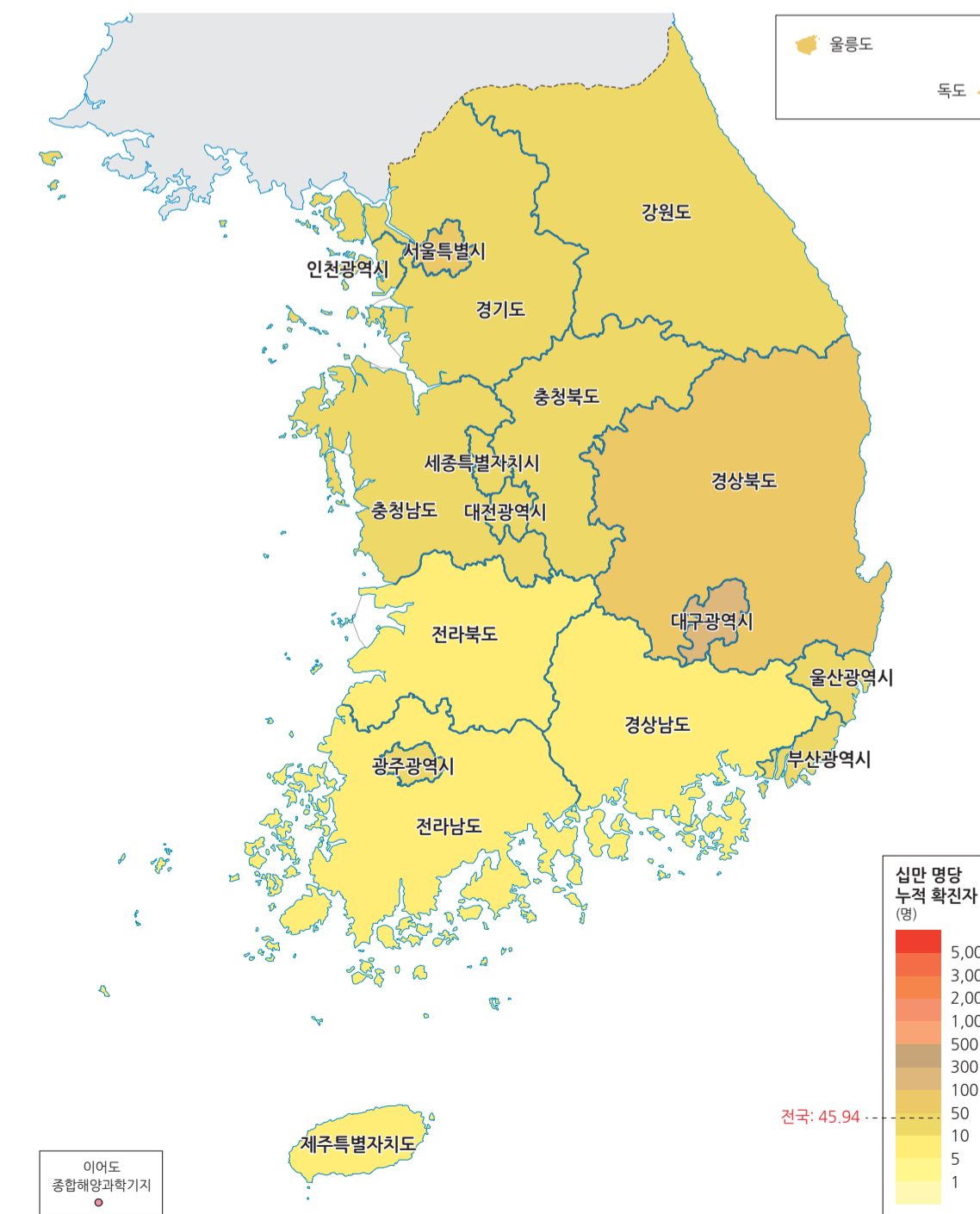
2020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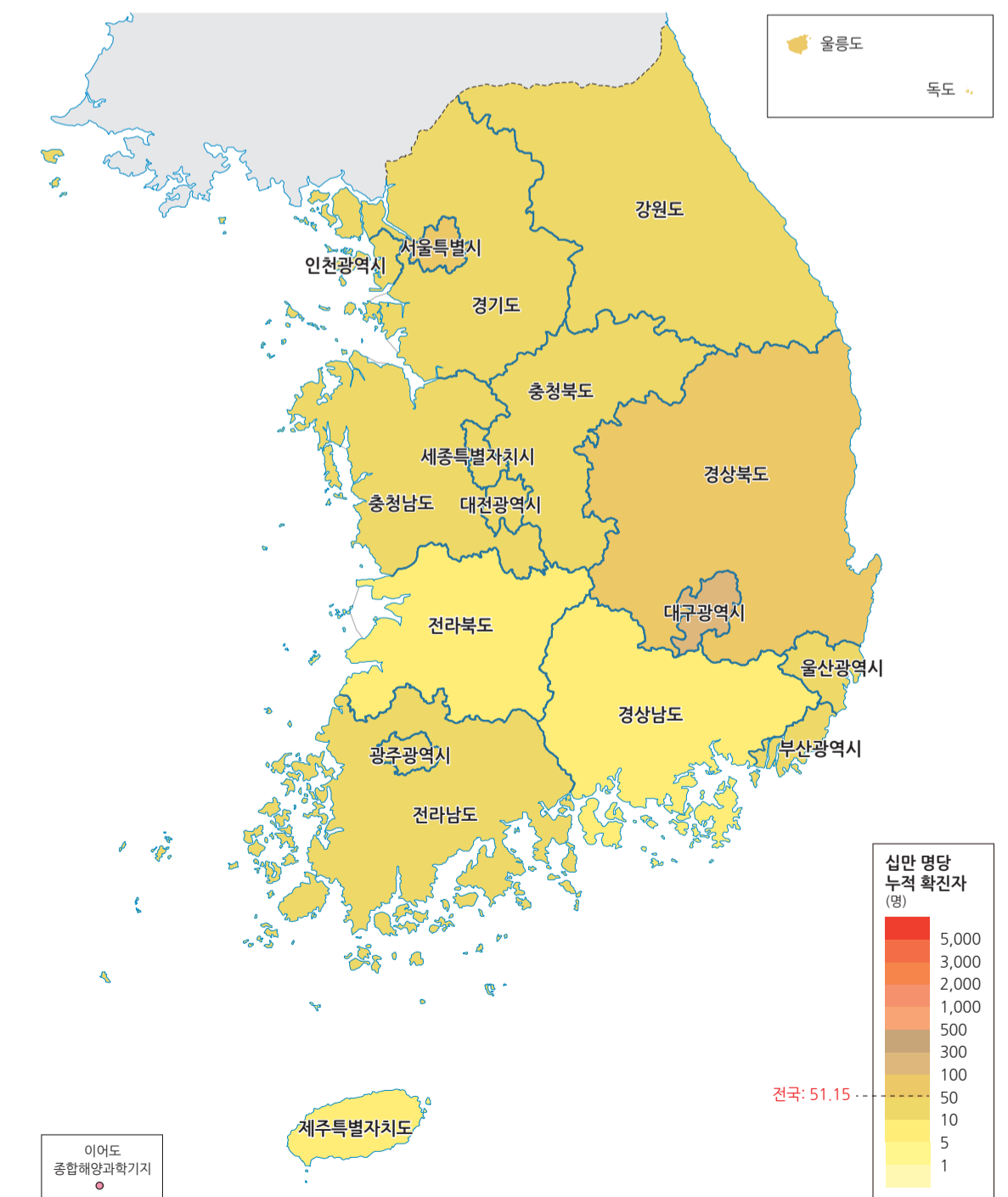
2020년 6월



2020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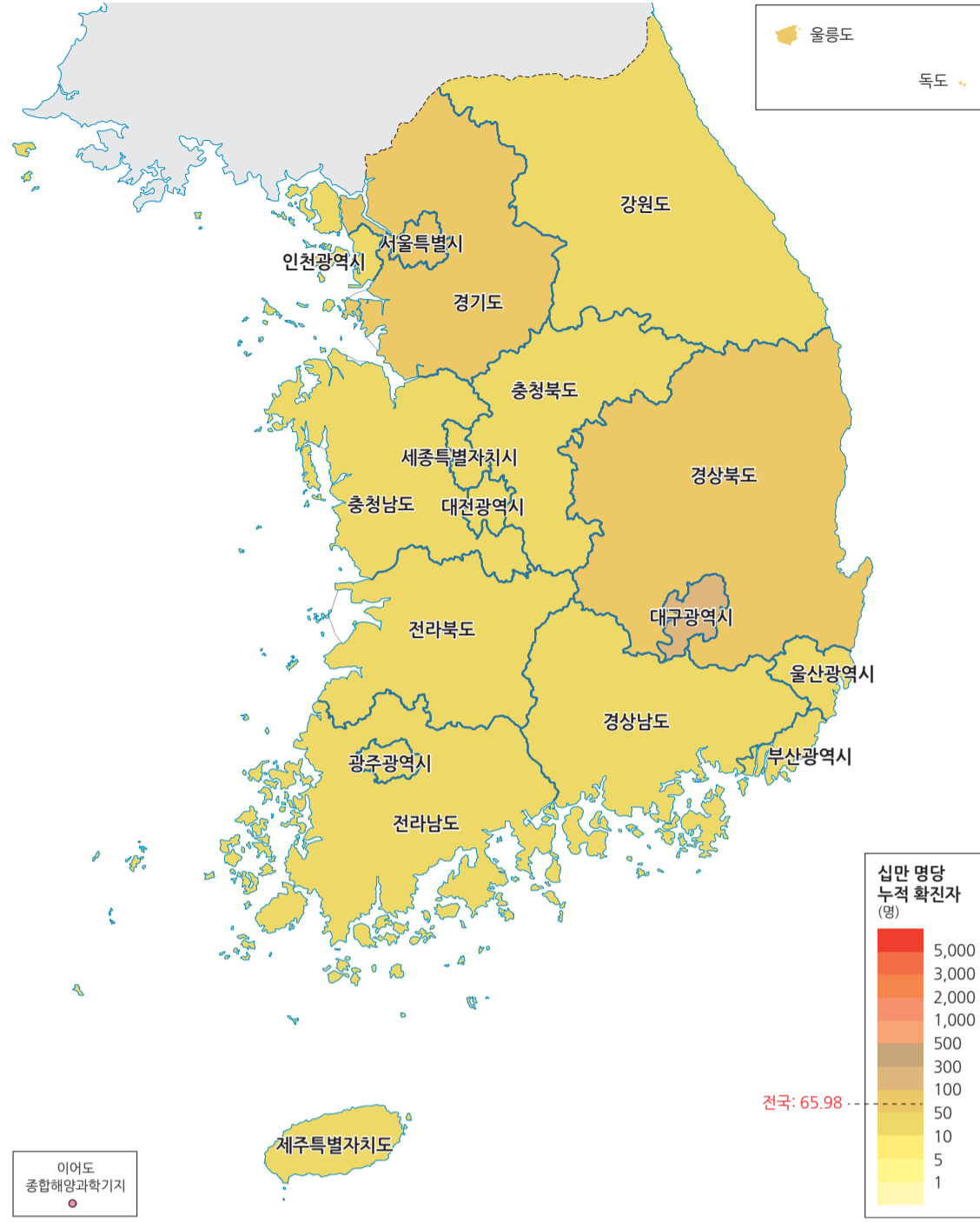


2020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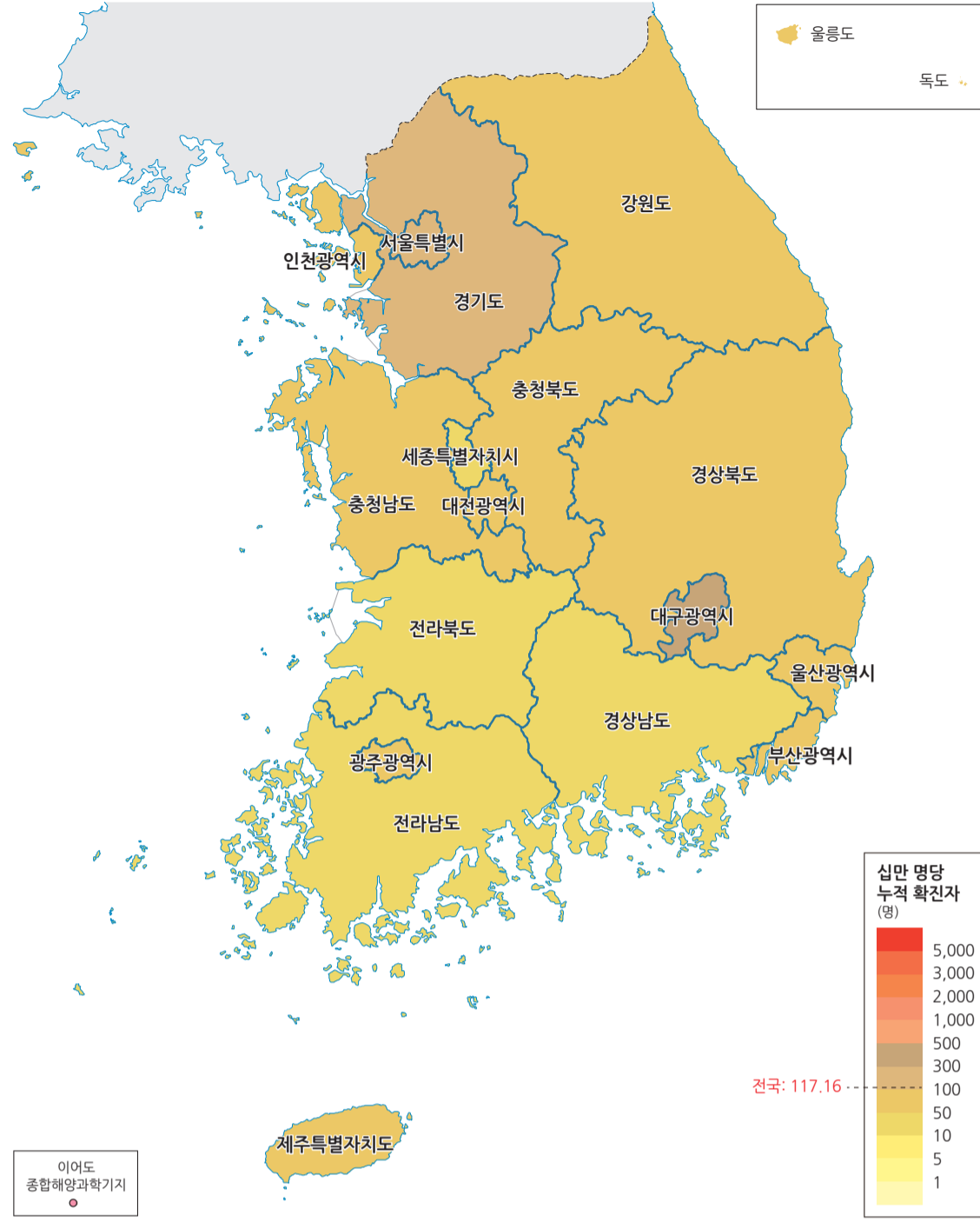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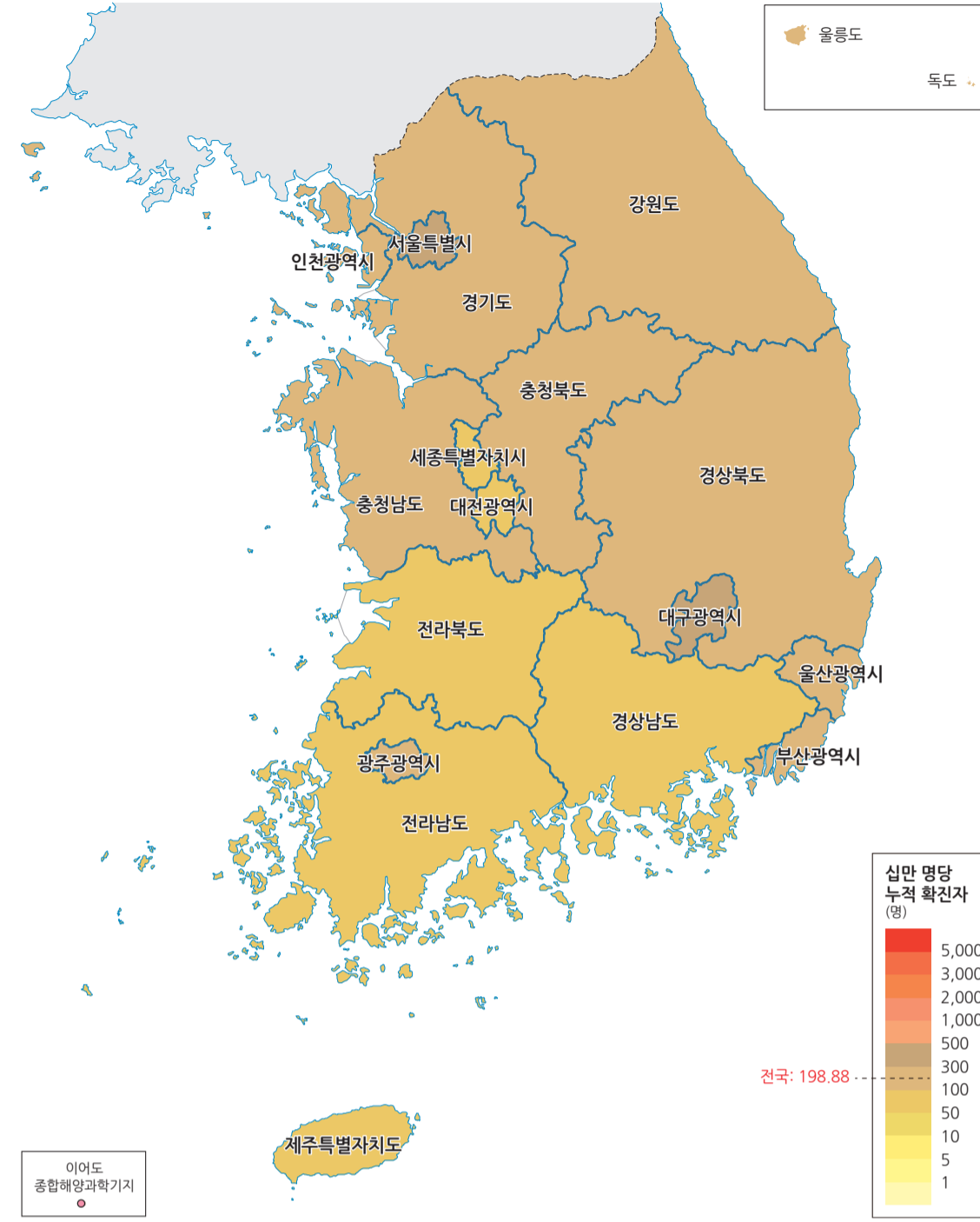
2020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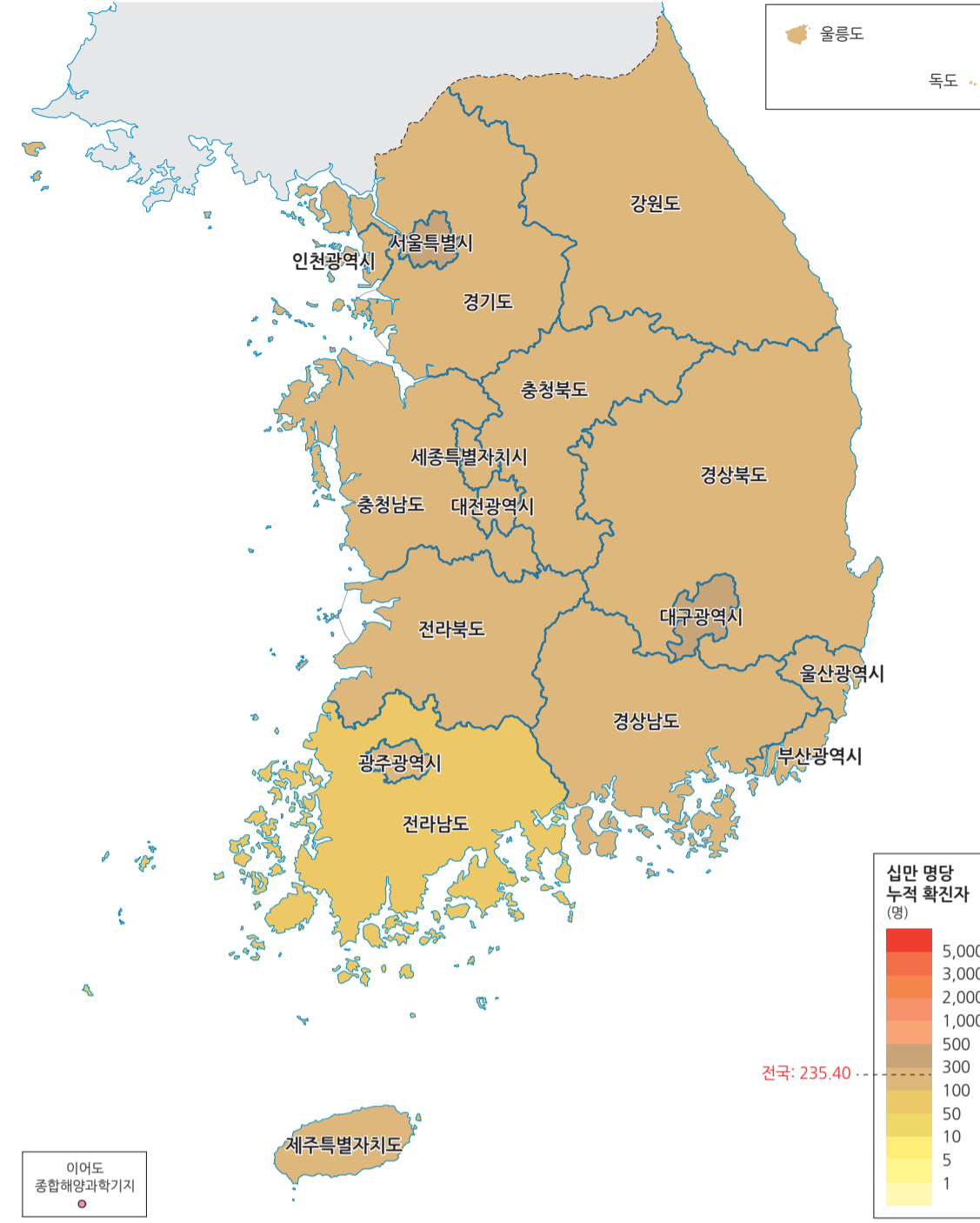
2020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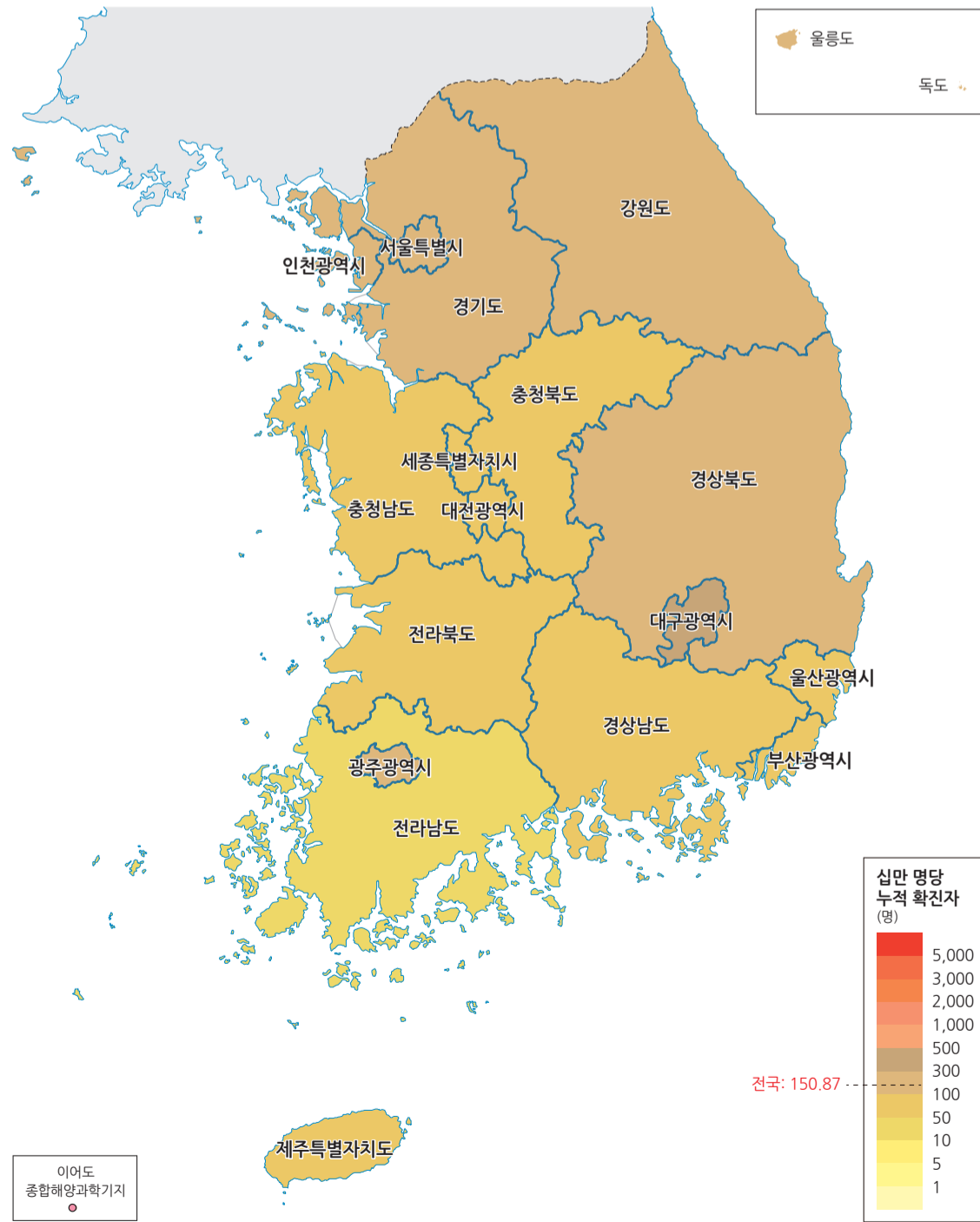
2021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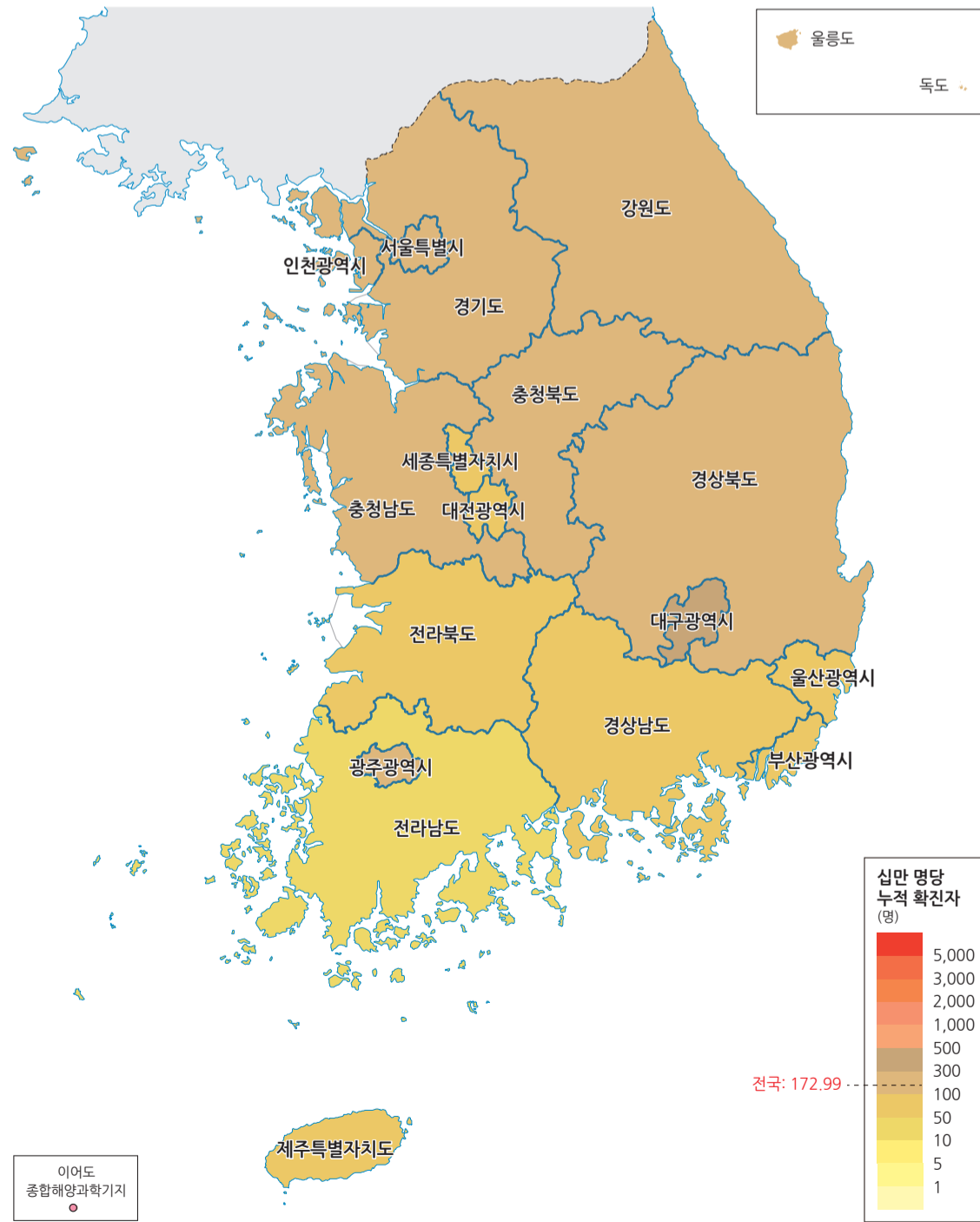
2021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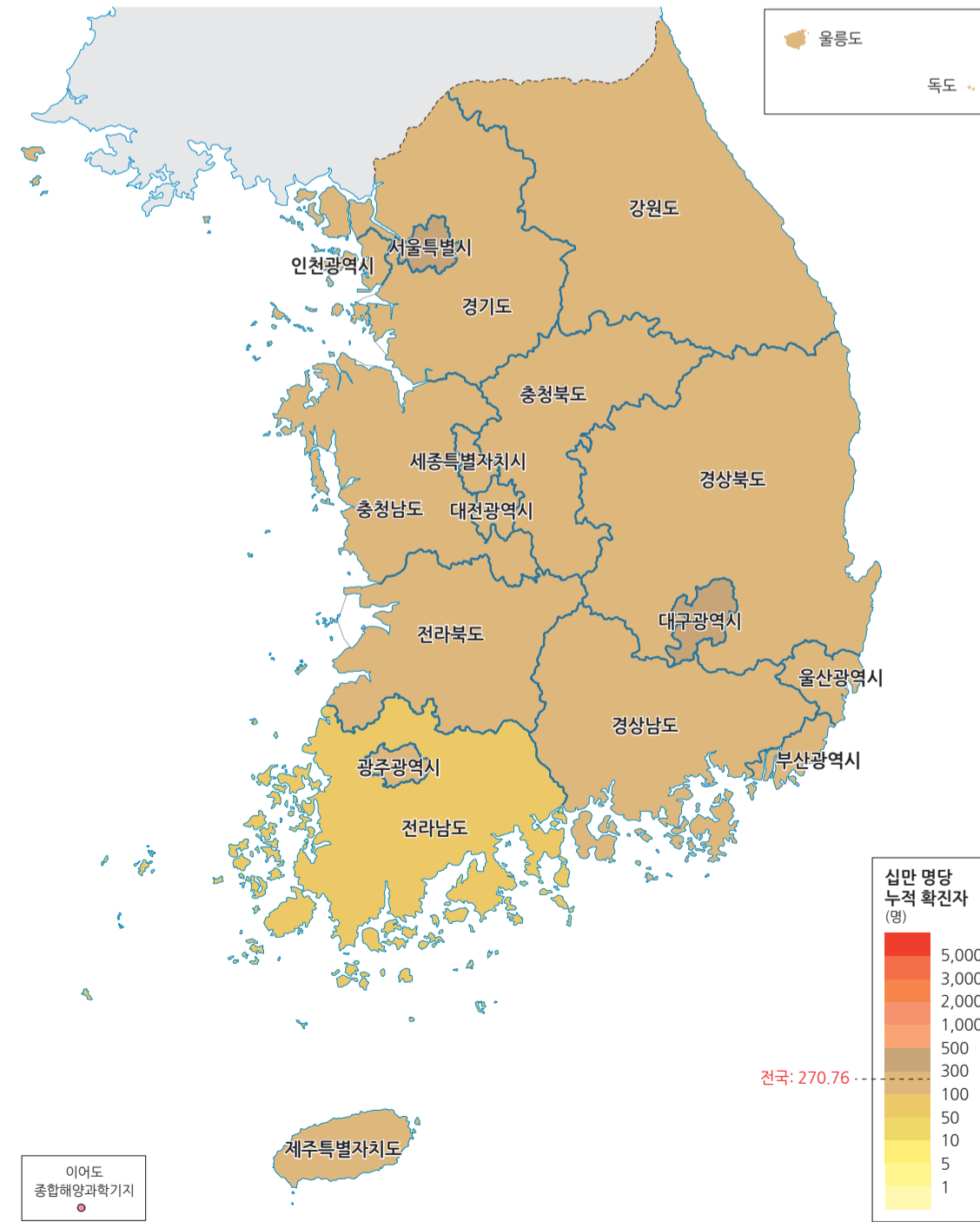
2021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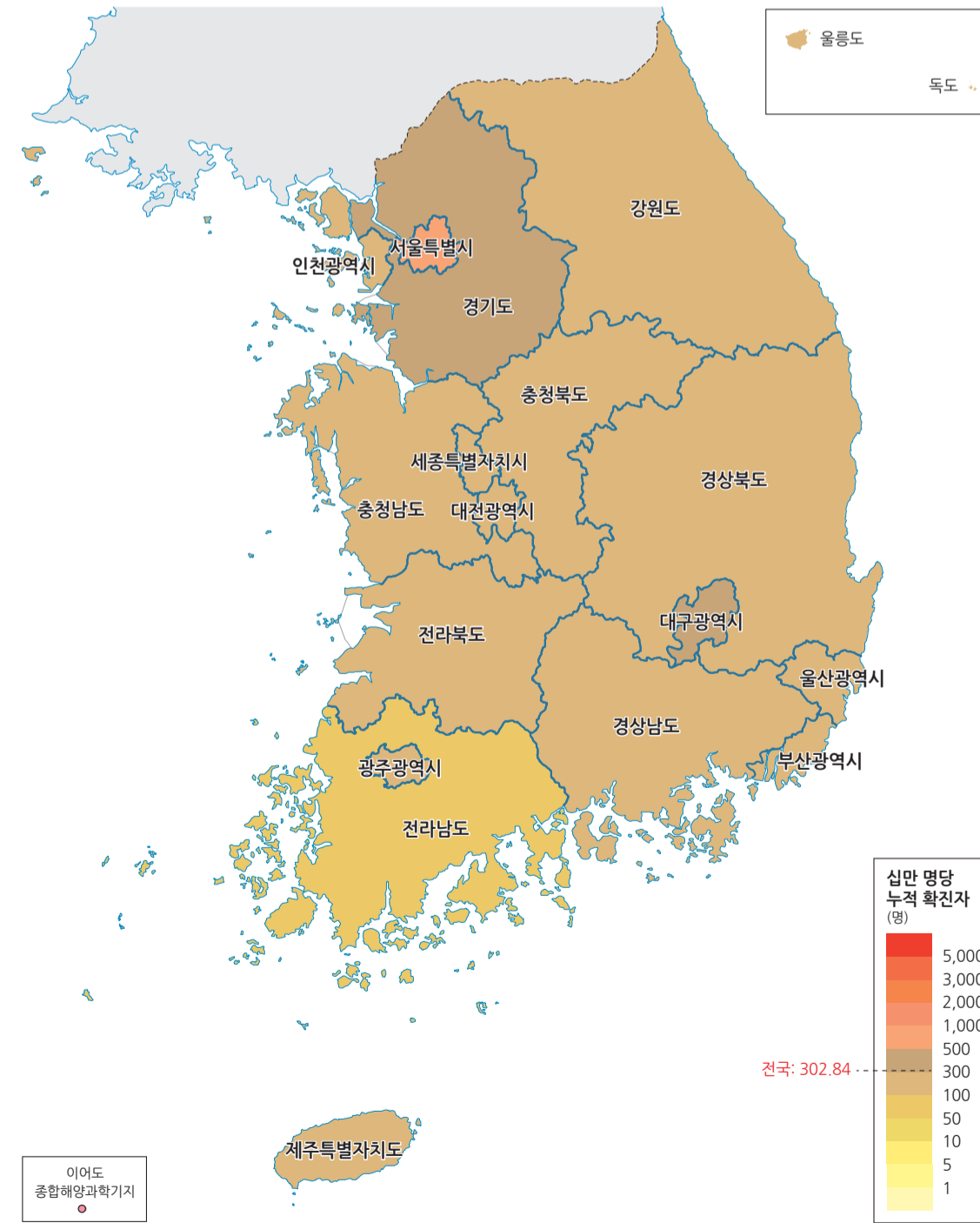
2021년 2월



2021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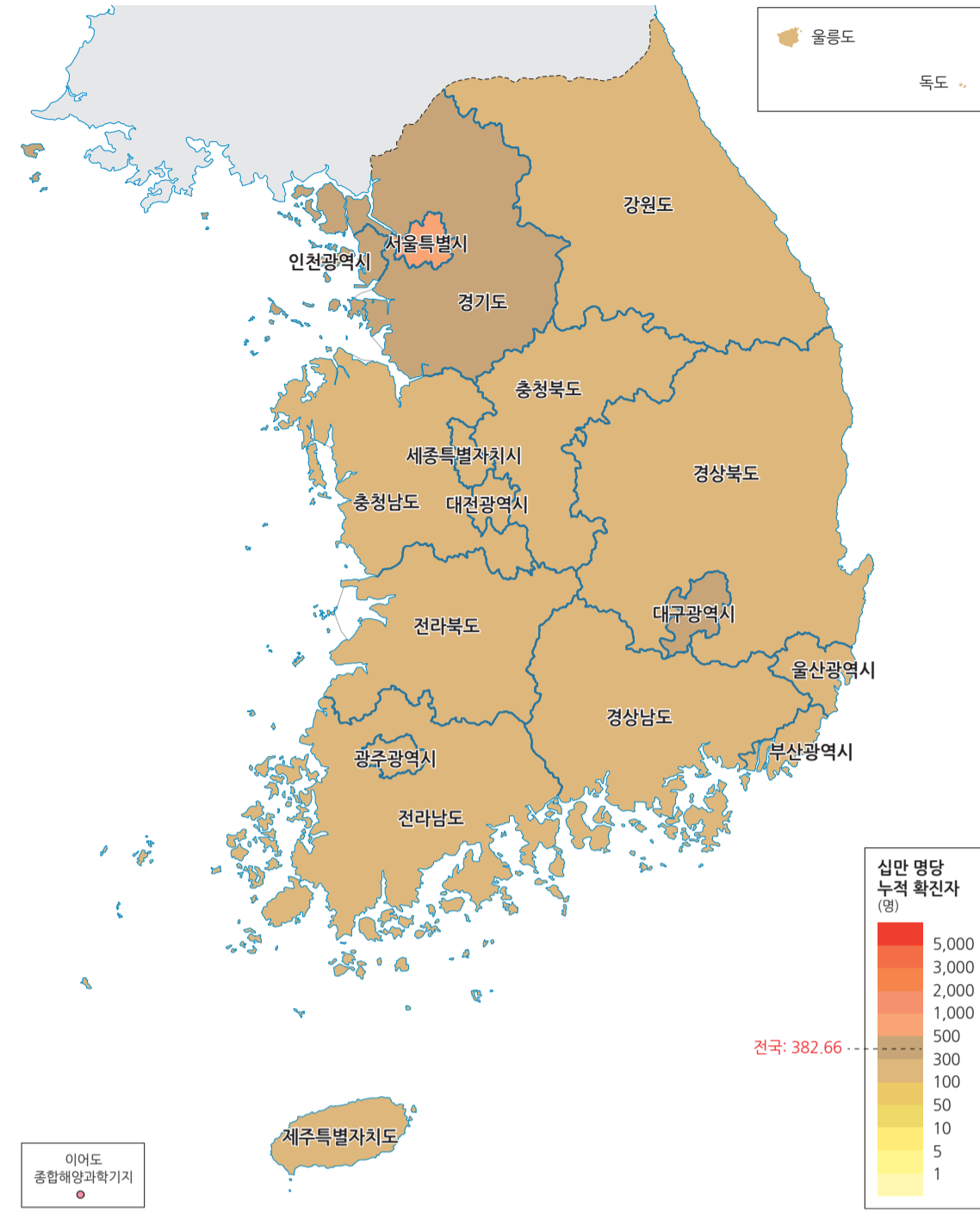


2021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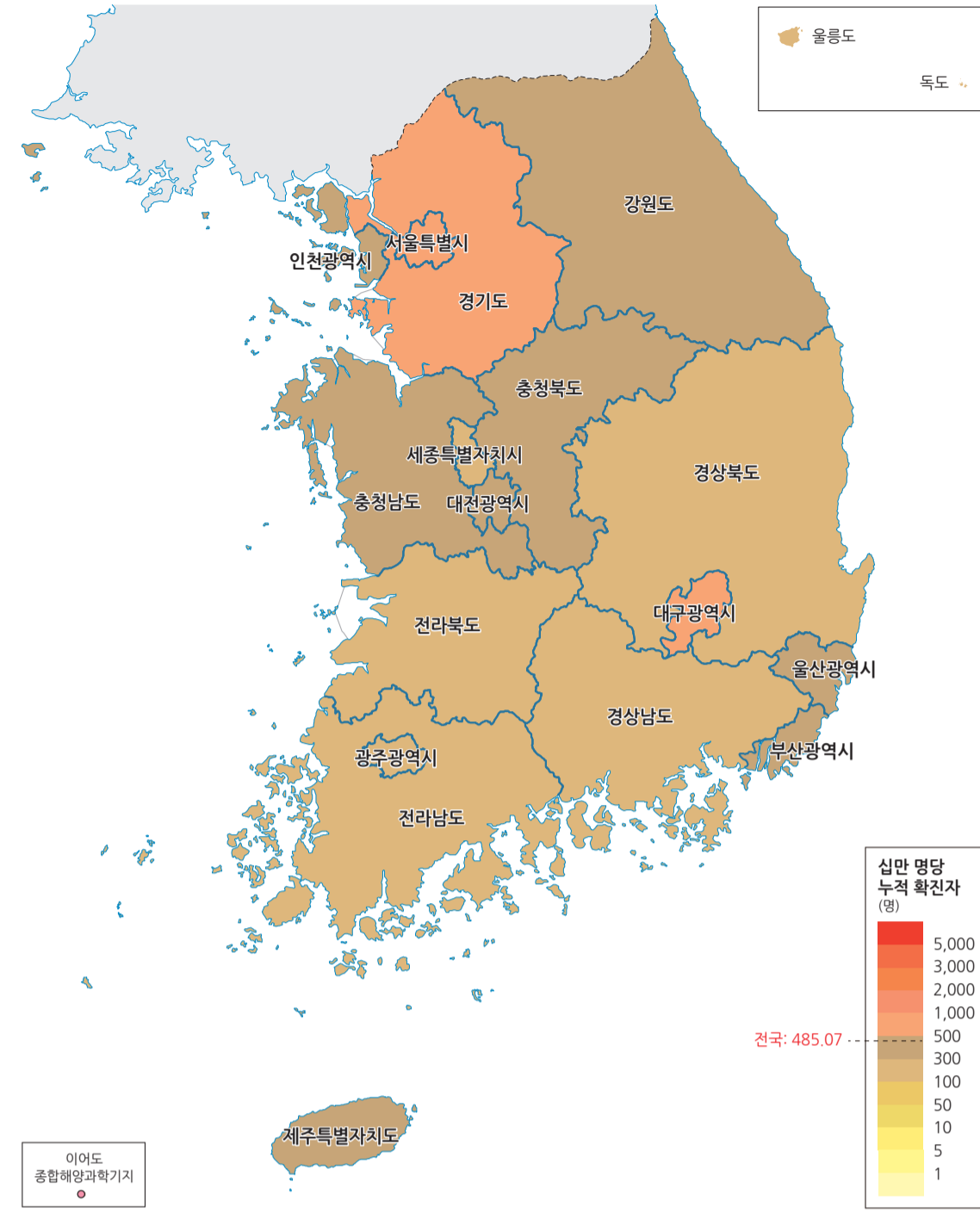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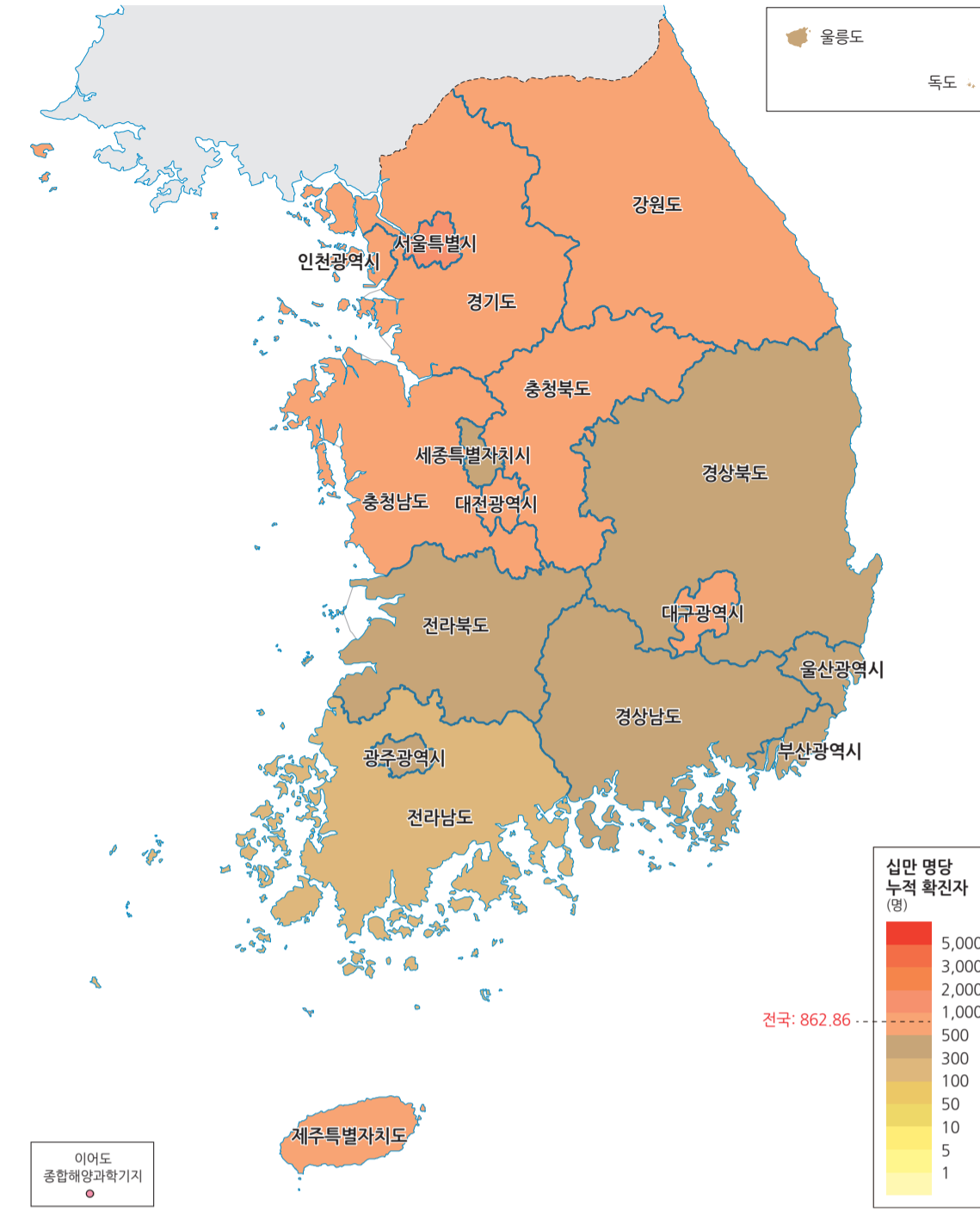
2021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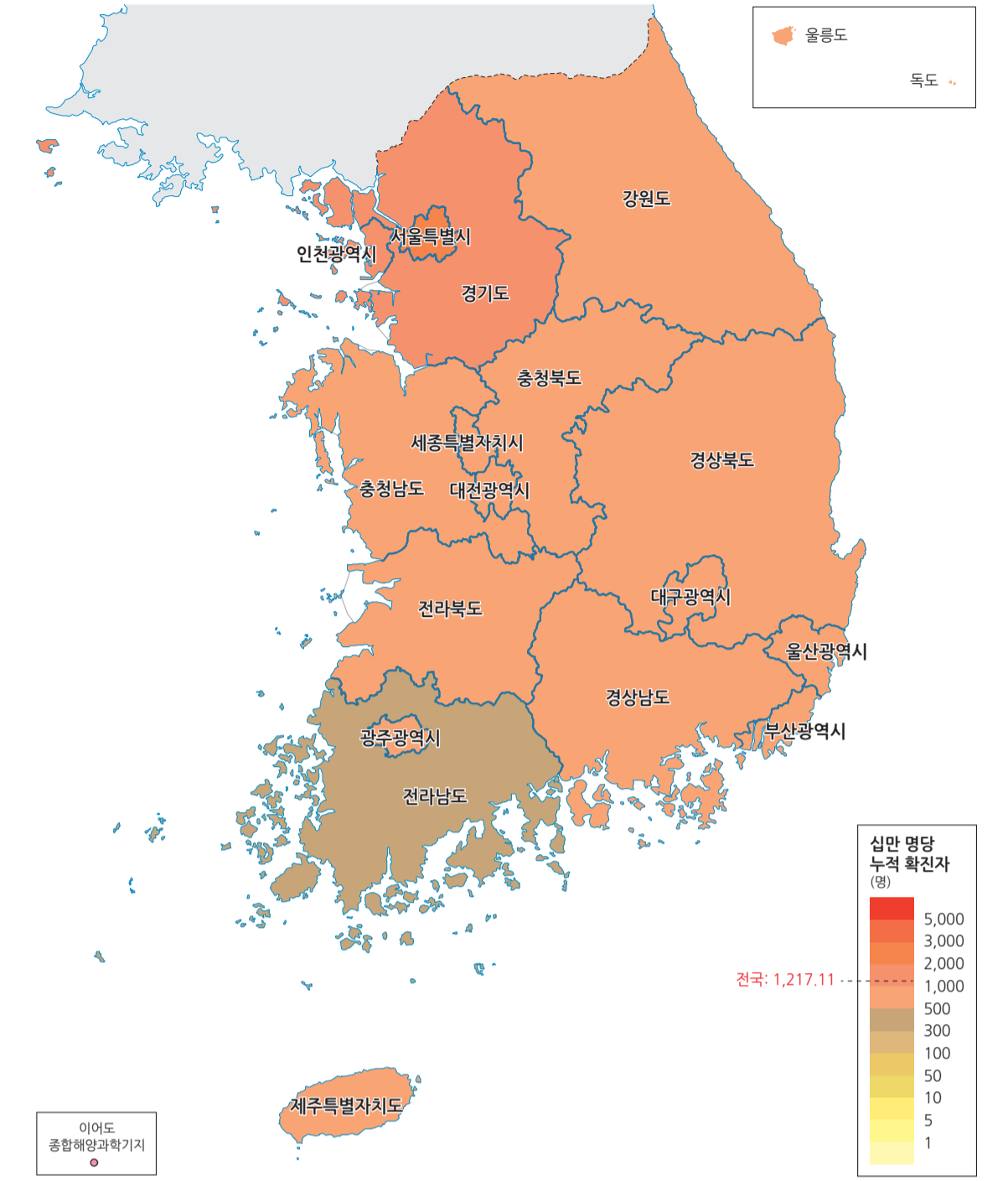
2021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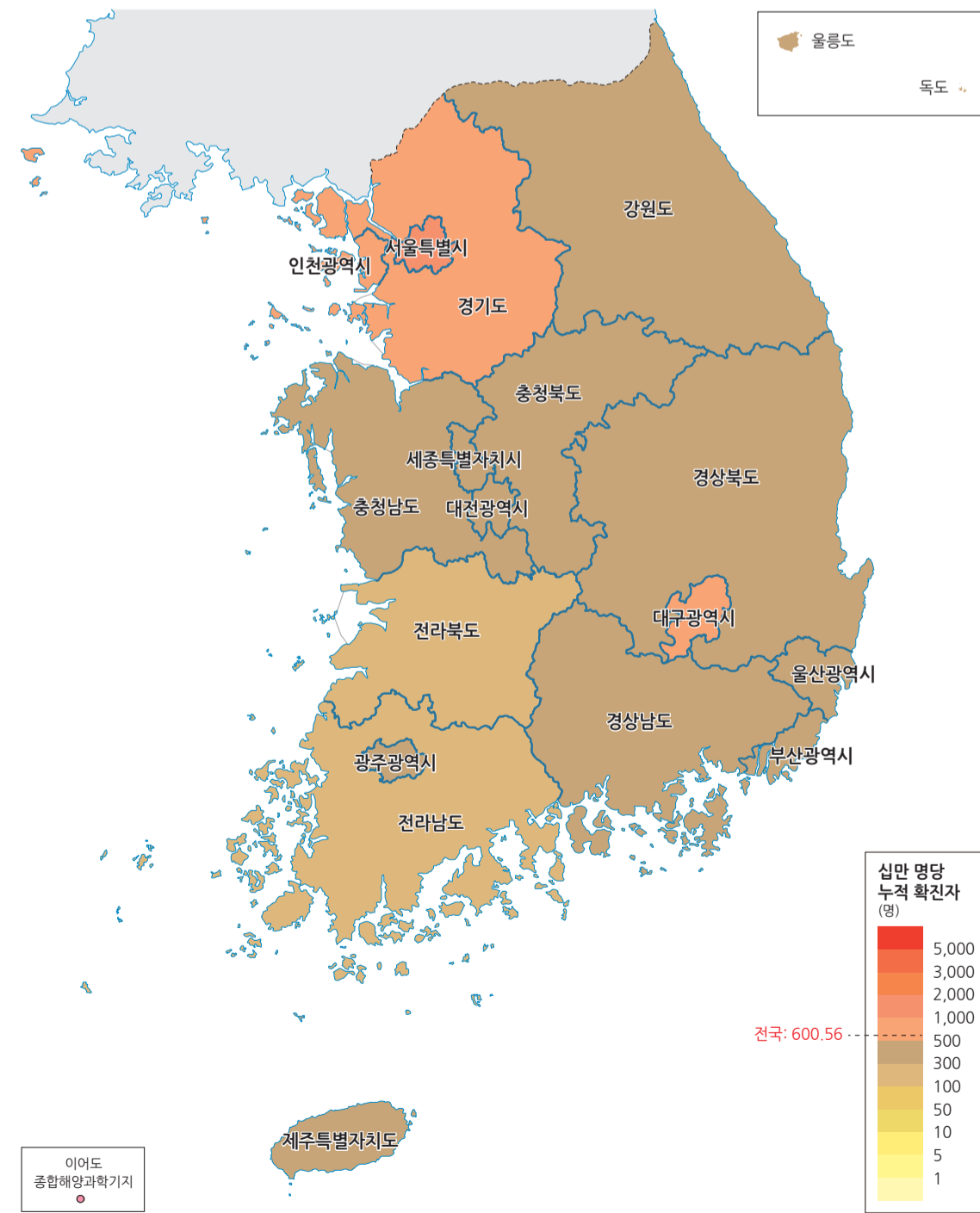
2021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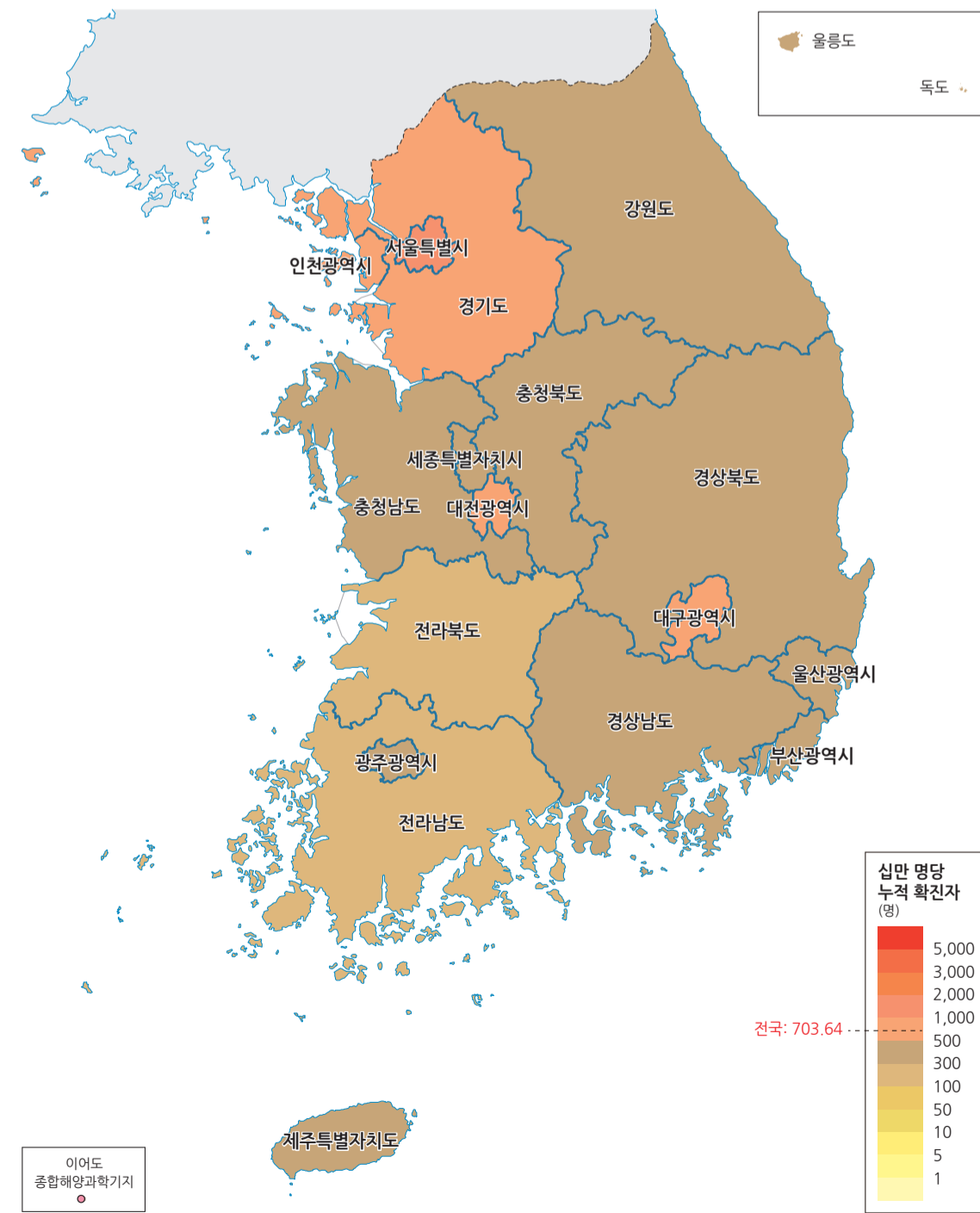
2021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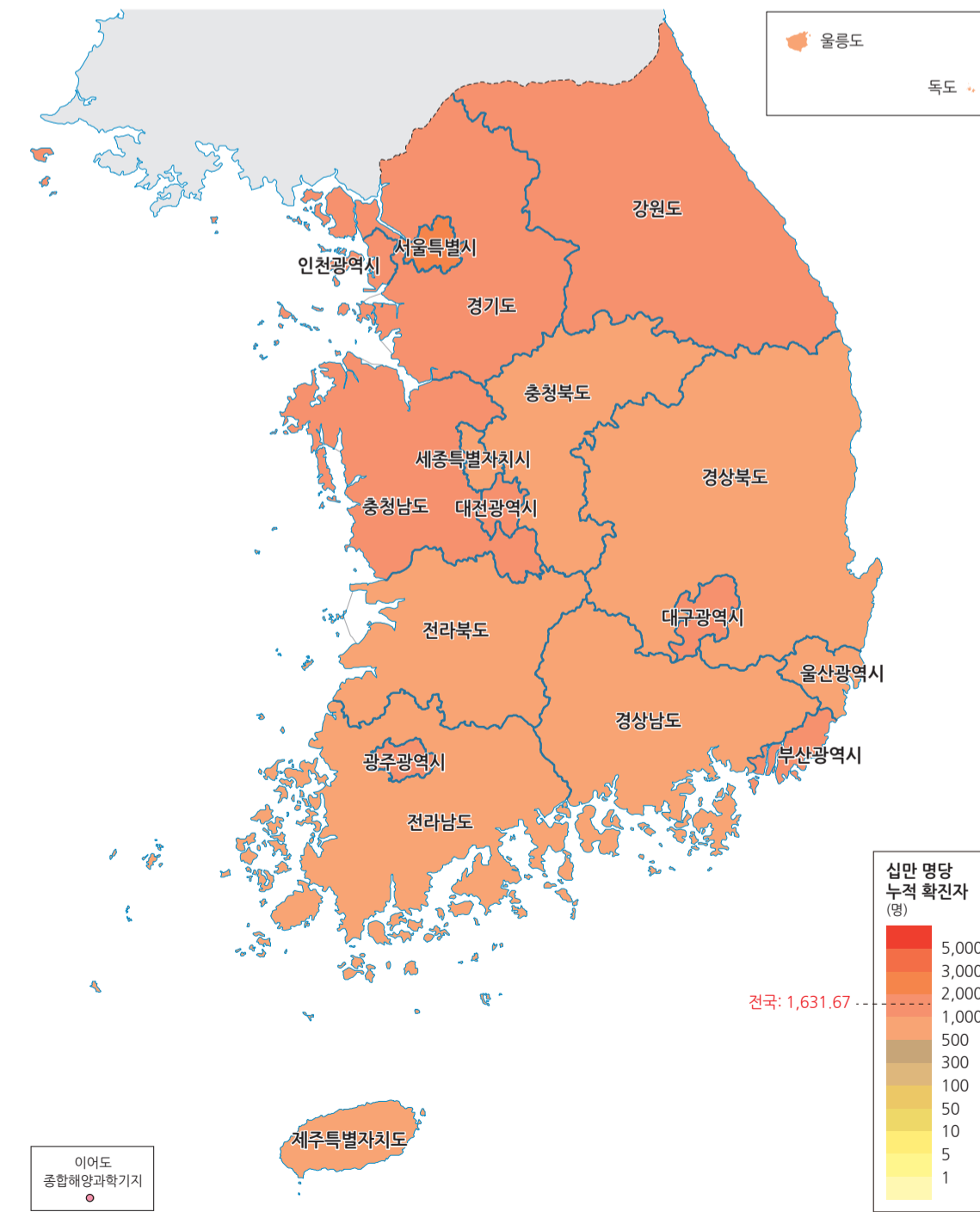
2021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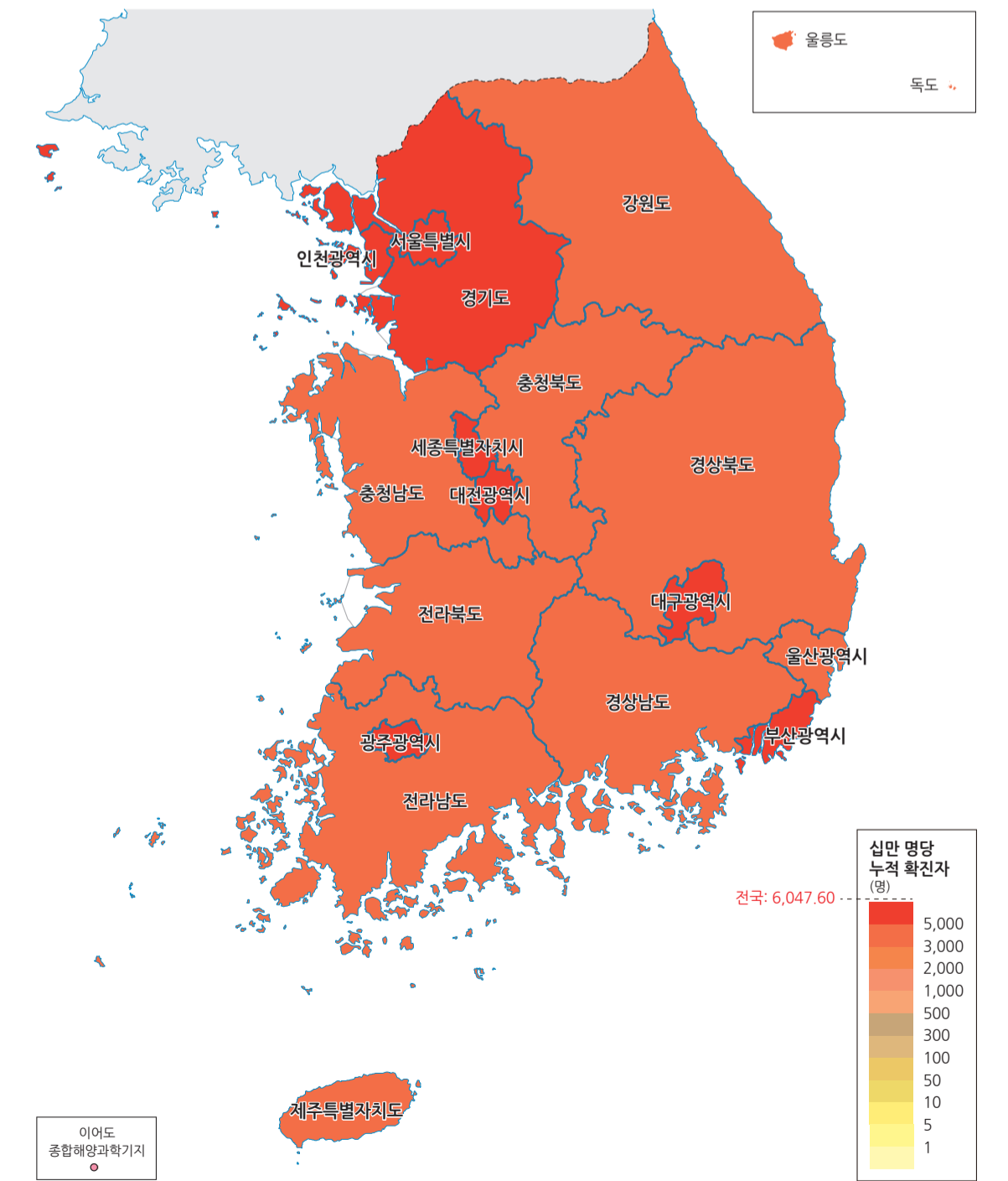
2021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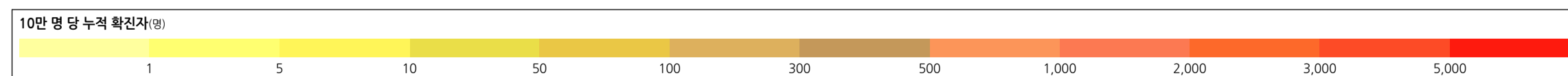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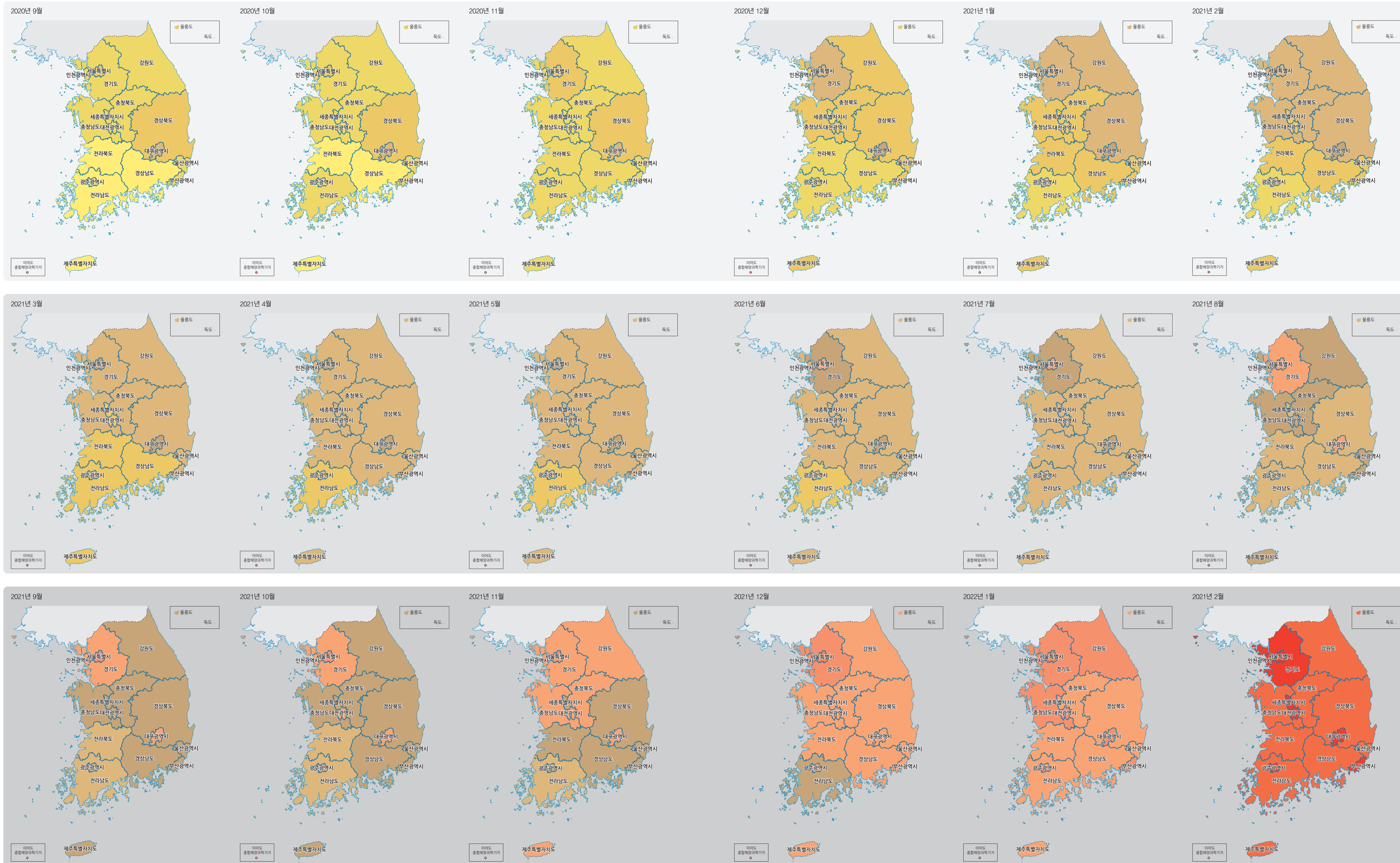
2022년 1월



2022년 2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심만 명 당 누적 확진자 추이(2020년 3월-2022년 2월)

